

〈챕터 1. 품사와 문장 성분〉

〈품사 분류〉

[2013년 3월 모의평가 A형]

1. 〈보기〉의 품사 분류 기준에 따라 예문의 단어를 분류해 보았다. 적용한 기준에 따른 분류로 알맞은 것은? [3점]1)

〈 보 기 〉

□ 품사 분류 기준

- 형태에 따라 : 가변어, 불변어
- 기능에 따라 : 체언, 용언, 관계언, 수식언, 독립언
- 의미에 따라 :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조사

□ 예문

- 호수가 깊다.
- 강의 깊이는 누구도 모른다.

기준	분류	(※ 는 분류의 경계를 표시함.)
①	형태	깊다, 깊이 호수, 가, 강, 의, 는, 누구, 도, 모른다
②	기능	깊다, 모른다 호수, 강, 깊이 누구 가, 의 는, 도
③	기능	깊다, 모른다 호수, 강, 깊이, 누구 가, 의, 는, 도
④	의미	깊다, 깊이 모른다 호수, 강 누구 가, 의, 는, 도
⑤	의미	깊다 깊이 모른다 호수 강 누구 가 의 는 도

〈대명사〉

[2014학년도 수능 B형]

2.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2)

〈 보 기 〉

선생님 : 안녕? 어, 손에 들고 있는 그거 뭐니?
학생 : 네, 중생대 공룡에 관한 책이에요. 할아버지께서는 제 생일마다 책들을 사 주셨는데, ㉠이것도 ㉡ 그것중 하나예요. 해마다 할아버지께서는 ㉢당신 손으로 직접 골라 주신답니다.
선생님 : 그렇구나. ㉣우리 집 아이들도 공룡 책을 참 좋아하지. 우리 아이들은 ㉤저희들끼리 책을 고르려고 아옹다옹한다.

- ① ㉠은 대화 상황에서 눈에 보이는 대상, 곧 학생이 들고 있는 책을 가리킨다.
- ② ㉡은 앞서 언급한 대상, 곧 할아버지께서 사 주신 책들을 가리킨다.
- ③ ㉢은 3인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 ④ ㉣은 청자를 포함하지 않는다.
- ⑤ ㉤은 1인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대명사〉

[2009학년도 수능]

3. 〈보기〉의 예를 통해, 문맥 속에서 인칭 대명사의 특성을 파악하는 활동을 해 보았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3)

〈 보 기 〉

㉠내가 부탁 하나 할게요. ㉡나는 ㉢그쪽에서 ㉣우리 아버지의 책을 맡아 주셨으면 해요. 이걸 ㉤아버지의 뜻이기도 하답니다.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책을 목숨처럼 소중하게 생각하시지요. ㉦당신에게 그 책을 맡기시려는 것을 보니 당신을 무척 믿으시는 것 같아요.

- ① ㉠과 ㉡을 비교해 보니 ㉠은 '나의'를 줄인 말이겠군.
- ② ㉢과 ㉣은 가리키는 대상이 같아.
- ③ ㉤은 ㉡과 ㉣을 아울러 가리키는 말이야.
- ④ 앞 문장에 나온 말을 반복하는 건 어색하니까 ㉤은 적절한 대명사로 바뀌야 해.
- ⑤ ㉥은 높임법에 맞지 않으니 '자기'로 바뀌야 해.

〈대명사〉

[2007학년도 6월 모의평가]

4. 〈보기〉의 ㉠에 해당하는 예로 볼 수 있는 것은?4)

〈 보 기 〉

대명사는 인칭에 따라 '나, 우리'와 같은 1인칭, '너, 자네, 그대'와 같은 2인칭, '이분, 그분, 이이, 그이'와 같은 3인칭으로 나뉜다. ㉠ 그런데 다음에서 볼 수 있듯이 동일한 형태가 1인칭, 2인칭, 3인칭 중에서 두 가지 인칭으로 쓰이기도 한다.

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2인칭)
나. 할머니께서는 당신이 젊었을 때 미인이셨다. (3인칭)

- ① 가. 그 일은 저희들이 마저 하겠습니다.
나. 애들이 어려서 저희들밖에 모른다.
- ② 가. 그렇게 말하는 너는 누구냐?
나. 누구도 그 일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 ③ 가. 그는 참으로 좋은 사람이다.
나. 그와 같은 사실에 깜짝 놀랐다.
- ④ 가. 너희를 누가 불렀니?
나. 나는 너희 학교가 마음에 든다.
- ⑤ 가. 우리 먼저 갈게요.
나. 우리 팀이 그 대회에서 우승했다.

<대명사>

[2012년 3월 교육청]

5. <보기 1>을 참조하여 <보기 2>의 ㉠~㉣을 판단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5)

————— < 보 기 1 > —————

인칭대명사는 지시 대상이 화자인지, 청자인지, 화자와 청자 이외의 제삼자인지에 따라 각각 일인칭, 이인칭, 삼인칭 대명사로 나뉜다. 이 중에 삼인칭 대명사에는 미지칭(未知稱) 대명사, 부정칭(不定稱) 대명사, 재귀대명사가 포함된다. 미지칭 대명사는 가리킴을 받는 사람의 이름이나 신분을 모를 때, 부정칭 대명사는 정해지지 아니한 사람을 지칭할 때, 재귀대명사는 앞에 나온 삼인칭 주어를 지칭할 때 쓰인다.

————— < 보 기 2 > —————

초인종이 울린다. “계세요?” 외치는 소리가 들린다.

아들 : ㉠누가 왔는지 ㉡제가 나가 볼게요. (현관으로 나가며) ㉢누구세요? (문을 열어 상대방을 확인한다.)

우체부 : 택배 왔습니다.

아들 : (물건을 건네받아 확인하고) 할머니께서 ㉣당신이 손수 말리신 꽃감을 보내셨네요. 아버지, 꽃감 좀 맛보실래요?

아버지 : ㉤네가 먼저 먹으렴. 난 이따가 먹을란다.

- ① ㉠ : 부정칭 대명사 ② ㉡ : 일인칭 대명사
- ③ ㉢ : 미지칭 대명사 ④ ㉣ : 재귀대명사
- ⑤ ㉤ : 이인칭 대명사

<대명사>

[2007년 4월 교육청]

6. <보기>의 ㉠에 해당하는 것은?6)

————— < 보 기 > —————

‘무엇’이라는 대명사는 ㉠모르는 사실이나 사물을 가리키는 경우나 정하지 않은 대상이나 이름을 밝힐 필요가 없는 대상을 가리키는 경우에 사용된다.

- ① 화단에 있는 저 꽃의 이름은 무엇인가?
- ② 배가 고프니 무엇이든 좀 먹어야겠다.
- ③ 남자는 무엇을 증언이라도 하듯 가다듬은 목소리를 냈다.
- ④ 꿈속에서 무엇이 쫓길 때처럼 다리가 제대로 놀지 않았다.
- ⑤ 그는 세간이고 무엇이든 하나도 없는 텅 빈 방 안에 서 있었다.

<조사>

[2014학년도 수능 A형]

7. 다음은 ‘사전 활용하기’ 학습 활동을 위한 자료이다. 이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7)

에 ㉠

㉠ ① 앞말이 처소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P 동생은 지금 집에 없다.
 ② 앞말이 진행 방향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P 형은 방금 집에 왔다.

㉡ ② 둘 이상의 사물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접속 조사.

에서 ㉢

㉢ ① 앞말이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처소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② 앞말이 출발점의 뜻을 갖는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③ (단체를 나타내는 명사 뒤에 붙어) 앞말이 주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 ① ‘에’는 격 조사와 접속 조사로 쓰일 수 있는 반면, ‘에서’는 격 조사로만 쓰이는 군.
- ② ‘에’의 용례로 “오늘 저녁은 밥에, 국에, 떡에 아주 잘 먹었다.”를 들 수 있겠군.
- ③ ‘에서’의 용례로 “우리 학교에서 사람들이 운동을 한다.”를 들 수 있겠군.
- ④ ‘에’의 용례에 쓰인 ‘에’는 ‘에서’로 바꿔 쓸 수 없군.
- ⑤ ‘에’의 용례에 쓰인 ‘에’를 ‘에서’ 바꾸면 문장의 의미가 바뀌는 군.

<조사>

[2007학년도 수능]

8. <보기>의 ㉠에 해당하는 것은?8)

————— < 보 기 > —————

명사는 보통 모든 조사와 결합할 수 있다. 그러나 ‘극비리’는 ㉠원칙적으로 ‘에’ 외의 조사와는 결합하지 않는 명사로, ‘극비리에 사업을 추진하다.’처럼 사용되고, ‘극비리가’, ‘극비리를’, ‘극비리의’, ‘극비리에게’, ‘극비리이다’처럼 사용되지 않는다.

- 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다.
- ② 이 판국에 내가 나한테 그럴 수는 없다.
- ③ 선생님 덕분에 무사히 일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 ④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어찌해 볼 도리가 없었다.
- ⑤ 다들 제멋에 사는데 이러니저러니 간섭하지 않는 것이 좋다.

<조사>

[2014년 4월 교육청 A형]

14. 다음은 사전의 일부이다. 이를 바탕으로 <보기>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14)

가 조

[1] (받침 없는 체언 뒤에 붙어)

- ① 어떤 상태나 상황에 놓인 대상, 또는 상태나 상황을 겪거나 일정한 동작을 하는 주체를 나타내는 격 조사.
- ② ('되다', '아니다' 앞에 쓰여) 바뀌게 되는 대상이나 부정(否定)하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바뀌게 되는 대상을 나타낼 때는 대체로 조사 '로'로 바뀔 수 있다.

[2] (받침 없는 체언이나 부사어 뒤, 또는 연결 어미 '-지' 뒤에 붙어)

앞말을 지정하여 강조하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연결 어미 '-지' 뒤에 오는 '가'는 '를'이나 '르'로 바뀔 수 있으며, 흔히 뒤에는 부정적인 표현이 온다.

이 조

[1] (받침 있는 체언 뒤에 붙어)

- ① 어떤 상태를 보이는 대상이나 일정한 상태나 상황을 겪는 경험주 또는 일정한 동작의 주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 ② ('되다', '아니다' 앞에 쓰여) 바뀌게 되는 대상이나 부정(否定)하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바뀌게 되는 대상을 나타낼 때의 '이'는 대체로 조사 '으로'로 바뀔 수 있다.

[2] ('-고 싶다' 구성에서 본동사의 목적어나 받침 있는 부사어 뒤에 붙어) 앞말을 지정하여 강조하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 보 기 >

- 어느새 연못 속의 ㉠울챙이가 ㉡개구리가 되었다.
- 아무리 청소를 해도 방이 ㉢깨끗하지가 않다.
- 그 넓던 갈대밭이 모두 ㉣뽕밭이 되었다.
- 나는 ㉤백두산이 제일 보고 싶다.

- ① ㉠의 '가'와 ㉡의 '이'는 '가[1]'과 '이[1]'을 통해 앞 체언의 받침 유무에 따라 선택된 격 조사임을 알 수 있군.
- ② ㉢의 '가'는 조사 '로'로 바꾸어 쓸 수 있는 걸 보니, '가[1]'를 통해 '되다' 앞에 쓰여 부정하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임을 알 수 있군.
- ③ ㉣의 '가'는 '를'로 바꾸어 쓸 수 있는 걸 보니, '가[2]'를 통해 앞말을 지정하여 강조하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임을 알 수 있군.
- ④ ㉤의 '이'는 조사 '으로'로 바꾸어 쓸 수 있는 걸 보니, '이[1]'를 통해 '되다' 앞에 쓰여 바뀌게 되는 대상을 나타내는 격 조사임을 알 수 있군.
- ⑤ ㉤의 '이'는 '이[2]'를 통해 앞말을 지정하여 강조하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임을 알 수 있군.

<조사>

[2009년 7월 교육청]

15. <보기>의 예를 통해 문맥 속에서 '에'와 '에서'의 특성을 파악하는 활동을 해 보았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15)

< 보 기 >

사람들이 하나둘 공원㉠에 모여들기 시작했다. 공원에는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들과 잔디㉢에 누워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음악 소리가 나자 모든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한곳㉤에 모였다. 많은 사람들이 앞㉥에 있는 한 사람을 바라보았다. 잠시 후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 ① ㉠은 '모여들다'의 목표 지점을 나타내는군.
- ② ㉡, ㉢은 상태의 지속을 뜻하는 서술어와 함께 쓰였군.
- ③ ㉣, ㉤과 달리 ㉥은 상태의 변화가 있을 경우에 사용되었군.
- ④ ㉥은 접근의 의미를, ㉦은 이탈의 의미를 나타내는군.
- ⑤ ㉦은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 장소를 뜻하는군.

<조사>

[2007년 4월 교육청]

16. <보기 1>은 '~에서'에 대한 뜻풀이의 일부이다. <보기 2>에서 각각에 해당하는 용례를 찾아 바르게 배열한 것은?16)

< 보 기 1 >

- ㄱ. 앞말이 근거의 뜻을 갖는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 ㄴ. 체언 뒤에 붙어 앞말이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처소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 ㄷ. 앞말이 비교의 기준이 되는 점의 뜻을 갖는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 보 기 2 >

- a. 고마운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b. 어느 학교 동창회에서 있었던 일이다.
- c. 우리는 아침에 도서관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 d. 그저 조그마한 보탬이라도 되고자 하는 뜻에서 행한 일이다.
- e. 죽은 부모가 살아 돌아온들 이에서 더 기쁘지는 않을 것이다.

- | | | | |
|---|------|------|------|
| | ㄱ | ㄴ | ㄷ |
| ① | a, b | c | d, e |
| ② | a, c | b, e | d |
| ③ | a, d | b, c | e |
| ④ | b, c | d, e | a |
| ⑤ | d, e | a | b, c |

<부사>

[2007년 10월 교육청]

17. <보기>는 문법 수업 중의 일부이다. 선생님의 요구에 가장 적절한 것은?17)

< 보 기 >

선생님 : 부사는 일반적으로 뒤에 오는 용언을 수식합니다. 그런데 ‘의외로’와 같은 부사는 말하는 사람의 심리적 태도를 나타내고 문장 전체를 수식하며 문장 내의 위치 이동이 자유롭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의외로’는 형태를 바꾸어서 서술어로 표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특징을 지닌 부사를 찾아 문장을 하나씩 만들어볼까요? 다음 예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 거예요.

예) 가. 의외로 그는 성실하게 일했다.
 그는 의외로 성실하게 일했다.
 그는 성실하게 일했다, 의외로

나. 그가 성실하게 일했다니 의외였다.

- ① 연우 :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
- ② 세현 :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 ③ 서진 : 나는 눈밭에서 데굴데굴 굴렀다.
- ④ 정연 : 요새는 너무 바빠서 등산을 못 한다.
- ⑤ 은우 : 나는 배가 아파 이틀 동안 밥을 못 먹었다.

<품사의 통용>

[2014년 3월 교육청 A형]

18. <보기>의 ㉠을 설명할 수 있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18)

< 보 기 >

동사는 움직임이나 작용을 나타내고, 형용사는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낸다. 그런데 ㉠하나의 단어가 하나 이상의 문법적 성질을 가지고 있어 동사와 형용사 두 가지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밝다’의 경우, ‘달이 밝다.’에서는 ‘환하다’의 의미로 쓰여 형용사가 되고 ‘날이 밝는다.’에서는 ‘밤이 지나고 환해지다’의 의미로 쓰여 동사가 된다.

- ① 그녀의 속눈썹은 길다.
 긴 겨울방학이 끝났다.
- ② 나이보다 얼굴이 젊다.
 젊은 나이에 성공을 했다.
- ③ 봄바람이 따뜻하다.
 따뜻한 마음씨를 가져야 한다.
- ④ 나는 너에 대한 기대가 크다.
 우리 아들은 키가 쑥쑥 크다.
- ⑤ 외출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늦다.
 그는 늦은 나이에 대학에 진학했다.

<품사의 통용>

[2010년 10월 교육청]

19. <보기>의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19)

< 보 기 >

‘나는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다.’에서의 ‘잘못’과 ‘나는 음식을 잘못 먹어서 배가 아프다.’의 ‘잘못’은 단어의 형태는 같으나 단어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르다. 즉, 전자의 ‘잘못’은 명사이지만, 후자의 ‘잘못’은 부사이다. 이와 같이 동일한 형태가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품사 통용’이라고 한다.

- ① 오늘 아니 가겠다고 하더라.
 아니! 벌써 그곳에 도착했어?
- ② 느낀 대로 표현하고 싶었다.
 부모님 말씀대로 행동해야 한다.
- ③ 온다던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
 간절히 바라면 기회는 온다.
- ④ 나는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었다.
 철수는 집을 대궐만큼 크게 지었다.
- ⑤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 다섯이 모였다.
 다섯 사람이 모여서 일을 시작했다.

<품사의 통용>

[2007년 10월 교육청]

20. <보기>는 문법 수업 중의 일부이다. 선생님의 요구에 잘못 말한 사람은?20)

< 보 기 >

선생님 :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중, ‘있다’와 ‘없다’는 다른 용언과 달리 활용 방식이 특별합니다. 다음 표를 참고하여 ‘있다’와 ‘없다’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말해 보도록 합시다.

※ 어간과 어미의 결합 방식 ※

결합 가능 : ○, 결합 불가 : ×

	㉠	㉡	㉢
	현재형 과형사형 어미 ‘-는’	감탄형어미 ‘-구나’	청유형어미 ‘-자’
동사	○	×	○
형용사	×	○	×

- ① 철현 : ㉡로 보아 ‘있다’는 동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 ② 영미 : ㉡로 보아 ‘없다’도 동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 ③ 동국 : ㉢로 보아 ‘없다’는 형용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 ④ 선경 : ㉢로 보아 ‘있다’는 동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 ⑤ 광민 : ㉢로 보아 ‘없다’도 동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용언의 활용〉

[2014년 4월 교육청 A형]

25. <보기>의 밑줄 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25)

< 보 기 >

동음이의(同音異義) 관계에 있는 용언들은, 그 기본형은 같지만 다양한 어미를 결합시켜 활용을 해 보면 하나는 규칙, 다른 하나는 불규칙 활용을 함으로써 두 용언의 활용 형태가 서로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이를 통해 동음이의 관계의 두 용언이 각각 서로 다른 단어임을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 ① 친구가 병이 났다.
 동생이 형보다 인물이 났다.
- ② 벽에 바른 벽지가 올다.
 시험에 진 어린이가 올다.
- ③ 소나무가 마당 쪽으로 굽다.
 어머니께서 빵을 굽다.
- ④ 친구에게 약속 시간을 이르다.
 약속 장소에 이르다.
- ⑤ 장작이 벽난로에서 타다.
 학교에 가려고 버스를 타다.

〈용언의 활용〉

[2013년 10월 교육청 B형]

26. 다음의 탐구 과정에서 ㉠과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3점]26)

자료

◦ 차에 실은(○) 것이 뭐니?
◦ 시들은(x) / 시든(○) 꽃 한 송이가 있다.
* ○: 어문 규정에 맞음. x: 어문 규정에 어긋남.

의문

◦ 어문 규정에 따를 때, '싣다'처럼 어간 끝이 'ㄷ'인 용언과 '시들다'처럼 어간 끝이 'ㄹ'인 용언에 관형사형 어미가 결합하면 어떻게 될까?

탐구

㉠ '실은', '시든'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분석해 본다.
◦ 실은 → 싣-(어간) + -은(어미)
◦ 시든 → 시들-(어간) + -ㄷ(어미)

㉡ 유사한 사례를 찾아 분석해 본다.

예문	기본형	활용형	형태소 분석
이것이 바로 내가 들은(○) 소리다.	듣다	들은	듣+-은
정성을 쏟은(○) 일은 실패하지 않는다.	쏟다	쏟은	쏟+-은

예문	기본형	활용형	형태소 분석
그가 내밀은(x) / 내민(○) 손을 잡지 못했다.	내밀다	내민	내밀 --ㄷ
부풀은(x) / 부푼(○) 꿈을 안고 왔다.	부풀다	부푼	부풀 --ㄷ

결과

◦ 어간 끝이 'ㄷ'인 용언은, 관형사형 어미 '-은'이 결합하면 'ㄷ'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 _____.
◦ 어간 끝이 'ㄹ'인 용언은, 관형사형 어미 '-ㄷ'이 결합하면 ㉡ _____.

- | | |
|-----------------|------------|
| ㉠ | ㉡ |
| ① 'ㄷ'이 'ㄹ'로 교체됨 | '-은-'가 삽입됨 |
| ② 'ㄷ'이 'ㄹ'로 교체됨 | 'ㄷ'이 탈락함 |
| ③ 어미의 형태가 바뀜 | 어미의 형태가 바뀜 |
| ④ 'ㄷ'이 탈락함 | 'ㄹ'이 탈락함 |
| ⑤ 어간의 형태가 바뀜 | 어미의 형태가 바뀜 |

〈용언의 활용〉

[2013년 4월 교육청 A형]

27. <보기>는 '용언의 불규칙 활용'에 대한 설명이다. ㉠에 해당하는 것은?27)

< 보 기 >

용언의 활용에서 용언의 어간이나 어미의 기본 형태가 불규칙적으로 달라지는 것을 '불규칙 활용'이라고 하는데, 불규칙 활용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이 있다.

• 어간만 바뀌는 경우

<예시>	어간	어미의 기본형태	
	견-	+ -고	→ 견고
		+ -아/어	→ 걸어
		+ -아라/어라	→ 걸러라
		⋮	

• 어미만 바뀌는 경우

<예시>	어간	어미의 기본형태	
	이르(至)-	+ -고	→ 이르고
		+ -아/어	→ 이르러
		+ -아서/어서	→ 이르러서
		⋮	

• 어간과 어미가 모두 바뀌는 경우 ㉠

- ① 사람들을 빨리 불러 오너라.
- ② 하늘이 파래서 기분이 좋다.
- ③ 그런 식으로 말을 지어 내지 마라.
- ④ 지나가는 사람에게 길을 물어 봐라.
- ⑤ 공부를 열심히 하여 좋은 결과를 얻자.

〈용언의 활용〉

[2011년 4월 모의평가]

28. <보기>를 바탕으로 ‘용언의 활용형과 준말’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²⁸⁾

〈 보 기 〉				
어간	어미	활용형	준말	
ㄱ. 흔하-	+ -지	→ 흔하지	흔치	
ㄴ. 섭섭하-	+ -지	→ 섭섭하지	섭섭지	
ㄷ. 이러하-	+ -지	→ 이러하지	이렇지	
ㄹ. 삼가-	+ -지	→ 삼가지	×	

- ① ㄱ의 준말은 활용형의 어간에서 ‘하’의 ‘ㅏ’가 탈락하고 ‘ㅎ’이 어미의 첫소리와 결합한 경우에 해당하는군.
- ② ㄴ의 준말은 활용형의 어간에서 ‘하’가 탈락한 경우에 해당하는군.
- ③ ㄷ의 준말은 활용형의 어간에서 ‘하’의 ‘ㅏ’가 탈락하고 ‘ㅎ’이 앞 음절 끝소리로 붙은 경우이군.
- ④ ㄱ과 ㄴ의 준말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어미의 첫소리와 관련이 깊겠군.
- ⑤ ㄱ~ㄷ과 달리 ㄹ에 준말이 없는 것은 어간에 ‘하’가 없기 때문으로 볼 수 있군.

〈용언의 활용〉

[2008년 4월 교육청]

29. ‘언어 자료’를 활용하여 ‘-ㄴ다/는다’의 ‘쓰임 환경’을 탐구하려고 할 때, ㉠~㉣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배열된 것은?²⁹⁾

언어 자료	쓰임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던진다, 온다, 잔다 • 본다, 운다, 만든다 • 웃으신다, 막으신다, 감으신다 • 웃는다, 감는다, 막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뒤 • ‘ㄹ’ 받침인 동사 어간 뒤 • (㉡) 뒤 ○ -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ㄹ’ 받침을 제외한 (㉢) 뒤

- | | | |
|---------------|---------|-------------|
| ㉠ | ㉡ | ㉢ |
| ① 받침 없는 동사 어간 | 어미 ‘으시’ | 받침 있는 동사 어간 |
| ② 받침 있는 동사 어간 | 피동사 | 받침 없는 동사 어간 |
| ③ 타동사 | 어미 ‘으시’ | 피동사 |
| ④ 받침 없는 동사 어간 | 타동사 | 피동사 |
| ⑤ 타동사 | 피동사 | 받침 있는 동사 어간 |

〈문장 성분〉

[2015학년도 수능 A형/B형]

30. <보기>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잘못된 문장을 수정한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서술어 자릿수에 대한 이해 + <보기>를 꼭바로 읽어봐)³⁰⁾

〈 보 기 〉

서술어의 자릿수는 문법적으로 정확하지 못한 문장을 수정하는 데 고려해야 할 중요한 기준이다. 서술어의 자릿수란 서술어가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문장 성분의 수를 의미하는 데,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 한 자리 서술어 : 꽃이 피었다.
- 두 자리 서술어 : 고양이가 쥐를 잡았다.
- 세 자리 서술어 : 동생은 나에게 책을 주었다.

서술어가 요구하는 문장 성분이 빠져 있으면 문법적으로 정확하지 못한 문장이 되므로 그 성분을 보충하여야 한다.

- ① 그들은 양식이 다 떨어지자 식량 공급을 요청했다.
→ 그들은 양식이 다 떨어지자 정부에 식량 공급을 요청했다.
- ② 문제는 우리가 예의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 문제는 우리가 예의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다.
- ③ 나는 오늘 점심을 먹으면서 내 친구를 소개하였다.
→ 나는 오늘 점심을 먹으면서 내 친구를 누나에게 소개하였다.
- ④ 우리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지금보다 강해질 것이다.
→ 우리는 그 일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지금보다 강해질 것이다.
- ⑤ 형은 이곳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두울 수밖에 없다.
→ 형은 이곳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동네 지리에 어두울 수밖에 없다.

〈문장 성분〉

[2014학년도 수능 A형]

31.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패턴 활용)³¹⁾

〈 보 기 〉

명사절은 명사와 마찬가지로 문장에서 다양한 문장 성분으로 쓰인다. 다음의 밑줄 친 명사절이 어떤 문장 성분으로 쓰이는지 알아보자.

- ㉠ 색깔이 희기가 문과 같다.
- ㉡ 농부들은 비가 오기를 기다린다.
- ㉢ 부모는 언제나 자식이 행복하기를 바란다.
- ㉣ 제비는 겨울이 오기 전에 남쪽으로 떠났다.
- ㉤ 지금은 우리가 학교에 가기에 아직 이르다.

- ① ㉠ : 명사절이 조사와 결합하여 주어로 쓰였다.
- ② ㉡ : 명사절이 조사와 결합하여 목적어로 쓰였다.
- ③ ㉢ : 명사절이 조사와 결합하지 않고 목적어로 쓰였다.
- ④ ㉣ : 명사절이 조사와 결합하지 않고 부사어로 쓰였다.
- ⑤ ㉤ : 명사절이 조사와 결합하여 부사어로 쓰였다.

<문장 성분>

[2014학년도 6월 모의평가 A형]

32. <보기 1>을 바탕으로 ㉠과 품사가 같은 것을 <보기 2>에서 고른 것은?32)

< 보기 1 >

문장

- 아침에 하는 ㉠달리기는 건강에 매우 좋다.
- 나는 모임에 늦지 않으려고 더 빨리 ㉡달리기 시작했다.

설명

㉠과 ㉡은 형태는 같으나 품사가 다르다. ㉠은 '달리-'에 접미사가 붙은 명사로서 관형어의 수식을 받고 있다. 이에 반해, ㉡은 '달리-'에 명사형 어미가 붙은 동사로서 부사어의 꾸밈을 받으며 서술하는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 보기 2 >

- 그는 멋지게 ㉢웃음으로써 답변을 회피했다.
- 그 가수는 현란한 ㉣춤을 추며 노래를 불렀다.
- 오늘따라 학생들의 ㉤걸음이 가벼워 보였다.
- 자기 소개서에 "만화를 잘 ㉥그림."이라고 썼다.

- ① ㉢, ㉣ ② ㉢, ㉤ ③ ㉣, ㉥
- ④ ㉣, ㉥ ⑤ ㉤, ㉥

<문장 성분>

[2007학년도 9월 모의평가]

33. 문장에서 일부 문장 성분들을 생략하거나 보충하는 활동을 통해 '필요한 문장 성분'에 대해 탐구해 보았다. <보기>를 바탕으로 판단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33)

< 보기 >

- ㄱ. 아이가 작은 침대에서 예쁘게 잔다.
- ㄴ. 학생들이 식당에서 점심을 먹는다.
- ㄷ. 그 아이는 예쁘게 생겼다.
- ㄹ. 작은 것이 아름답다.
- ㅁ. 우리도 언제 개통될지 모른다.

- ① ㄱ에는 문장 성분이 여러 개 있지만 필수적인 것은 주어와 서술어야.
- ② ㄴ에서 필수적인 문장 성분은 네 개야.
- ③ ㄷ을 보면 부사어도 필수적인 문장 성분이 될 수 있어.
- ④ 관형어는 일반적으로 생략될 수 있지만 ㄹ처럼 필수적인 경우도 있어.
- ⑤ ㅁ에는 필수적인 문장 성분이 빠졌으니 서술어 '개통되다'의 주어를 보충해야 해.

<문장 성분>

[2013년 10월 교육청 A형]

34. <보기>를 바탕으로 '주어'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34)

< 보기 >

지난 토요일에 ㉠사촌 동생이 왔다. 뭘 할까 고민하다 ㉡사촌 동생에게 미술관에 가자고 했다. ㉢지하철이 있었지만, 한 정거장이라 걸어가기로 했다. 재미있게 놀다 오라고 하시며 ㉣어머니께서 용돈을 주셨다. 걷다 생각해 보니, ㉤우리가 함께 노는 것도 오랜만이었다. 다들 바빠서인지 ㉥친척도 서로 만나기가 쉽지 않은 듯하다.

- ① ㉠, ㉡, ㉢을 보니, 주어는 '무엇이 어찌한다/어떠하다'에서 '무엇이'에 해당하는군.
- ② ㉠과 ㉢을 비교해 보니, 서술어의 자릿수에 따라 주격 조사의 형태가 달라지는군.
- ③ ㉡을 보니, 문맥상 주어를 분명히 알 수 있을 경우에는 주어 생략되기도 하는군.
- ④ ㉡과 ㉢을 비교해 보니, 자음 뒤에서는 '이', 모음 뒤에서는 '가'가 주격 조사로 쓰이는군.
- ⑤ ㉢을 보니, 체언뿐 아니라 명사절도 주어 가 될 수 있군.

<문장 성분>

[2013년 7월 교육청 A형]

35. 다음 자료를 통해 '부사어'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35)

내 단짝 친구는 바로 은수인데, 은수는 춤을 매우 잘 춘다. 쉬는 시간에 은수가 ㉠교실 앞에 나와서 춤을 췄다. 은수는 요즘 인기가 많은 가수와 ㉡비슷했다. 친구들이 박수를 치면서 호응을 해 주자 은수는 무척 즐거워했다.

탐구결과	
'바로'와 '매우'가 꾸미는 문장성분을 살핀다.	부사어는 다양한 문장성분을 꾸민다.....①
'쉬는 시간에'를 ㉠에 옮겨 본다.	부사어의 위치를 바꾸면 부사어의 의미가 달라진다.....②
'매우'와 '가수와'를 생략해 본다.	부사어는 문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다.....③
㉡에 '정말'을 넣어 본다.	부사어를 넣어 서술어의 의미를 강조할 수 있다.....④
'무척' 뒤에 '-이나'를 붙여 본다.	부사어는 보조사와 결합하여 쓰일 수 있다.....⑤

<문장 성분>

[2012년 10월 교육청]

36. <보기 1>을 참고하여 <보기 2>의 ㉠~㉣ 중 유형이 동일한 것을 찾아 바르게 짝지은 것은? [3점]36)

————— < 보기 1 > —————

체언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관형어는 형성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관형사 : 첫 서리가 내렸다.
2. 체언 단독 : 고향 소식을 들었다.
3. 체언+조사 : 바다의 품에 안기고 싶다.
4. 용언의 어간+관형사형 어미 : 넓은 들판이 펼쳐진다.

————— < 보기 2 > —————

아침에 등교하다가 ㉠초등학교 친구를 만났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길을 걸으며 ㉢옛 이야기를 나누었다. 함께 지내던 ㉣때의 ㉤온갖 기억들을 하나씩 떠올리며 이야기하다 보니 등갓길이 지루하지 않았다.

- ① ㉠, ㉢ ② ㉠, ㉣ ③ ㉡, ㉣
- ④ ㉢, ㉣ ⑤ ㉢, ㉤

<문장 성분>

[2012년 10월 교육청]

37. <보기>의 용례들을 바탕으로 '받다'의 의미 및 쓰임 상의 특성을 탐구해 보았다. 그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37)

————— < 보기 > —————

- 가. 영희는 남자 친구에게서 생일 선물을 받았다.
- 나. 철호는 선생님께 가르침을 받고 태도가 바뀌었다.
- 다. 그녀는 가게에서 손님을 받느라 정신이 없었다.
- 르. 아이의 어리광을 받아 주기만 하면 안 된다.
- 미. 어머니께서는 따뜻한 목욕물을 욕조에 받아 주셨다.
- 바. 밝은 색 옷이 그에게 잘 받을 거야.

- ① 가, 나를 보니, '...에게/에게서 ...를 받다'의 문장 형식으로 사용될 때 목적으로 구체적인 대상뿐만 아니라 추상적인 대상도 취할 수 있군.
- ② 다, 르를 보니, 부사어와 함께 사용되어야만 사람을 주어로 취할 수 있군.
- ③ 미를 보니, 사람을 목적으로 취해 '(사람을) 맞아들이다'란 의미를 나타낼 수 있군.
- ④ 미를 보니, '...을 ...에 받다'의 문장 형식으로 사용되면 '답다'의 의미로 쓰일 수 있군.
- ⑤ 바를 보니, 목적어 없이 주어와 부사어하고만 어울려 사용될 수도 있겠군.

<문장 구조>

[2015학년도 수능 A형]

38. 다음 ㉠, ㉡의 문장 성분과 문장 구조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3점] (범주설정)38)

————— < 보기 > —————

- ㉠ 친구들은 내가 노래 부르기를 원한다.
- ㉡ 우리는 이 지역 토양이 벼농사에 적합함을 몰랐다.

- ① ㉠에는 부사어가 있지만 ㉡에는 부사어가 없다.
- ② ㉠에는 명사절이 안겨 있지만 ㉡에는 부사절이 안겨 있다.
- ③ ㉠에는 서술절이 안겨 있지만 ㉡에는 관형절이 안겨 있다.
- ④ ㉠의 안긴문장 속에는 관형어가 있지만 ㉡의 안긴문장 속에는 관형어가 없다.
- ⑤ ㉠의 안긴문장 속에는 목적어가 있지만 ㉡의 안긴문장 속에는 목적어가 없다.

<문장 구조>

[2005학년도 수능]

39. <보기>를 이용하여 국어 문장 구조에 관한 수업을 진행하였다. 발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39)

————— < 보기 > —————

- 가. 담장은 이마에 흐르는 땀을 씻었다.
- 나. 그가 착한 사람임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 다. 그 사람은 아는 것도 없이 잘난 척을 해.

- ① 위 문장의 밑줄 친 부분은 모두 다른 문장 속에 안긴 문장입니다.
- ② 그런데 가, 나, 다에서 밑줄 친 부분은 각각 관형어, 목적어, 부사어의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 ③ 가의 밑줄 친 부분에는 주어가 나타나 있지 않은데, 생략된 주어는 '담장'입니다.
- ④ 나에서는 밑줄 친 부분뿐 아니라 '그가 착한'과 '그가 착한 사람임을 모르는'도 안긴 문장입니다.
- ⑤ 이처럼 우리말은 문장 속에 문장을 안은 형태로 복잡한 생각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문장 구조>

[2015학년도 9월 모의평가 A형]

40. <보기>의 ㉠에 해당하는 예가 아닌 것은?40)

————— < 보기 > —————

㉠하나의 문장이 관형절로 다른 문장에 안길 때, 원래 있었던 주어가 생략되는 경우가 있다.

- (가) 민수가 열심히 공부한다.
- (나) 형이 민수에게 음료수를 주었다.
- (다) 형이 열심히 공부하는 민수에게 음료수를 주었다.

(가)가 (나)에 관형절로 안겨 (다)가 만들어질 때, (가)의 '민수'와 (나)의 '민수가' 중복된다. 이 경우, (가)의 주어 '민수가'가 (다)의 밑줄 친 관형절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 ① 형이 숙제를 하는 동생을 불렀다.
- ② 동생은 대학생이 된 형과 여행을 했다.
- ③ 영수가 버스에 탄 경희에게 말을 걸었다.
- ④ 나는 정수가 은희와 결혼한 사실을 몰랐다.
- ⑤ 그는 이 그림을 그린 화가의 전시회에 갔다.

〈문장 구조〉

[2014년 7월 교육청 A형]

41. <보기>를 참고할 때,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41)

— < 보 기 > —

안긴문장은 문장에서 기능에 따라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인용절, 서술절로 나누어진다. 명사절은 ‘-(으)ㄴ’, ‘-기’, 관형절은 ‘-(으)ㄴ’, ‘-는’, 부사절은 ‘-이’, ‘-게’, ‘-도록’, 인용절은 ‘고’, ‘라고’ 등이 붙어서 만들어지며 서술절은 절 표지가 따로 없이 절 전체가 서술어의 기능을 한다.

용례	설명
○ 꼬끼리는 <u>코가 길다</u> .	⇒ ‘꼬끼리’라는 주어를 서술하는 서술절이다.....①
○ 친구가 <u>소리도 없이</u> 내 뒤로 다가왔다.	⇒ ‘다가왔다’라는 서술어를 수식하는 부사절이다.....②
○ 지금은 <u>학교에 가기에</u> 늦은 시간이다.	⇒ ‘기’라는 명사형 어미를 사용하여 만든 명사절이다.....③
○ 오늘 <u>급식을 일찍</u> 먹기는 힘들겠다.	⇒ ‘우리’라는 주어가 생략된 관형절이다.④
○ <u>현대는</u> 자기가 옳다고 주장했다.	⇒ ‘현대’의 말을 인용하여 쓴 인용절이다.....⑤

〈문장 구조〉

[2013년 4월 교육청 A형]

42. <보기>는 이어진 문장과 안은 문장에 대해 정리한 것이다. 탐구의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42)

— < 보 기 > —

○ **이어진 문장** : 둘 이상의 홑문장이 대등하거나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ㄱ. 동생은 과일은 좋아하지만, 야채는 싫어한다.
 동생은 야채는 싫어하지만, 과일은 좋아한다.
 (동생은 과일을 좋아하다. / 동생은 야채를 싫어하다.)

ㄴ. 철수가 오면 그들은 출발할 것이다.
 그들이 출발하면 철수가 올 것이다.
 (철수가 오다. / 그들이 출발하다.)

○ **안은 문장** : 홑문장을 전체 문장의 한 성분으로 안고 있는 문장

ㄷ. 언니는 그 아이가 학생임을 알았다.
 (언니는 그것을 알다. / 그 아이가 학생이다.)

ㄹ. 책을 읽던 영수가 수지에게 다가왔다.
 (영수가 책을 읽다. / 영수가 수지에게 다가오다.)

* 표시 : 안긴 문장임.

- ① ㄱ과 ㄴ으로 볼 때, 이어진 문장은 두 문장이 ‘대조’나 ‘조건’의 의미 관계로 연결되기도 하는군.
- ② ㄱ과 ㄴ으로 볼 때, 이어진 문장은 앞뒤 문장의 순서가 바뀌어도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는군.
- ③ ㄱ과 ㄹ로 볼 때, 이어진 문장과 안은 문장 모두 중복된 내용을 생략할 수 있군.
- ④ ㄷ과 ㄹ로 볼 때, 안긴 문장은 안은 문장에서 명사처럼 쓰이거나 명사를 꾸미는 등 다양한 역할을 하는군.
- ⑤ ㄷ과 ㄹ로 볼 때, 안긴 문장과 안은 문장의 주어는 같을 수도 있고 서로 다를 수도 있군.

〈챕터2. 표현 파트〉

〈문장 표현〉

[2012학년도 수능]

43. <보기>를 바탕으로 ‘동시’의 의미를 나타내는 연결어미 ‘-(으)면서’와 ‘-자’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43)

〈 보 기 〉

ㄱ. 동수는 피아노를 치면서/ *쳤으면서 노래를 불렀다.
 ㄴ. 동수가 집을 나서자/ *나섰자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ㄷ. *동수가 집을 막 나서자 (동수는) 학교에 갔다.
 ㄹ. 동수는 상냥하면서/ *상냥하자 차분하다.
 ㅁ. 동수야, 빵 먹으면서/ *먹자 공부해라./공부하자./공부할래?
 ㅂ. 동수는 뉴스를 보지 않으면서 텔레비전을 켜 놓았다.

*는 문법적으로 잘못된 것.

- ① ㄱ과 ㄴ을 보니, ‘-(으)면서’와 ‘-자’는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어미와 함께 쓰일 수 없군.
- ② ㄱ, ㄴ과 ㅁ을 보니, ‘-(으)면서’는 ‘-자’와 달리 다양한 문장 유형과 어울릴 수 없군.
- ③ ㄴ과 ㄷ을 보니, ‘-자’로 연결된 문장은 앞뒤 주어와 달라야 하는군.
- ④ ㄹ을 보니, ‘-(으)면서’는 ‘-자’와 달리 형용사와 어울릴 수 있는데, 이 경우 ‘동시’와 ‘나열’의 의미를 모두 나타내는군.
- ⑤ ㅂ을 보니, ‘-(으)면서’가 부정 표현과 어울리면 ‘동시’의 의미를 나타내기보다는 그 행위를 하지 않음을 강조하는군.

〈문장 표현〉

[2010학년도 수능]

44. <보기>를 참고할 때, 밑줄 친 말이 ㉠에 가장 가까운 것은?44)

〈 보 기 〉

청유문은 화자가 청자에게 같이 행동할 것을 요청하는 문장이다. 즉, 청유문은 청유형 어미 ‘-자’, ‘-(으)십시오’ 등이 붙는 서술어의 행동을 화자와 청자가 공동으로 하도록 유발하는 것이다. 그러나 간혹 청자만 행하기를 바라거나 ㉠화자만 행하려는 행동을 나타낼 때에도 쓰인다.

- ① (반장이 떠드는 친구들에게) 조용히 좀 하자.
- ② (엄마가 아이에게 약을 먹일 때) 자, 이리 와서 약 먹자.
- ③ (다툼 친구에게 화해를 청하면서) 오늘 영화나 같이 보러 가자.
- ④ (식사를 먼저 마친 사람들이 귀찮게 말을 걸 때) 밥 좀 먹읍시다.
- ⑤ (학급 회의에서 논의가 길어질 때) 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 토의합시다.

〈문장 표현〉

[2014학년도 9월 모의평가 A형]

45. <보기 1>의 ㉠, ㉡에 해당하는 가장 적절한 예를 <보기 2>에서 고른 것은?45)

〈 보 기 1 〉

대답을 요구하는 의문문에는 긍정이나 부정의 대답을 요구하는 것과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 있다.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 의문문은 구체적인 담화 상황에 따라 화자의 의도를 나타내는데, 서술을 나타내는 경우, 감탄을 나타내는 경우, ㉡명령을 나타내는 경우 등이 있다.

〈 보 기 2 〉

-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상황
 - 선생님 : ㉠독서 모둠 활동은 언제, 어디에서 하면 좋겠니?
 - 학생 : 3시부터 도서관에서 하면 좋겠어요.
- 늦잠 자는 아들을 깨우는 상황
 - 어머니 : 학교 늦겠어! ㉡그만 자고 얼른 일어나지 못하겠니?
 - 아들 : 엄마, 제발요. 조금만 더 잘래요.
- 두 학생이 함께 하교하는 상황
 - 학생 A : ㉢나랑 같이 문구점에 갈 수 있니?
 - 학생 B : 나도 연필 살 게 있었는데, 참 좋됐다.
- 동생이 억울한 일을 겪은 상황
 - 언니 : ㉣어쩔 이럴 수 있니?
 - 동생 : 아, 정말 억울해서 못 견디겠어.

- | | | | |
|-----|---|-----|---|
| ㉠ | ㉡ | ㉢ | ㉣ |
| ① ㄱ | ㄴ | ② ㄱ | ㄷ |
| ③ ㄴ | ㄹ | ④ ㄷ | ㄴ |
| ⑤ ㄹ | ㅂ | | |

〈문장 표현〉

[2014학년도 6월 모의평가 B형]

46. 다음의 탐구 과정에서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46)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생님께) “<u>아니오</u>, 모르겠습니다.” • (친구에게) “<u>아니</u>, 몰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는 주인공이 <u>아니오</u>.”
----	---	---

의문점 '아니오'의 '오'와 '아니오'의 '오'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문제 탐구	자료에서 '아니오'의 쓰임을 확인한다. ㉠ 뒷사실이 묻는 말에 부정으로 대항할 때 쓰이는데, '아니'에 '오'가 붙어서 된 말이다.	자료에서 '아니오'의 쓰임을 확인한다. ㉠ 보어층 취하는 서술어로 쓰이는데, '아니'에 '-오'가 붙어서 된 말이다.
	자료와 다음 사례를 통해 '오'의 문법적 특성을 알아본다. • 뭘 할까요? 뭘 할까? • 어서오, 빨리오. ㉠ 단어, 어절 어미 등에 붙어 높임의 뜻을 더해 주는 보조사인데, '오'가 빠지더라도 문장이 성립한다.	자료와 다음 사례를 통해 '-오'의 문법적 특성을 알아본다. • 얼마나 기쁘오? 얼마나 기쁘니? • 일단 멈추시오. ㉠

적용 “그러면 안 되□.”의 □ 안에는 '오'가 들어간다.

- ① 어간에 붙는다.
- ② 선어말 어미에 붙는다.
- ③ 평서문에는 쓰이지 않는다.
- ④ '-오'가 빠지면 문장이 성립하지 않는다.
- ⑤ 상대방을 보통으로 높이는 종결 어미이다.

〈문장 표현〉

[2011학년도 6월 모의평가]

47. <보기>의 [A]에 들어갈 대화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47)

< 보 기 >

화자는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뿐만 아니라 그 정보의 출처를 '직접 경험', '추측', '전해 들음'으로 구분하여 문장에 담아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비가 많이 왔구나.”에서는 비가 많이 왔다는 정보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지금 직접 봄'으로써 알게 되었다는 의미도 확인되는데, 그러한 의미는 어미 '-구나'를 통해 드러난다. 또한 “비가 많이 오더라.”에서는 비가 많이 왔다는 정보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그 당시에 직접 봄'으로써 알게 되었다는 의미도 확인되는데, 그러한 의미는 어미 '-더-'를 통해 드러난다.

다음 대화의 밑줄 친 부분도 정보의 출처를 드러내는 기능을 가진 어미들이다.

[A]

- ① 딸 : 오늘 날씨 어떻대요?
아버지 : 눈이 아주 많이 온대.
- ② 여학생 : 같이 점심 먹으러 가자.
남학생 : 나는 조금 있다가 먹을래.
- ③ 학생 1 : 선생님께서 출석을 점검하러서.
학생 2 : 어찌지? 철수가 아직도 안 왔네.
- ④ 김 대리 : 김 과장님 공항에 도착하셨을까?
이 대리 : 한 시간쯤 지났으니까 도착하셨을걸.
- ⑤ 아들 : 오늘은 바람이 불어서 그나마 시원하네요.
어머니 : 집에 있어서 몰랐지만, 어제는 무척 더웠겠어.

〈문장 표현〉

[2010학년도 9월 모의평가]

48. <보기>의 설명을 참고할 때, 인용 발화로는 보기 어려운 것은?48)

< 보 기 >

어떤 사람의 말을 남에게 전달하는 말을 인용 발화라 한다. 책, 신문, 방송과 같은 매개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알게 된 일을 전달하는 말도 인용 발화로 본다. 인용 발화는 대개 특수한 형식을 취하고 있어 일반 발화와 구분되어 쓰이나, 간혹 일반 발화도 인용 발화의 형식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

- ① 지금 저는 눈물이 날 정도로 기쁘답니다.
- ② 어제는 열차가 30분이나 연착했답니다.
- ③ 밖에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답니다.
- ④ 어렸을 적에 저는 개구쟁이였답니다.
- ⑤ 그 나라 풍습은 정말 흥미롭답니다.

〈문장 표현〉

[2009학년도 9월 모의평가]

49. <보기>를 바탕으로 어미의 선택 기준에 대해 탐구한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49)

< 보 기 >

ㄱ. 동수는 책을 빌리(러/려고/고자) 도서관에 갔다.
 ㄴ. 신간 도서를 빌리(러/*려고/*고자) 도서관에 가자.
 ㄷ. 동수는 책을 빌리(*러/려고/고자) 도서관에 예약을 했다.
 ㄹ. 영화는 그를 안 만나(*러/려고/고자) 집으로 돌아갔다.
 ㅁ. 지금 공원에 가서 그 사람을 만나(*러/려고/*고자)?

*는 문법적으로 잘못된 것.

- ① ㄱ과 ㄴ을 보니 해당 어미 뒤가 어떤 종류의 문장인지를 고려해야 해.
- ② ㄱ과 ㄷ을 보니 해당 어미 뒤에 오는 서술어에 '이동'의 뜻이 있는지를 고려해야 해.
- ③ ㄱ과 ㄹ을 보니 해당 어미 앞이 부정문인지를 고려해야 해.
- ④ ㄱ과 ㅁ을 보니 해당 어미가 종결 어미로도 쓰일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해.
- ⑤ ㄷ과 ㄹ을 보니 해당 어미 앞뒤 절의 주어가 같은지를 고려해야 해.

<문장 표현>

[2008학년도 9월 모의평가]

50. <보기>의 문장에서 밑줄 친 부분은 종결 어미이다. <보기>를 바탕으로 종결 어미에 대해 탐구한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50)

< 보 기 >

- 얘기를 듣습니까? / 얘기를 듣소?
- 의자에 앉아라. / 빨리 밥을 먹어라.
- 날씨가 덥다. / 날씨가 덥지. / 날씨가 덥네.
- 비가 그치겠다. / 비가 그치겠나? / 비가 그치겠구나!
- 철수가 똑똑하다고 생각한다. / 누가 가느냐가 문제다.

- ① 문장의 시제를 표시하는군.
- ② 뒤에 조사가 연결될 수도 있군.
- ③ 진술, 의문, 감탄 따위를 나타내는군.
- ④ 듣는 이에 대한 높임의 태도를 나타내는군.
- ⑤ 음운 환경에 따라 모양이 달라지기도 하는군.

<문장 표현>

[2014년 7월 교육청 B형]

51. <보기>의 ㉠~㉣에 나타난 심리적 태도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51)

< 보 기 >

○ 어미를 사용하여 추정, 감탄, 단정, 확인, 의지, 전달 등의 화자의 심리적 태도를 드러낼 수 있다.

영희 : 너 오늘 산에 간다고 했잖아. 오늘 간 거 ㉠맞지?
 철수 : 아니, 못 갔어. 내일은 꼭 가고 ㉡말겠어.
 영희 : 그럼 너희 형은?
 철수 : 아마 ㉢갔을걸. 아까 엄마 말씀이 ㉣갔다더라고.
 영희 : 우와. 너희 형은 정말로 ㉤대단하구나.

- ① ㉠ : 확인 ② ㉡ : 의지 ③ ㉢ : 추정
- ④ ㉣ : 단정 ⑤ ㉤ : 감탄

<문장 표현>

[2014년 4월 교육청 A형]

52.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52)

< 보 기 >

서술어로 사용된 용언에 접미사나 선어말 어미를 결합시키면 사동이나 피동, 높임, 시간 표현, 주체의 심리적 태도 등 다양한 문법 범주를 실현할 수 있다.

- 할머니께서 진지를 ㉠드신다.
- 아버지께서 연을 ㉡날리시고 있다.
- 그는 운동장을 열심히 ㉢뛰었다.
- 나는 지금 영화관에 ㉣가겠다.
- 도둑이 경찰에게 ㉤쫓기고 있다.

- ① ㉠의 '-시-'와 ㉡의 '-시-'는 각각의 행위 주체를 높이기 위해 사용된 선어말 어미이다.
- ② ㉠의 '-ㄴ-'과 ㉡의 '-었-'은 현재나 과거 등의 시제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선어말 어미이다.
- ③ ㉢의 '-리-'는 행위 주체인 '아버지'가 다른 대상으로 하여금 어떤 동작을 하게끔 만드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접미사이다.
- ④ ㉣의 '-겠-'은 행위 주체인 '나'의 의지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선어말 어미이다.
- ⑤ ㉤의 '-기-'는 행위 주체인 '경찰'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른 대상에 의해 동작을 당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접미사이다.

<문장 표현>

[2013년 7월 교육청 A형/B형]

53.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의 사례에 해당하는 것은?53)

< 보 기 >

선어말어미 '-겠-'은 일반적으로 미래 시제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며, 미래의 일에 대한 추측이나 가능성, 말하는 이의 의지 등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러나 특정 담화 상황에서는 말하는 이의 완곡한 태도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 ① 제가 잠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 ② 동생은 영화를 보러 가겠다고 한다.
- ③ 지금 떠나면 저녁에야 도착하겠구나.
- ④ 다음 달 정도면 날씨가 시원해지겠지?
- ⑤ 이 정도의 고통은 내 힘으로 이겨내겠다.

<문장 표현>

[2012년 7월 교육청]

54. <보기>의 '선어말어미'에 대해 탐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54)

< 보 기 >

국어의 '선어말어미'는 용언의 어간과 어말어미 사이에 놓이는 어미로 시제와 높임 등의 의미를 부가하는 기능을 한다.

ㄱ. 나는 지금 소설을 읽는다. / 나는 어제 소설을 읽었다.
 ㄴ. 철수는 내일 소설을 읽겠구나.
 ㄷ. 나는 올해 안에 반드시 그 소설을 읽겠다.
 ㄹ. 어제 보니, 철수는 소설을 읽더라.
 ㅁ. 선생님께서는 소설을 읽으셨다.

- ① ㄱ의 '-는-'은 현재임을, '-었-'은 과거임을 나타내는군.
- ② ㄴ과 ㄷ의 '-겠-'은 미래임을 나타내는데, ㄴ에서는 추측, ㄷ에서는 의지의 의미를 지니는군.
- ③ ㄹ의 '-더-'는 과거의 사실을 회상함을 나타내는군.
- ④ ㅁ을 보니, '-(으)시-'는 문장의 주체를 높이는군.
- ⑤ ㅁ을 보니,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가 높임을 나타내는 선어말어미보다 앞에 나오는군.

<문장 표현>

[2012년 4월 교육청]

55. <보기>를 바탕으로 연결어미 ‘-(으)니까’와 ‘-아서/-어서’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55)

< 보 기 >

ㄱ. 비가 와서 / *왔어서 길이 젖었다.
 ㄴ. 비가 오니까 / 왔으니까 길이 젖었을 거야.
 ㄷ. 비가 와서 우산을 샀니?
 ㄹ. 비가 오니까 / *와서 제가 우산을 살까요?
 ㅁ. 비가 오니까 / *와서 우산을 가져가라. / 가져가자.

*는 문법적으로 잘못된 것.

- ① ㄱ과 ㄴ을 보니, ‘-아서/-어서’는 ‘-(으)니까’와 달리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어미와 함께 쓰일 수 없군.
- ② ㄱ과 ㄷ을 보니, 이유를 나타낼 때에는 ‘-아서/-어서’를 사용하여 문장을 연결할 수 있군.
- ③ ㄷ과 ㄹ을 보니, 의문문 중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경우 ‘-아서/-어서’를 사용할 수 없군.
- ④ ㄹ과 ㅁ을 보니, ‘-(으)니까’로 연결된 문장은 앞뒤의 주어가 일치해야 하는군.
- ⑤ ㅁ을 보니, ‘-아서/-어서’는 ‘-(으)니까’와 달리 명령형과 청유형 문장에서는 사용될 수 없군.

<문장 표현>

[2011년 7월 교육청]

56. <보기 1>을 바탕으로 <보기 2>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56)

< 보 기 1 >

<관형사형 어미>
 한 문장이 또 하나의 문장을 안고 있을 때, 관형사형 어미는 안겨 있는 문장의 서술어에 붙어 그 문장이 관형어의 역할을 하도록 만든다. 관형사형 어미는 용언의 어간과 결합하여 과거, 현재, 미래 시제를 나타내거나 추측, 의지 등의 의미를 포함하기도 한다. 관형사형 어미에는 ‘-은’, ‘-는’, ‘-을’ 등이 있다.

< 보 기 2 >

ㄱ. 내가 지금 읽는 책은 춘향전이다.
 ㄴ. 이 사진 어제 찍은 거니?
 ㄷ. 머리가 짧은 소녀가 수미야.
 ㄹ. 학교에 남아 있을 사람은 학습실로 가렴.

- ① ㄱ의 ‘-는’은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나타내는구나.
- ② ㄴ과 ㄷ을 보니 ‘-은’은 과거 시제뿐 아니라 현재 상태도 나타내는구나.
- ③ ㄱ~ㄷ을 보니 ‘-는’, ‘-은’은 동사 어간에는 모두 결합할 수 있지만, 형용사의 어간에는 ‘-는’이 결합하는 데 제약이 있구나.
- ④ ㄹ의 ‘-을’은 미래 시제를 나타내면서 동시에 추측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구나.
- ⑤ ㄹ의 ‘-을’은 ‘학교에 남아 있다’가 ‘사람’을 꾸미는 관형어의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구나.

<문장 표현>

[2011년 3월 교육청]

57. <보기>를 바탕으로 서술어에 나타나는 ‘-았-, -았-, -였-’에 대해 탐구 학습을 해 보았다. 학습의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57)

< 보 기 >

ㄱ. 어제는 내내 공부를 하였다.
 ㄴ. 나사를 세계 조였다.
 ㄷ. 어머니가 아이에게 우유를 먹였다.
 ㄹ. 나는 도서관에서 책을 보았고, 철수는 휴게실에서 음악을 들었다.
 ㅁ. 그는 학생이었고, 뒤에 오는 부부는 그의 부모였다.

- ① ㄱ~ㅁ의 서술어에 나타난 ‘-았-, -았-, -였-’ 속에는 모두 과거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 ② ㄴ에서는 서술어의 기본형이 ‘조이다’이고, ㄷ에서는 ‘먹이다’이므로 두 경우 모두 ‘-었-’이 포함되어 있다.
- ③ ㄱ과 ㄷ의 서술어에 나타난 ‘-였-’의 형태소를 분석해 보면,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형태소가 다름을 알 수 있다.
- ④ ㄹ로 보아, 어간 뒤에 ‘-았-’이 아니라 ‘-였-’이 쓰일 수 있는 경우는 어간의 마지막 음절에 양성 모음이 쓰이지 않았을 때이다.
- ⑤ ㅁ으로 보아 ‘-이였-’의 준말인 ‘-였-’은 ‘-이였-’을 쓸 때와는 의미상의 차이를 보인다.

<문장 표현>

[2010년 4월 교육청]

58. <보기1>을 바탕으로 <보기2>에 대해 탐구한 내용 중, 바르지 않은 것은?58)

< 보 기 1 >

- 한 주체가 하는 두 가지 동작을 나타내는 경우
 - -고/고서 : 둘 이상의 동작을 할 때, 그 동작의 ‘나열’이나 ‘선후’를 나타냄.
 - -며/면서 : 둘 이상의 동작이 동시에 일어남을 나타냄.

< 보 기 2 >

ㄱ. 잔칫집에 가서 고기도 먹고 떡도 먹었다.
 ㄴ. 친구 집에 가서 못 다한 이야기를 실컷 하고서 왔다.
 ㄷ. 너무 아파서 줄곧 울며 / 울면서 왔다.
 ㄹ. 아이들은 함께 놀고, 공부도 함께 하며, 잠도 함께 잔다.

- ① ㄱ의 ‘-고’는 두 동작을 나열할 경우에 사용하는군.
- ② ㄴ의 ‘-고서’에는 동작의 선후가 나타나는데.
- ③ ㄱ, ㄴ의 ‘-고/고서’는 두 동작의 동시성을 나타내지 못하는군.
- ④ ㄷ은 ‘-며’를 쓸 자리에 ‘-면서’를 쓰더라도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군.
- ⑤ ㄹ의 ‘-고’와 ‘-며’는 셋 이상의 동작을 나열하는 경우 모두 동시성을 나타내고 있군.

<문장 표현>

[2009년 10월 교육청]

59. <보기 1>을 바탕으로 <보기 2>에 대해 탐구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3점]59)

< 보기 1 >

● '-ㅁ/-음'에 대하여

□ 명사형 어미 : 동사의 어간 뒤에 붙어서 동사를 명사형이 되게 하는 역할을 한다. 동사의 명사형은 서술성이 있어 주어 서술하며 품사가 변하지 않는다. 앞에 부사적 표현이 쓰일 수 있다.

□ 접미사 : 동사의 어간 뒤에 붙어서 동사를 명사로 파생시킨다. 파생된 명사는 서술성이 없으므로 앞에 부사적 표현이 쓰일 수 없고, 관형어가 올 수 있다.

< 보기 2 >

ㄱ. 그곳에 모인 사람이 큰 웃음을 웃었다.
 ㄴ. 영희는 잠¹을 잠²으로써 피로를 풀었다.
 ㄷ.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자고 나니 피로가 풀렸다.
 ㄹ. 크게 웃음으로써 교실의 분위기를 밝게 바꾸었다.

- ① ㄱ의 '웃음'은 '큰'의 수식을 받으므로 '웃음'의 '-음'은 접미사이다.
- ② ㄴ의 '잠¹'의 '-ㅁ'은 명사형 어미이고, '잠²'의 '-ㅁ'은 접미사이다.
- ③ ㄷ의 '잠'은 '자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이다.
- ④ ㄷ의 '잠'은 서술성이 없지만 ㄹ의 '웃음'은 서술성이 있다.
- ⑤ ㄹ의 '웃음'은 '크게'의 수식을 받으므로 '웃음'의 '-음'은 명사형 어미이다.

<문장 표현>

[2005년 7월 교육청]

60. <보기>를 이용하여 국어의 문장 표현에 대해 발표 준비를 했다.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60)

< 보기 >

ㄱ. 철수는 대전에 갔다.
 ㄴ. 철수는 대전에 안 갔다.
 ㄷ. 철수는 대전에 가지 않았다.
 ㄹ. 철수는 대전에 갔지 않아?
 ㅁ. 철수는 대전에 못 갔다.
 ㅂ. 철수는 지금 공부한다.

- ① ㄴ은 ㄱ의 부정으로, 서술어 앞에 '안'을 넣어 만든 짧은 부정문이다.
- ② ㄷ은 ㄱ의 부정으로, 용언의 어간에 어미 '-지'를 붙이고 뒤에 '아니 하다(않다)'를 써서 만든 긴 부정문이다.
- ③ ㄹ은 부정문이 아니라, ㄱ에 드러난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 의문문이다.
- ④ ㅁ은 ㄴ과 달리 행동 주체의 사정이나 외부의 요인에 의해 그 행위가 일어나지 못함을 드러내는 짧은 부정문이다.
- ⑤ ㅂ의 '공부하다'와 같이 '체언+-하다'로 결합된 경우의 짧은 부정문은 '안 체언+-하다'의 형태가 된다.

<부정 표현>

[2014년 10월 교육청 B형]

61. <보기>의 ㉠~㉣에 들어갈 문장으로 적절한 것은? [3점]61)

< 보기 >

부정문에는 주체의 의지에 의한 행동의 부정을 나타내는 '안' 부정문과 주체의 의지가 아닌, 그의 능력이나 외부의 원인으로 그 행위가 일어나지 못함을 나타내는 '못' 부정문이 있다.
 '동생이 잔다.'라는 긍정문을 아래의 과정을 통해 부정문으로 바꾸어 보자.

주체의 의지가 있습니까?	⇨ 아니요	㉠
↓예		
긴 부정문입니까?	⇨ 아니요	㉡
↓예		
㉢		

	㉠	㉡	㉢
①	동생이 자지 못한다.	동생이 못 잔다.	동생이 안 잔다.
②	동생이 못 잔다.	동생이 안 잔다.	동생이 자지 않는다.
③	동생이 안 잔다.	동생이 자지 않는다.	동생이 못 잔다.
④	동생이 자지 못한다.	동생이 못 잔다.	동생이 자지 않는다.
⑤	동생이 못 잔다.	동생이 안 잔다.	동생이 자지 못한다.

<부정 표현>

[2014년 7월 교육청 A형]

62. <보기>의 예문을 통해 문장의 의미 관계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62)

< 보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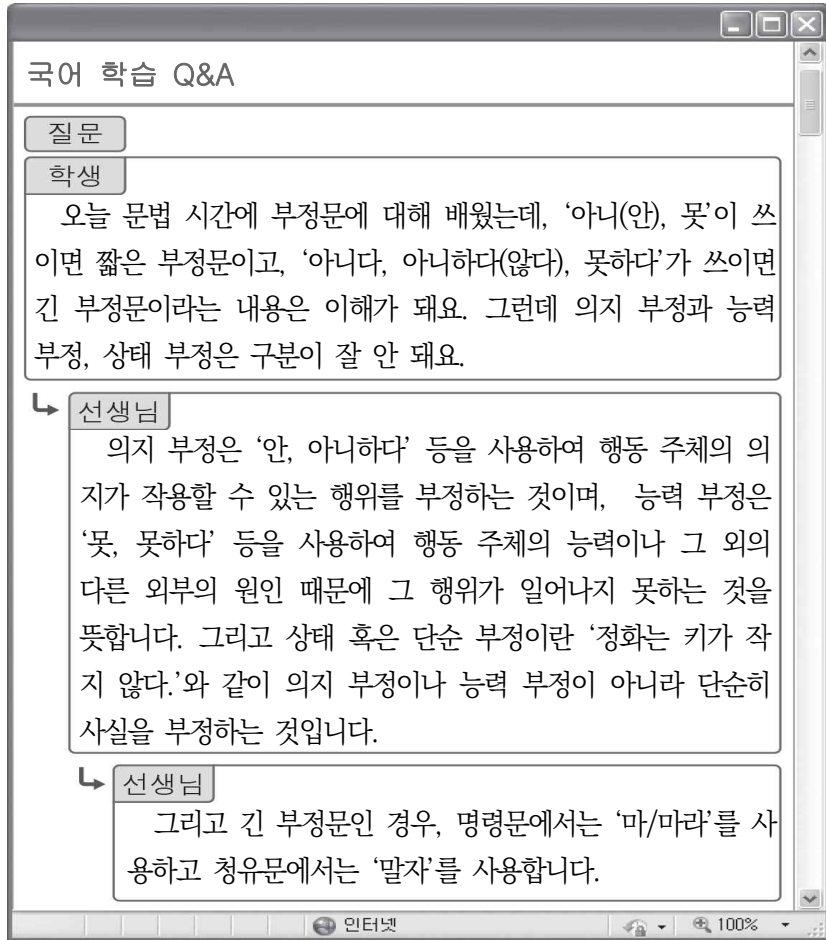
ㄱ. 나는 그를 안다.
 ㄴ. 너는 고민할 필요 있다.
 ㄷ. 방 안에 있다.
 ㄹ. 늑대가 양을 물었다.
 ㅁ. 그는 옳은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나선다.

- ① ㄱ : 반의어를 사용한 반의 관계 문장으로 '나는 그를 모른다'를 쓴다.
- ② ㄴ : 부정 표현을 사용한 반의 관계 문장으로 '너는 고민할 필요 있지 않다'를 쓴다.
- ③ ㄷ : 반의 관계에 있는 문장으로 만들면, '방 안에 없다' 외에 '방 밖에 있다'도 가능하다.
- ④ ㄹ : 피동 표현을 통해 유의 관계에 있는 문장을 만들면, '양이 늑대에게 물렸다'가 된다.
- ⑤ ㅁ : 관용적 표현을 통해 유의 관계에 있는 문장을 만들면, '그는 옳은 일이라면 발 벗고 나선다'가 된다.

<부정 표현>

[2014년 4월 교육청 A형]

63. 다음은 학교 홈페이지의 '질의-응답 게시판'의 일부이다. 이를 바탕으로 <보기>의 과제를 수행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63)



[문법 과제]
 '가다, 던지다, 먹다, 어둡다, 예쁘다'를 활용하여 다양한 부정문을 만들어 봅시다.

- ① '가다'를 사용하여 긴 부정문의 명령문을 만들면 '위험한 곳에는 가지 마라.'가 됩니다.
- ② '던지다'를 사용하여 능력 부정의 긴 부정문을 만들면 '민지는 공을 던지지 못했다.'가 됩니다.
- ③ '먹다'를 사용하여 능력 부정의 짧은 부정문을 만들면 '나는 밥을 못 먹었다.'가 됩니다.
- ④ '어둡다'를 사용하여 상태 부정의 긴 부정문을 만들면 '하늘이 어둡지 않다.'가 됩니다.
- ⑤ '예쁘다'를 사용하여 의지 부정의 짧은 부정문을 만들면 '꽃이 안 예쁘다.'가 됩니다.

<시제 표현>

[2015학년도 수능 A형]

64. 밑줄 친 부분이 <보기>의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64)

< 보 기 >

선어말 어미 '-았-/-었-'은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닌다.

(가) 오늘 아침에 누나는 밥을 안 먹었어요.
 (나) 들판에 안개꽃이 아름답게 피었습니다.
 (다) 이렇게 비가 안 오니 농사는 다 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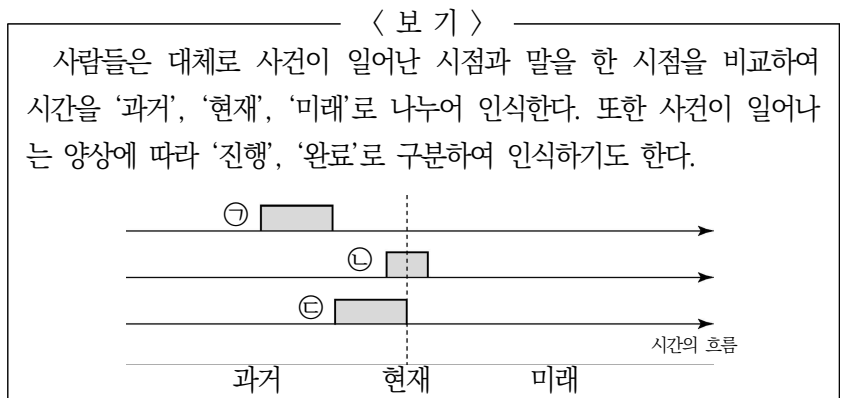
(가)에서와 같이 ㉠사건이나 상태가 과거의 것임을 나타내기도 하고, (나)에서와 같이 ㉡과거에 일어난 사건의 결과 상태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기도 한다. (가)의 경우와 달리 (나)의 경우에는 '-았-/-었-'을 보조 용언 구성 '-아/-어 있-'이나 '-고 있-'으로 교체하여도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다. 또한 (다)에서와 같이 ㉢미래의 일을 확정적인 사실로 받아들임을 나타내기도 한다.

- ① ㉠ A : 어제 뭐 했니?
 B :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았어.
- ② ㉠ A : 너 아까 집에 없었어.
 B : 할머니 생신 선물 사러 갔어.
- ③ ㉠ A : 감기 걸렸었어?
 B : 응, 그래서인지 아직도 목이 잡겼어.
- ④ ㉠ A : 소풍날 날씨는 괜찮았어?
 B : 아주 나빳어.
- ⑤ ㉠ A : 너 오늘도 바빠?
 B : 응, 과제 준비하려면 오늘도 잠은 다 잠어.

<시제 표현>

[2005학년도 6월 모의평가]

65. <보기>의 ㉠~㉣를 ㉠~㉣과 바르게 연결한 것은? [1점] (65)



[시간 표현의 예]

- 나는 밥을 ㉠먹고 있다.
- 어제 나는 박물관에 ㉡갔었다.
- 우리는 한글을 오랫동안 ㉢사용해 왔다.

- ① ㉠-㉠, ㉡-㉡, ㉢-㉢ ② ㉠-㉠, ㉡-㉢, ㉢-㉡
- ③ ㉠-㉡, ㉡-㉠, ㉢-㉢ ④ ㉠-㉡, ㉡-㉢, ㉢-㉠
- ⑤ ㉠-㉢, ㉡-㉠, ㉢-㉡

<시제 표현>

[2014년 10월 교육청 A형]

66. <보기>는 과거 시제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조사한 것이다. ㄱ~ㅁ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66)

— < 보 기 > —

ㄱ. 과거 시제란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 있는 시제로, 주로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았/었-'을 통해 실현된다.

ㄴ. '-았/었/였-'은 발화시보다 전에 발생하여 현재와는 단절된 사건을 표현하는 데 쓰일 수 있다.

ㄷ. '-더-'는 과거 어느 때의 일이나 경험을 회상할 때에 사용하기도 한다.

ㄹ. 동사 어간에 붙는 관형사형 어미 '-(으)ㄴ-'은 과거 시제를 표현하는 데 사용하기도 한다.

ㅁ. 관형사형 어미 '-던-'은 과거 시제를 표현하는 데 사용하기도 한다.

- ① ㄱ : 너는 이제 집에 돌아오면 혼났다.
- ② ㄴ : 나는 예전에 그 집에 살았었다.
- ③ ㄷ : 지난여름에는 정말 덥더라.
- ④ ㄹ : 방학 동안 읽은 책이 제법 여러 권이다.
- ⑤ ㅁ : 여름에 푸르던 산이 붉게 물들었다.

<시제 표현>

[2013년 10월 교육청 A형]

67.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67)

시간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시제와 동작상이 있다. 시제는 화자가 말하는 시점인 발화시와 동작이나 사건이 일어나는 시점인 사건시의 관계에 따라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로 나뉜다. 동작상은 발화시를 기준으로 동작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것인데, 동작이 진행되고 있음을 표현하는 진행상과 동작이 이미 완결되었음을 표현하는 완료상이 있다.

어머니 : 방 정리를 ㉠하고 있구나.
아들 : 네. 필요 없는 물건은 다 ㉡내놓았어요.
어머니 : 잘 했구나. 그런데 얼마 전에 ㉢산 책은 어디 있지?
아들 : 아, 그 책은 이미 다 읽어서 동생에게 ㉣줘 버렸어요.
어머니 : 그래 잘 했다. 아참, 오늘 네 친구가 오기로 했지.
아들 : 네. 조금 있다 저하고 같이 ㉤공부할 친구가 오기로 했어요.
어머니 : 그래. 깨끗한 방에서 친구랑 재미있게 놀면 되겠구나.

- ① ㉠ : '-고 있구나'는 동작이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 ② ㉡ : '-았-'은 사건시가 발화시에 앞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 ③ ㉢ : '-ㄴ-'은 발화시가 사건시에 앞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 ④ ㉣ : '-어 버렸어요'는 동작이 이미 완결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 ⑤ ㉤ : '-ㄹ-'은 발화시가 사건시에 앞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높임 표현>

[2014학년도 수능 A형/B형]

68. <보기>의 ㉠, ㉡이 모두 사용된 문장은?68)

— < 보 기 > —

어미나 종결 어미, 조사 등을 통해 높임을 표현하지만, **어휘를 통해 높임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높임 표현에 쓰이는 어휘들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주체를 높이는 용언 (예계시다)㉠
- 객체를 높이는 용언 (예드리다)
- 높여야 할 인물을 직접 높이는 명사 (예선생님)
- 높여야 할 인물과 관련된 것을 높이는 명사 (예진지).....㉡

- ① 나는 아직 그분의 성함을 기억하고 있다.
- ② 누나는 여쭙 것이 있다며 할머니 댁에 갔다.
- ③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께서는 홍시를 잘 잡수신다.
- ④ 우리는 부모님을 모시고 바닷가로 여행을 떠났다.
- ⑤ 어머니께서는 몹시 피곤하셨는지 거실에서 주무신다.

<높임 표현>

[2015학년도 9월 모의평가 B형]

69.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69)

— < 보 기 > —

영희 : 경준아, 선생님께서 다음 국어 시간에 있을 모둠 과제 발표는 네가 주도해서 ㉠준비하시라고 하셔.
경준 : 시인 소개 모둠 과제 말이지?
영희 : 응.
경준 : 그런데 어떤 시인을 주제로 발표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도 말씀 ㉡있으셨니?
영희 : 아니. 그건 시간이 날 때 네가 직접 선생님께 ㉢물어서 알아봐.
경준 : 아무래도 그래야겠어.
영희 : 그런데 선생님께서 저번 수업 시간에 김소월의 시가 ㉣자기의 애송시라고 ㉤말했잖아. 김소월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인이기도 하니까 김소월의 시 세계를 주제로 하여 발표해 보는 건 어때?

- ① ㉠ : 주체가 '경준'이므로 '준비하라고'로 바꿔 말해야 한다.
- ② ㉡ : 주어가 '말씀'이므로 '있었니'로 바꿔 말해야 한다.
- ③ ㉢ : 윗사람인 '선생님'께 묻는 것이므로 '여쭙서'로 바꿔 말해야 한다.
- ④ ㉣ : '선생님'을 높이는 것이므로 '당신'으로 바꿔 말해야 한다.
- ⑤ ㉤ : 주체가 '선생님'이므로 '말씀하셨잖아'로 바꿔 말해야 한다.

〈높임 표현〉

[2010년 7월 교육청]

74. <보기>를 바탕으로 주체 높임법을 탐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74)

< 보 기 >

ㄱ. 선생님께서는 학교에 계신다.
 ㄱ'. *선생님은 지금 수업이 계시다.
 ㄴ. 작은아버지는 살림이 넉넉하시다.
 ㄴ'. 작은아버지는 살림이 넉넉하다.
 ㄷ. 작은아버지께서는 지금 식사를 하신다.

*는 비문법적인 문장 표시임.

- ① ㄱ과 ㄱ'를 보면 '계시다'를 사용한 어휘적 높임은 주체를 직접 높일 때에만 실현되는군.
- ② ㄴ의 '넉넉하시다'를 통해 주체와 관련 있는 '살림'을 높임으로써 '작은아버지'를 존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군.
- ③ ㄴ'는 주체인 '작은아버지'에 대한 높임의 태도가 나타나지 않았군.
- ④ ㄴ의 '넉넉하시다'와 ㄷ의 '하신다'가 직접적으로 높여주는 대상이 동일하군.
- ⑤ ㄴ과 ㄷ을 보면 경우에 따라 '께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대상에 대한 높임이 실현되는군.

〈높임 표현〉

[2008년 3월 교육청]

75. 화자와 주체, 화자와 청자의 상하 관계에 따른 높임 표현의 사례를 <보기>와 같이 분석하였다. 바르게 분석한 것을 모두 골라 묶은 것은? [1점]75)

< 보 기 >

우리말에서는 문장의 주어(주체)가 화자인 '나'보다 상위자이면 주체 높임을 나타내는 선어말어미 '-시-'를 사용하고, 청자가 화자인 '나'보다 상위자이면 상대 높임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습니다' 등을 사용한다.

문장 표현의 사례	⇨	화자와 주체의 관계	화자와 청자의 관계	
아버지께서 운동을 하셨습니다.	⇒	화자 < 주체	화자 < 청자	...a
아버지께서 운동을 하셨다.	⇒	화자 > 주체	화자 ≥ 청자	...b
동생이 운동을 했습니다.	⇒	화자 > 주체	화자 < 청자	...c
동생이 운동을 했다.	⇒	화자 < 주체	화자 ≥ 청자	...d

▪ '<', '>', '≥' : 화자와 주체, 화자와 청자의 상하 관계 표시.
 (예) 스승 > 제자

- ① a, c
- ② a, d
- ③ b, c
- ④ b, d
- ⑤ c, d

〈완곡한 표현〉

[2012학년도 9월 모의평가]

76. <보기>의 ㉠에 해당하는 단어가 쓰인 것은?76)

< 보 기 >

청자에게 명령·요청·부탁을 하거나 동의를 구할 때, 말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특정한 문장 형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창문을 열어 주십시오.”라는 명령문 대신 “창문을 열어 주시겠습니까?”라는 의문문을 사용함으로써 말을 부드럽게 표현하는 효과를 얻는다. 이러한 효과는 ㉠특정한 의미를 지닌 단어를 사용하여 얻을 때도 있다.

- ① 가는 길에 이 편지 줄 부쳐 주세요.
- ②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 ③ 이 동네에는 꽃집이 옆 없을 것 같지?
- ④ 이게 몸에 좋다니 한입에 줄 들이켜라.
- ⑤ 이번 시험이 지난번보다 더 쉽지 않았나?

〈능피주사 표현〉

[2015학년도 6월 모의평가 A형]

77. <보기>의 ㉠, ㉡에 해당하는 것은? [3점]77)

< 보 기 >

우리말의 용언 중에는 피동사와 사동사의 형태가 동일한 것이 있다. 예를 들어, '보다'는 사동사와 피동사가 모두 '보이다'로 그형태가 같다. 이때 ㉠사동사로 쓰인 경우와 ㉡피동사로 쓰인 경우는 다음과 같이 문장에서의 쓰임을 통해 구별된다.

□ 동생이 새시계를 내게 보였다. (사동사로 쓰인 경우)
 □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해가 보였다. (피동사로 쓰인 경우)

- ① ㉠ : 운동화 끈이 풀렸다.
 ㉡ : 아빠의 칭찬에 피로가 금세 풀렸다.
- ② ㉠ : 우는 아이가 엄마 등에 업혔다.
 ㉡ : 누나가 이모에게 아기를 업혔다.
- ③ ㉠ : 나는 젖은 옷을 햇볕에 말렸다.
 ㉡ : 동생은 집에 가겠다는 친구를 말렸다.
- ④ ㉠ : 새들이 따뜻한 곳에서 몸을 녹였다.
 ㉡ : 햇살이 고드름을 천천히 녹였다.
- ⑤ ㉠ : 형이 친구에게 꽃다발을 안겼다.
 ㉡ : 아기 곰이 어미 품에 포근히 안겼다.

〈능피주사표현〉

[2014학년도 6월 모의평가 A형]

78. <보기>를 참고하여, 학습 자료를 분석한 결과로 옳은 것은? [3점]78)

〈 보기 〉
일반적으로 사동문은 주어가 다른 대상을 동작하게 하거나 특정한 상태에 이르도록 하는 문장을 가리킨다. 사동문은 어근에 접미사가 결합한 사동사나 어간에 '-게 하다'가 결합한 구성에 의해 만들어진다.

학습 자료		
A: 주동문	B: 사동사에 의한 사동문	C: '-게 하다'에 의한 사동문
㉠ 동생이 숨는다.	누나가 동생을 숨긴다.	누나가 동생을 숨게 한다.
㉡ 동생이 밥을 먹는다.	누나가 동생에게 밥을 먹인다.	누나가 동생에게 밥을 먹게 한다.
㉢ 실내 온도가 낮다.	누나가 실내 온도를 낮춘다.	누나가 실내 온도를 낮게 한다.
㉣ 동생이 공을 찬다.	해당 사례 없음	누나가 동생에게 공을 차게 한다.

- ① ㉠, ㉡을 보니, A의 주어는 C에서 동일한 문장 성분으로 나타나는군.
- ② ㉠, ㉢을 보니, A가 B로 바뀌면 서술어의 자릿수가 늘어나는군.
- ③ ㉡, ㉣을 보니, A가 B로 바뀌면 겹문장이 되는군.
- ④ ㉡, ㉣을 보니, A의 서술어가 타동사이면 대응하는 사동사가 없군.
- ⑤ ㉢, ㉣을 보니, A의 서술어가 형용사이면 사동문을 만들지 못하는군.

〈능피주사표현〉

[2011학년도 6월 모의평가]

79. <보기>를 참고하여 작성한 ㉠~㉣의 예문으로 알맞은 것은?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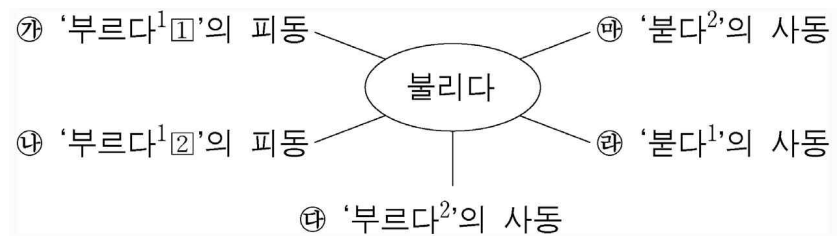
〈 보기 〉

부르다 ㉠ ㉡ ①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의 주의를 끌거나 오라고 하다.
 ② 무엇이라고 가리켜 말하거나 이름을 붙이다.

부르다 ㉢ ㉣ ㉠ 먹은 것이 많아 속이 팍 찬 느낌이 들다.

붙다 ㉡ ㉢ 물에 젖어서 부피가 커지다.

붙다 ㉣ ㉡ 분량이나 수요가 많아지다.



- ① ㉠ :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천재라고 불렀다.
- ② ㉡ : 반장이 가장 먼저 불려 갔다.
- ③ ㉢ : 주먹밥 하나로 아이들의 주린 배를 불릴 수는 없었다.
- ④ ㉣ : 그는 요즘 재산을 불리는 재미에 빠져 있다.
- ⑤ ㉣ : 메주를 썬다면 콩을 물에 불려야 한다.

〈능피주사 표현〉

[2014년 3월 교육청 A형]

80. <보기>의 설명을 바탕으로, 피동 표현을 만들어 왔다. 잘못된 것은? [3점]80)

〈 보기 〉
피동 표현은 피동 접미사 '-이-, -히-, -리-, -기-'에 의한 피동과 '-되다', '-게 되다', '-어지다'에 의한 피동이 있다. 이 외에 피동의 의미를 갖는 단어를 이용하여 피동 표현을 만들 수 있다.

- ① '아이가 밥을 먹었다.'를 피동 접미사 '-이-'를 사용하여 '아이에게 밥을 먹였다.'로 바꾸었다.
- ② '아이들이 꼬마를 놀렸다.'를 '당하다'를 사용하여 '꼬마가 아이들에게 놀림을 당했다.'로 바꾸었다.
- ③ '사냥꾼이 토끼를 잡았다.'를 피동 접미사 '-히-'를 사용하여 '토끼가 사냥꾼에게 잡혔다.'로 바꾸었다.
- ④ '사람들이 생태계를 파괴하였다.'를 '-되다'를 사용하여 '생태계가 사람들에게 의해 파괴됐다.'로 바꾸었다.
- ⑤ '박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들었다.'를 '-어지다'를 사용하여 '이 영화는 박 감독에 의해 만들어졌다.'로 바꾸었다.

〈능피주사 표현〉

[2011년 7월 교육청]

81. <보기>의 '걸다'를 피동으로 바꾼 예문으로 알맞은 것은?81)

〈 보기 〉

걸다 [동사]

- ① 벽이나 못 따위에 어떤 물체를 떨어지지 않도록 매달아 올려놓다.
- ② 자물쇠, 문고리를 채우거나 빗장을 지르다.
- ③ 기계 따위가 작동하도록 준비하여 놓다.
- ④ 어느 단체에 속한다고 이름을 내세우다.
- ⑤ 어떤 상태에 빠지도록 하다.

- ① '걸다①' : 그는 문단에 이름이 걸린 작가다.
- ② '걸다②' : 그는 걸려 있지 않은 문을 활짝 열었다.
- ③ '걸다③' : 나의 그림이 드디어 미술실 벽에 걸렸다.
- ④ '걸다④' : 그는 최면에 걸린 사람처럼 멍하게 서 있었다.
- ⑤ '걸다⑤' : 자동차의 시동이 걸리기까지 시간이 꽤 흘렀다.

〈능피주사 표현〉

[2010년 3월 교육청]

82. <보기>의 ㉠의 경우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⁸²⁾

〈 보 기 〉

주어가 남에게 동작을 하도록 하는 것을 나타내는 문법 기능을 사동(使動)이라고 하며, 사동문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으로 실현된다.

(가) 어머니께서 딸에게 색동옷을 입히셨다.
 (나) 어머니께서 딸에게 색동옷을 입게 하셨다.

(가)에서는 '입다'에 접미사 '-히-'를 결합하여 사동을 실현하였으며, (나)에서는 '-게 하다'를 덧붙여 사동을 실현하였다. 그런데 (가)와 (나)는 의미 해석이 서로 다를 수 있다. ㉠(가)는 딸이 스스로 입을 수 없어서 어머니가 직접 입혀 줬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딸이 자신의 힘으로 색동옷을 입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후자의 뜻으로만 해석할 수 있다.

- ① 다정이는 찬물을 유리잔마다 가득 채웠다.
- ② 어머니는 나에게 밥을 먹이려고 상을 차리셨다.
- ③ 아버지는 진수에게 동생을 얹히고 앞서 걸으셨다.
- ④ 그녀는 이번 발표회를 위해 경미에게 발레화를 사서 신겼다.
- ⑤ 정원은 집에 초대할 친구들에게 졸업 앨범을 보여 주었다.

〈중의적 표현〉

[2014학년도 9월 모의평가 A형]

83. 다음의 ㉠~㉤에 대해 검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⁸³⁾

◆ 문장의 중의성 해소 방법 학습 활동지 ◆

중의성 있는 문장	중의성 해소 방법
예쁜 모자의 장식품이 돋보였다.	'장식품'이 예쁜 경우에는 ㉠ "예쁜, 모자의 장식품이 돋보였다."로 고친다.
손님들이 다 오지 않았어.	손님들 중 일부만 온 경우에는 ㉡ "손님들 중 일부가 오지 않았어."로 고친다.
언니가 교복을 입고 있다.	교복을 입는 동작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 "언니가 교복을 입는 중이다."로 고친다.
형은 나보다 동생을 더 좋아한다.	'나'와 '동생'이 비교 대상인 경우에는 ㉣ "형은 나를 좋아하는 것보다 동생을 더 좋아한다."로 고친다.
나는 웃으면서 매장에 들어오는 손님에게 인사했다.	'나'가 웃으면서 인사하는 경우에는 ㉤ "나는 매장에 들어오는 손님에게 웃으면서 인사했다."로 고친다.

- ① ㉠은 "모자의 예쁜 장식품이 돋보였다."로도 고칠 수 있다.
- ② ㉡은 "손님들이 다는 오지 않았어."로도 고칠 수 있다.
- ③ ㉢은 "언니가 지금 교복을 입고 있다."로도 고칠 수 있다.
- ④ ㉣은 "형은 나와 동생 중에서 동생을 더 좋아한다."로도 고칠 수 있다.
- ⑤ ㉤은 "매장에 들어오는 손님에게 나는 웃으면서 인사했다."로도 고칠 수 있다.

〈중의적 표현〉

[2006년 10월 교육청]

84. <보기>의 설명을 참고하여 ㄱ~ㄷ을 분석해 보았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⁸⁴⁾

〈 보 기 〉

중의성(重義性)을 가진 구성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어떤 구성이 중의성을 가진 구성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직접 구성요소를 분석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직접구성요소는 하나의 구성을 일단 둘로 쪼갠 때 그 각각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 '푸른 가을 하늘'의 직접구성요소는 '푸른'과 '가을 하늘'이다.

- ㄱ. 게으른 토끼와 거북이
- ㄴ. 게으른 토끼와 거북이는 한마을에 살았다.
- ㄷ. 게으른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하면 부지런한 거북이가 이긴다.

- ① ㄱ은 토끼와 거북이가 모두 게으르다는 의미와 토끼만 게으르다는 의미를 가질 수 있으므로 중의성을 가진 구성이다.
- ② ㄴ의 '게으른 토끼와 거북이'에는 ㄱ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중의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 ③ ㄷ의 경우 '부지런한'을 고려하면, '게으른 토끼와 거북이'는 토끼만 게으르다는 의미임을 알 수 있다.
- ④ ㄷ에서 '게으른 토끼와 거북이'의 직접구성요소는 '게으른'과 '토끼와 거북이'이다.
- ⑤ ㄴ과 ㄷ을 통해서 중의성을 가진 구성이라도 문맥에 따라서는 그 중의성이 해소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중복 표현〉

[2014학년도 6월 모의평가 A형]

85. <보기>의 ㉠, ㉡과 의미 중복 유형이 가장 유사한 단어는?⁸⁵⁾

〈 보 기 〉

㉠ '저희들'이나 ㉡ '너희들'은 '-희'가 복수성을 가지고 있어 '저희', '너희'만으로 복수를 표현할 수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기에다 다시 '-들'을 붙여 '저희들', '너희들'처럼 앞 말의 일부를 중복하여 표현하기도 한다.

- ① 뻗골
- ② 외갓집
- ③ 씹씹이
- ④ 단웃날
- ⑤ 교차로

〈지칭, 호칭어 사용〉

[2015학년도 6월 모의평가 A형]

86.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⁸⁶⁾

탐구 목표	실제 담화를 분석하여, 화자와 청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동일한 인물이 다르게 표현될 수 있음을 이해한다.
탐구 자료	<p>[은미의 고모가 은미집을 찾아온 상황]</p> <p>할머니 : 어서와라. ㉠김 서방도 잘 지내지 고모 : 네, 엄마. ㉡그이도 잘 지내요. 언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엄마 : 네, ㉢아가씨. 배고프실 텐데 과일 좀 드세요. 고모 : 고마워요, 언니. 은미야, 공부하느라 힘들지 은미 : 아니에요, ㉣고모. 고모부는 같이 안 오셨어요 고모 : 응, ㉤고모부는 다른 약속이 있어서 못 왔어.</p>
탐구 결과	(가)

- ① ㉠과 ㉡을 보면, 화자와 청자가 맞바뀌어 동일한 인물이 다르게 표현되고 있다.
- ② ㉠과 ㉢을 보면, 청자는 같지만 화자가 달라 동일한 인물이 다르게 표현되고 있다.
- ③ ㉠과 ㉣을 보면, 화자도 다르고 청자도 달라 동일한 인물이 다르게 표현되고 있다.
- ④ ㉡과 ㉤을 보면, 화자는 같지만 청자가 달라 동일한 인물이 다르게 표현되고 있다.
- ⑤ ㉢과 ㉤을 보면, 화자가 달라 동일한 청자가 다르게 표현되고 있다.

〈관용 표현〉

[2013학년도 9월 모의평가]

87. 밑줄 친 관용 표현의 의미를 나타낸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⁸⁷⁾

- ① 우리는 그 폭포의 장대한 물줄기에 입이 벌어졌다.
(→ 매우 놀라다)
- ② 이 가게에는 누나의 눈에 차는 물건이 없는 것 같다.
(→ 마음에 들다)
- ③ 사람들은 산불을 진화하지 못해 동동 발을 굴렀다.
(→ 안타까워하다)
- ④ 그녀는 손이 재기로 유명해서 잔치마다 불러 다닌다.
(→ 일 처리가 빠르다)
- ⑤ 나는 동생이 혼자 그 많은 일을 다 해서 혀를 내들렸다.
(→ 안쓰러워하다)

〈관용 표현〉

[2010학년도 9월 모의평가]

88. <보기 1>의 내용을 근거로 <보기 2>를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⁸⁸⁾

————— < 보 기 1 > —————
 ‘A+B’로 구성된 관용 표현에서 단어나 구절에 해당하는 두 요소 ‘A’ 혹은 ‘B’ 중 어느 한 쪽이 생략되어도 전체의 의미가 크게 변하지 않는 현상을 ‘의미 쏠림’이라고 한다. 이때 남은 ‘A’ 혹은 ‘B’가 명사라면 ‘이다’를 붙여 서술어를 만든다.

————— < 보 기 2 > —————
 ㄱ. 시치미를 떼다 ⇒ 시치미이다
 ㄴ. 뒷북을 치다 ⇒ 뒷북이다
 ㄷ. 바가지를 씌우다
 바가지를 굶다 ⇒ 바가지이다
 ㄹ. ㉠ 닭 잡아먹고
 오리발을 내밀다 ⇒ ㉡ ⇒ 오리발이다
 ㅁ. 무릎을 치다 ⇒ 무릎이다

- ① ㄱ은 ‘A’로 의미 쏠림이 일어난 것이군.
- ② ㄴ, ㅁ을 보니 관용 표현에 쓰인 서술어를 보면 의미 쏠림이 일어날지 알 수 있군.
- ③ ㄷ을 보니 의미 쏠림 후의 ‘바가지이다’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군.
- ④ ㄹ의 ㉠ ⇒ ㉡은 ‘B’로 의미 쏠림이 일어난 것이군.
- ⑤ ㄹ을 보니 어떤 관용 표현은 의미 쏠림이 여러 번 일어날 수 있군.

〈관용 표현〉

[2012년 4월 교육청]

89.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의 용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⁸⁹⁾

————— < 보 기 > —————
 ‘손’은 우리 신체의 일부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이지만, 씹씹이나 사람 간의 관계 등과 같은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특히 사람이 일을 하는 솜씨나 처리 속도에 대해 이야기할 때 ‘손’과 관련된 관용 표현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솜씨가 좋은 경우와 나쁜 경우, 일을 처리하는 속도가 빠른 경우와 느린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 ① 이제부터는 나쁜 친구들과 손을 끊어라.
- ② 제가 손이 서툴러서 일을 망쳤으니 어쩌면 좋아요.
- ③ 철수는 손이 여물어서 어려운 일도 잘 마무리합니다.
- ④ 영수 엄마는 손이 재서 음식을 금방 만들어 내었습니다.
- ⑤ 손이 뜬 민수만 빼놓고 다른 사람은 모두 작업을 끝냈습니다.

<관용 표현>

[2005년 3월 교육청]

90. <보기>의 (가), (나)에 들어갈 관용어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90)

— < 보 기 > —

- 다소 노골성을 비치는 일이 전무한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그 초점을 때리지 않고 (가), 은근한 가운데 함축성 있는 표현을 주로 하였다.
- 이희승, 「떡추의 말참견」중에서 -
- 그때 (나) 오리발만 내밀던 녀석의 소행머리를 생각하니 속에서 다시 열불이 치밀어 오르는 것이었다.
- 윤홍길, 「완장」중에서 -

- | <u>(가)</u> | <u>(나)</u> |
|------------|------------|
| ① 변죽을 울리며 | 판죽을 걸며 |
| ② 변죽을 울리며 | 본때를 보이며 |
| ③ 변죽을 울리며 | 시치미를 떼며 |
| ④ 시치미를 떼며 | 본때를 보이며 |
| ⑤ 시치미를 떼며 | 변죽을 울리며 |

〈챕터3. 표기, 문장 다듬기 파트〉

〈표기〉

[2015학년도 6월 모의평가 B형]

91.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91)

〈한글 맞춤법〉에 따르면 표준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경우도 있지만, 어법에 맞게 적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간혹 이 사실을 모르고 소리 나는 대로 적어서 틀릴 때가 있다.

올바른 표기	잘못된 표기	발음	
들어서다	드러서다	[드러서다]	…… ㉠
그렇지	그러치	[그러치]	…… ㉡
해돋이	해도지	[해도지]	…… ㉢

- ① ㉠은 연음 현상 때문에 잘못 적는 경우이다.
- ② ㉠과 같은 예로 '높이다'를 '높히다'로 잘못 적는 경우를 들 수 있다.
- ③ ㉡은 거센소리되기 때문에 잘못 적는 경우이다.
- ④ ㉡과 같은 예로 '엷혀'를 '엷켜'로 잘못 적는 경우를 들 수 있다.
- ⑤ ㉢과 같은 예로 '금불이'를 '금부치'로 잘못 적는 경우를 들 있다.

〈표기〉

[2014학년도 수능 A형]

92. 〈보기〉의 ㉠, ㉡의 예로 적절한 것은?92)

〈한글 맞춤법〉 제4장(형태에 관한 것)의 파생어와 합성어에 대한 표기 규정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 파생어이면서 어근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 경우
- 파생어이면서 어근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않는 경우㉠
- 합성어이면서 어근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 경우.....㉡
- 합성어이면서 어근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않는 경우

- | | |
|----------|--------|
| ㉠ | ㉡ |
| ① 길이, 마중 | 무덤, 지붕 |
| ② 무덤, 지붕 | 뒤뜰, 쌀알 |
| ③ 뒤뜰, 쌀알 | 무덤, 지붕 |
| ④ 길이, 무덤 | 뒤뜰, 쌀알 |
| ⑤ 마중, 지붕 | 길이, 쌀알 |

〈표기〉

[2011학년도 수능]

93. 〈보기〉를 바탕으로 한글 맞춤법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93)

〈 보 기 〉

제5항

㉠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 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

예 어깨, 잔뜩, 살짝, 듬뿍, 몽땅

㉡ 다만, 'ㄱ,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

예 국수, 법석

제27항

㉢ 둘 이상의 단어가 어울리거나 접두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은 각각 그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예 칼날, 꽃잎, 만사위, 흠이불

- ① ㉠을 보니 모음 뒤나 'ㄴ, ㄹ, ㅁ, ㅇ'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가 소리 나는 대로 표기되어 있군.
- ② '납작'이 아니라 '납작'으로 적는 것은 ㉡의 '법석'을 표기할 때 적용된 규정을 따른 것이군.
- ③ '짹짹하다'가 아니라 '짹짹하다'로 적는 것은 ㉡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군.
- ④ '물뽕'이 아니라 '물뽕'으로 적는 것은 ㉡의 '칼날'을 표기할 때 적용된 규정을 따른 것이군.
- ⑤ '깍뚜기'가 아니라 '깍뚜기'로 적는 것은 ㉢의 '만사위'를 표기할 때 적용된 규정을 따른 것이군.

<표기>

[2013년 4월 교육청 B형]

94. <보기1>을 참고하여 <보기2>의 메모를 한글 맞춤법에 맞게 완성하려고 한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94)

< 보기 1 >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 '가끔'처럼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나 '산뜻하다, 훨씬, 음절, 엉뚱하다'처럼 'ㄴ, ㄹ, ㄹ, ㅇ'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된소리로 적는다.

다만, '갑자기'와 같이 'ㄱ,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똑똑(-하다)'처럼 같은 음절이 겹쳐 나거나 '쓱쓱'처럼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

< 보기 2 >

형의 ㉠(해숙한/해쓱한) 모습에 어머니께서도 걱정되셨나 봐. ㉡(짹짹한/짹짹한) 음식은 몸에 좋지 않다고, ㉢(깍뚜기/깍뚜기)를 심심하게 담그시더니 형에게 보내라고 하시네. 혼자서 밥을 챙겨먹기는 힘들겠지만 ㉣(듬뿍/듬뿍)담긴 어머니의 정성을 생각해서 끼니 거르지 마. 이제 형은 집 걱정 ㉤(몽당/몽땅) 잊고, 건강 먼저 챙겨.

동생이

- ① ㉠은 한 단어 안에서 까닭 없이 된소리로 발음되고, 두 모음 사이에서 된소리로 발음되므로 '해쓱한'으로 써야 한다.
- ② ㉡은 'ㅂ' 받침 뒤에서 된소리로 발음되고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고 있으므로 '짹짹한'으로 써야 한다.
- ③ ㉢은 'ㄱ' 받침 뒤에서 된소리로 발음되고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지 않으므로 '깍뚜기'로 써야 한다.
- ④ ㉣은 'ㄹ' 받침 뒤에서 된소리로 발음되므로 '듬뿍'이라고 써야 한다.
- ⑤ ㉤은 한 단어 안의 첫음절 'ㅇ' 받침 뒤에서 까닭 없이 된소리로 발음되므로 '몽땅'으로 써야 한다.

<표기>

[2006년 3월 교육청]

95. <보기>의 '한글 맞춤법 규정'을 바탕으로 <학생의 글>을 평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95)

< 보기 >

제5항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

1.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
(예) 해숙하다(x) → 해쓱하다(○)
 으뜸(x) → 으뜸(○)
2. 'ㄴ, ㄹ, ㄹ, ㅇ'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
(예) 산뜻하다(x) → 산뜻하다(○)
 담북(x) → 담뿍(○)
3. 다만, 'ㄱ,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
(예) 국쭈(x) → 국수(○) 갑짜기(x) → 갑자기(○)

< 학생의 글 >

- ㉠ 아이는 옷을 거꾸로 입었다.
- ㉡ 소녀는 부끄러운지 얼굴을 살짝 붉혔다.
- ㉢ 그는 잘 익은 깍뚜기를 한 입 베어 물었다.
- ㉣ 그 사람은 도박으로 재산을 몽땅 날리고 말았다.
- ㉤ 어머니께서는 가위로 옷감을 싹둑 자르셨다.

- ① ㉠의 '거꾸로'는 제5항-1의 규정에 따른 올바른 표기입니다.
- ② ㉡의 '살짝'은 제5항-2의 규정에 따라 '살작'으로 표기해야 합니다.
- ③ ㉢의 '깍뚜기'는 제5항-3의 규정에 따라 '깍뚜기'로 고쳐야 합니다.
- ④ ㉣의 '몽땅'을 '몽당'으로 표기하면 제5항-2의 규정에 어긋납니다.
- ⑤ ㉤의 '싹둑'은 제5항-3의 규정에 따른 올바른 표기입니다.

<표기>

[2008학년도 수능]

96. <보기>의 자료를 읽고 탐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96)

< 보기 >

【맞춤법 규정】

제19항 어간에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과 '-이'나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예) 떡이, 믿음 등.

다만, 어간에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바뀐 것이라도 그 어간의 뜻과 떨어진 것은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예) 목거리(목이 아픈 병), 노름 등.

[붙임] 어간에 '-이'나 '-음'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뀐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예) 마중, 무덤 등.

【맞춤법 규정 제19항 해설】

- 널리 쓰이는 접미사가 어간에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는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 것이 원칙이나, 그 어간의 뜻과 떨어진 단어는 밝혀 적지 않는다.
- 널리 쓰이지 않는 접미사가 어간에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는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 ① '떡이'를 '머기'로 적지 않는 것을 보니 '-이'가 널리 쓰이는 접미사겠군.
- ② '목거리'와 달리 '목걸이(장신구)'는 어간의 뜻과 떨어지지 않은 예로군.
- ③ '마중'을 '맞옹'으로 적지 않는 것을 보니 '-옹'이 널리 쓰이지 않는 접미사겠군.
- ④ 널리 쓰이는 접미사가 붙어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은 예로 '같이'를 추가할 수 있겠군.
- ⑤ 널리 쓰이는 접미사가 붙었지만 어간의 뜻과 떨어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은 예로 '마개'를 추가할 수 있겠군.

<표기>

[2015학년도 9월 모의평가 B형]

97. <보기>는 ‘한글 맞춤법’의 일부를 정리한 것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로 적절한 것은? [3점]97)

— < 보 기 2 > —

[제19항]
 ○ 어간에 ‘- 이’가 붙어서 명사로 된 것과 ‘- 이’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예) 먹이, 굳이, 같이 ㉠

[제25항]
 ○ ‘- 하다’가 붙는 어근에 ‘- 히’나 ‘-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되는 경우에는 그 어근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예) 꾸준히, 깨끗이 ㉡

○ 부사에 ‘- 이’가 붙어서 역시 부사가 되는 경우에는 그 부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예) 더욱이, 생긱이 ㉢

- ① ‘급히 떠나다’의 ‘급히’는 ㉠의 ‘굳이’를 표기할 때 적용된 규정을 따른 것이군.
- ② ‘방긱이 웃다’의 ‘방긱이’는 ㉠의 ‘같이’를 표기할 때 적용된 규정을 따른 것이군.
- ③ ‘많이 먹다’의 ‘많이’는 ㉡의 ‘꾸준히’를 표기할 때 적용된 규정을 따른 것이군.
- ④ ‘깊이 파다’의 ‘깊이’는 ㉡의 ‘깨끗이’를 표기할 때 적용된 규정을 따른 것이군.
- ⑤ ‘일찍이 없던 일’의 ‘일찍이’는 ㉢의 ‘더욱이’를 표기할 때 적용된 규정을 따른 것이군.

<표기>

[2011년 10월 교육청]

98. <보기>의 설명에 따라 단어를 선택한 것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98)

— < 보 기 > —

한글맞춤법에서는 부사의 끝음절이 분명히 ‘이’로만 나는 것은 ‘-이’로 적고, ‘히’로만 나가거나 ‘이’나 ‘히’로 나는 것은 ‘-히’로 적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로 적는 것>
 ○ 첩어인 명사 뒤
 ○ ‘ㅂ’불규칙 용언의 어간 뒤
 ○ ‘-하다’가 붙는 어근의 끝소리가 ‘ㅅ’인 경우

<‘-히’로 적는 것>
 ○ ‘-하다’가 붙는 어근 뒤
 ○ ‘-하다’가 붙는 용언의 어간 뒤에서 부사의 끝음절이 ‘히’로만 소리 나는 경우

- ① 손수건을 (고이 / 고히) 접었다.
- ② (겹겹이 / 겹겹히) 옷을 껴입었다.
- ③ (족이 / 족히) 열흘은 걸릴 것이다.
- ④ 그는 (느긱이 / 느긱히) 기다리고 있었다.
- ⑤ 할아버지는 그를 (각별이 / 각별히) 아꼈다.

<표기>

[2013학년도 9월 모의평가]

99. <보기>는 준말과 관련한 한글 맞춤법의 일부와 그 예시이다. ㉠~㉣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99)

— < 보 기 2 > —

○ ‘ㅏ, ㅑ, ㅓ, ㅕ, ㅗ’로 끝난 어간에 ‘-이’가 와서 각각 ‘ㅐ, ㅑ, ㅓ, ㅕ, ㅗ’로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본말	준말
기본형	파이다	_____ ㉠ _____
용례	깊게 파인 구덩이	깊게 _____ ㉡ _____ 구덩이

○ ‘ㅐ, ㅑ’ 뒤에 ‘-어, -었-’이 어울려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본말	준말
용례	구덩이가 깊게 ㉢	구덩이가 깊게 팠다

- ㉠ ㉡ ㉢
- ① 패다 팬 패었다
 - ② 패다 팬 패었다
 - ③ 패다 패인 패었다
 - ④ 패이다 팬 패었다
 - ⑤ 패이다 패인 패었다

<표기>

[2008년 7월 교육청]

100. <보기>에 따를 때, 밑줄 친 두 단어가 본말과 준말의 관계가 아닌 것은?100)

— < 보 기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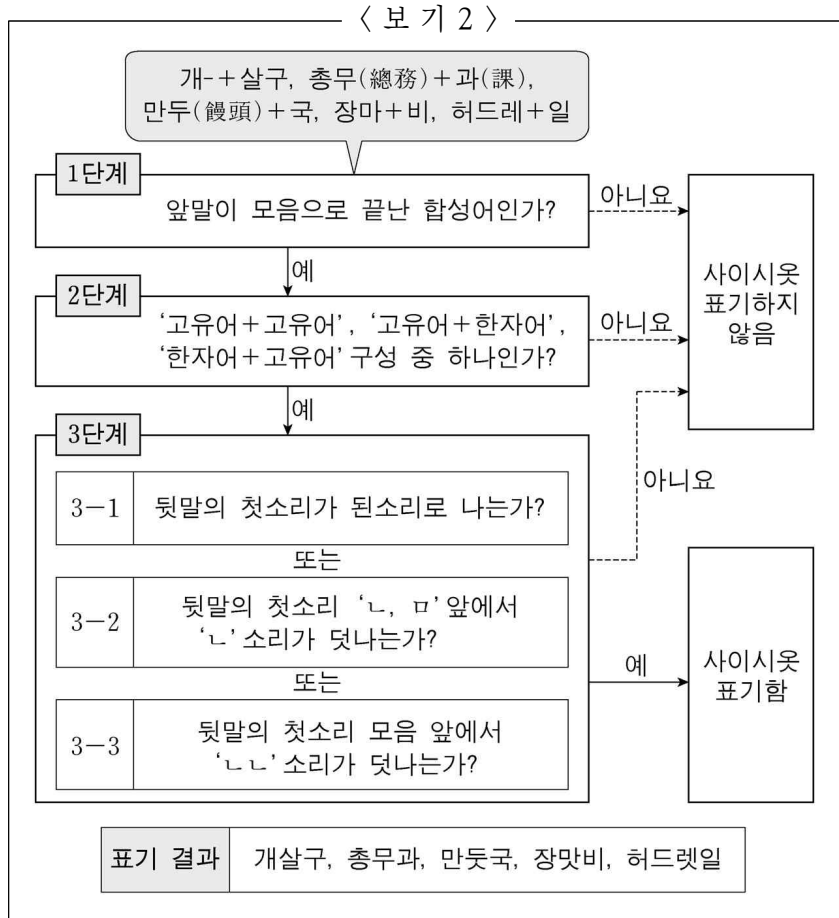
본말은 본디 소리마디의 말이고, 준말은 단어의 일부분이 줄어든 말이다. 두 말을 바꾸어 사용해도 의미가 변하지 않을 때, 본말과 준말의 관계가 성립한다.

- ① 손이 닿지 않는데, 그것 쭈(조급) 주시겠어요?
- ② 맘(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 ③ 두 사내(사나이)가 웃으면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 ④ 너희들끼리 쌈(싸움)을 하다가 다친 모양이구나.
- ⑤ 두 소녀는 얘기(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표기〉

[2014학년도 9월 모의평가 B형]

101. <보기>는 사이시옷 표기 조건에 관한 학습 활동지의 일부이다. 학습한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¹⁰¹⁾



- ① '개-+살구' 구성은 1단계를 만족시키지 못하므로 '개살구'라고 쓴다.
- ② '총무+과' 구성은 2단계를 만족시키지 못하므로 '총무과'라고 쓴다.
- ③ '만두+국' 구성은 1, 2, 3-1단계를 만족시키므로 '만두국'이라고 쓴다.
- ④ '장마+비' 구성은 1, 2, 3-2단계를 만족시키므로 '장맛비'라고 쓴다.
- ⑤ '허드레+일' 구성은 1, 2, 3-3단계를 만족시키므로 '허드렛일'이라고 쓴다.

〈표기〉

[2015학년도 6월 모의평가 A형]

102. 다음은 띄어쓰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다. ㉠~㉣의 띄어쓰기가 바르게 된 것은?¹⁰²⁾

문제

다음 문장의 밑줄 친 부분을 맞춤법에 맞게 띄어 써 보자.

- 열심히 삶을 ㉠살아가다.
- 주문한 물건을 ㉡받아가다.
- 딸이 엄마를 ㉢뺏아가다.

확인 사항

- 단어는 띄어 쓴다.
- 단어는 사전에 표제어로 실린다.
- 보조 용언은 띄어 쓰음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쓸 수도 있다.
- '-야'를 '-아서'로 바꿔 쓸 수 있으면 '본용언+본용언' 구성이고, 그렇지 않으면 한 단어이거나 '본용언+보조 용언' 구성이다.

문제 해결 과정

㉠살아가다 ㉡받아가다 ㉢뺏아가다

사전에 표제어로 실렸나요? 예 → ㉠, 아니요 → 다음 단계

'-를' '-아서'로 바꿔 쓸 수 있나요? 예 → ㉡, 아니요 → ㉢

	㉠	㉡	㉢
①	살아가다	받아 가다	뺏아 가다 또는 뺏아가다
②	살아가다	받아 가다 또는 받아가다	뺏아 가다
③	살아가다	받아가다	뺏아가다
④	살아 가다	받아 가다 또는 받아가다	뺏아가다
⑤	살아 가다	받아가다	뺏아 가다 또는 뺏아가다

<표기>

[2014년 4월 교육청 B형]

103. <보기>는 '문법 학습 게시판'에 올라온 자료이다. 이를 참고 할 때, (가)~(마)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¹⁰³⁾

〈 보 기 〉

【 질문 】

선생님! 띄어쓰기와 관련해서 헷갈리는 것이 있어요. '만큼, 대로, 뿐'은 어떤 경우에 띄어 쓰고 어떤 경우에 붙여 쓰나요? 그리고 '못하다'와 '못 하다'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답변 】

'만큼, 대로, 뿐'이 조사로 쓰일 때는 앞말에 붙여 쓰고, 의존 명사로 쓰일 때는 띄어 쓴다. 그러니까 앞말이 체언일 경우에는 붙여 쓰고, 용언의 관형사형일 경우에는 띄어 쓴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못 하다'는 부사인 '못'이 동사인 '하다'를 꾸미는 것이고, '못하다'는 형용사나 동사로 그 자체가 하나의 단어란다. 형용사일 때는 '정도가 극에 달한 나머지', '비교 대상에 미치지 아니함' 등의 뜻을 나타내지.

- (가) 공부를 할 만큼 했으니 성적이 오르겠지?
- (나) 나는 나대로 열심히 공부했어.
- (다) 지금까지 공부한 것이 고작 그것 뿐이야?
- (라) 배가 고프다 못해 아프다.
- (마) 실력이 예전보다 많이 못하구나.

-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표기>

[2013년 7월 교육청 A형/B형]

104. 다음의 ㉠, ㉡에 들어갈 용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¹⁰⁴⁾

학생 : 선생님, '이렇게 많은 걸 언제 다 모았니?' 라고 할 때, 여기서 '걸'은 띄어 써야 하나요? 아니면 붙여 써야 하나요? '걸'은 앞말에 붙여쓰기도 하고 띄어쓰기도 해서 혼란스러워요.

선생님 : 이 경우에는 띄어 쓰는 것이 맞아요. '걸'은 '것을'을 구어적으로 나타낸 것이랍니다. 여기서 '거'는 의존명사 '것'에 해당하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겠지요. 그런데 '걸'이 가벼운 반박이나 감탄의 뜻을 나타낼 때에는 앞말에 붙여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때 '걸'은 '-느걸, -는걸' 등과 같은 어미의 일부이기 때문이지요. 그럼 이를 바탕으로 각각의 용례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볼까요?

띄어 쓰는 경우	붙여 쓰는 경우
㉠	㉡

- ① ㉠ : 몸에도 좋지 않은 걸 왜 먹니?
- ② ㉠ : 내가 바라는 걸 너는 알고 있지?
- ③ ㉡ : 날이 흐린걸 보니 곧 비가 오겠네.
- ④ ㉡ : 그만하면 훌륭하던걸 뭐.
- ⑤ ㉡ : 야, 눈이 많이 쌓였는걸!

<표기>

[2013년 3월 교육청 B형]

105. <보기> (가)의 한글 맞춤법 규정을 바탕으로 (나)의 밑줄 친 부분을 평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¹⁰⁵⁾

〈 보 기 〉

(가) 한글 맞춤법 규정

제 2항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

제41항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제42항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

제43항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

제47항 보조 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씀도 허용한다.

- (나) ㉠ 내게는 키가 큰형이 있다.
- ㉡ 나는 연필 한자루를 샀을뿐이다.
- ㉢ 나를 이해해줄 사람은 너뿐이다.

- ① ㉠의 '큰'과 '형'은 제2항에 따라 띄어 써야겠군.
- ② ㉡의 '자루'는 제43항에 따라 '한'과 띄어 써야겠군.
- ③ ㉡의 '뿐'은 제42항에 따라 ㉢의 '뿐'과 달리 띄어 써야겠군.
- ④ ㉢의 '이해해'와 '줄'은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47항에 따라 붙여 쓰는 것도 허용되겠군.
- ⑤ ㉠과 ㉢의 '이다'는 제2항에 따라 '뿐'과 띄어 써야겠군.

<표기>

[2009년 4월 교육청]

106. <보기>의 ㉠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¹⁰⁶⁾

〈 보 기 〉

- ㉠ 제 시간에 도착했는지 모르겠다.
- 별써 집 떠난 지 삼 년이 지났다.

'-느'와 '지'는, '-느지'와 '-느 지'의 형태를 이루어 쓰인다. 전자는 어미로 쓰이는 경우이고, 후자는 관형사형 어미 '-느'과 의존 명사 '지'로 쓰이는 경우이다. ㉠이처럼 어미와 의존명사가 걸으로 볼 때 형태가 같아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 ① ㉠ 미리 자 들 걸.
- 후회할 걸 왜 그렸니?
- ② ㉠ 집에 가서 다시 연락할게.
- 학교에 가서 할 게 너무 많아.
- ③ ㉠ 이런게 보다니 정말 오랜만이군.
- 그 친구를 십 년 만에 만났다.
- ④ ㉠ 학교에 가는데 비가 오기 시작했다.
- 이 일을 하는 데 며칠이 걸렸다.
- ⑤ ㉠ 서류를 검토한바 미비한 사항이 발견되었다.
- 평소에 느낀 바를 말해라

〈표기〉

[2005년 3월 교육청]

107. <보기>는 띄어쓰기 사례를 사전에서 조사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추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107)

— < 보 기 > —

- 어제 ㉠김 사장과 만났다.
- 자동차가 ㉡쏟살같이 달린다.
-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 명주는 ㉣무명만큼 질기지 못하다.
- ㉤정직한 사람은 결코 손해를 보지 않는다.

- ① ㉠로 보아, '박 과장, 이 대리'라고 써야 할 거야.
- ② ㉡처럼 '쏟살같이'를 붙여 쓰니까, "부모님과같이 가다."의 '부모님과 같이'도 붙여 써야 해.
- ③ ㉢의 사례로 볼 때, '비 온 후에 죽순이 돋듯이'의 '돋듯이'도 붙여 써야 해.
- ④ ㉣로 보아 "나도 너만큼 할 수 있다."의 '너만큼'도 붙여 써야 해.
- ⑤ ㉤의 사례로 볼 때, '아름다운 꿈, 멋있는 사람'처럼 띄어 쓰는 것이 옳아.

〈맞춤법〉

[2015학년도 수능 B형]

108. 밑줄 친 부분이 한글 맞춤법에 맞게 쓰인 것은?108)

- ① 엿저녁에는 고향 친구들과 만나서 식사를 했다.
- ② 그가 발의한 안건은 다음 회의에 부치기로 했다.
- ③ 적잖은 사람들이 그 의견에 찬성의 뜻을 보였다.
- ④ 동생은 누나가 직접 만든 깡뚜기를 먹어 보았다.
- ⑤ 저기 넓적하게 생긴 바위가 우리들의 놀이터였다.

〈맞춤법〉

[2001학년도 수능]

109. 맞춤법에 맞는 것은? [1.8점]109)

— < 보 기 > —

철수는 어머니를 도와 ㉠설것이를 하였다. 철수는 먹다 남은 ㉡찌게와 ㉢온갖 반찬 찌꺼기를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하였다. 그 때 ㉣텔레비전을 보고 ㉤계시든 어머니께서 놀라며 말씀을 하셨다. "애, 안 돼. 분리 수거를 해야지."

- ① ㉠ ② ㉡ ③ ㉢ ④ ㉣ ⑤ ㉤

〈맞춤법〉

[2000학년도 수능]

110. 다음 <보기>를 읽고 맞춤법에 어긋난 것을 고르시오.110)

— < 보 기 > —

㉠우리 나라 사람들은 과정이야 어쨌든 결과만 빨리 얻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과정을 소홀히 하고 결과만을 빨리 얻으려는 이러한 결과 우선의 사고는 과학 기술 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기초 과학 분야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지금까지 나날이 발전하는 첨단 기술이라는 열매를 어떻게 하면 빨리 딸 수 있을지만 생각했지, 그 열매가 어떤 기후에서, 어떤 자양으로, 어떻게 자라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외면해 왔다. ㉣그럴수록 과학 기술의 결과 우선 주의가 공헌한 바가 없는 것은 아니나, 기초 과학 분야를 도외시한 채 당장 써먹을 수 있다는 이유로 응용 과학 분야만을 추구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

- ① 어쨌든 ② 소홀히 ③ 나날이
- ④ 있을는지만 ⑤ 채

〈맞춤법〉

[1999학년도 수능]

111. 다음 <보기>를 읽고 맞춤법에 어긋난 것을 고르시오.111)

— < 보 기 > —

선생님 생각을 할 때마다 떠오르는 기억이 하나 있지요. 무슨 일이었는지 제가 선생님 책상을 기웃거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실수로 잉크병을 넘어뜨렸는데, 뚜껑이 열려 있어서 책상을 흥건이 적시게 되었습니다. 그것만이었다면 별로 큰일이 아니었겠지요. 마침 책상 위에는 하얀 종이가 펼쳐져 있었고, 까만 잉크가 하얀 종이를 마치 세계지도처럼 물들였습니다. 저는 눈앞이 캄캄해져 그저 서 있기만 할 따름이었습니다. 잠시 뒤 선생님께서 오셨고, 저는 고개를 떨군 채 어떤 벼락이 내릴지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선생님께서는 한참 동안 물끄러미 바라보시더니, 제 어깨를 툭 치시고는 "괜찮다." 한 마디만 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선생님께서는 교무 부장이셨지요. 제 눈에서는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그건 감사의 눈물이었고, 그 후로 저는 선생님을 더욱 존경하며 따르게 되었습니다.

- ① 흥건이 ② 그것만이었다면 ③ 큰일
- ④ 한참 동안 ⑤ 괜찮다

〈맞춤법〉

[2004학년도 6월 모의평가]

112. 밑줄 친 단어가 맞춤법에 맞는 것은?112)

- ① 아직 문자 메시지에 대한 회답이 오지 않았다.
- ② 그는 하고 싶은 말은 아무 말이나 마구 뱉는 성미이다.
- ③ 인터넷 동호회 게시판에는 밤새 많은 글들이 올라왔다.
- ④ 구름은 말짱히 걸쳐 버려 산마루 뒤로 물러앉아 있었다.
- ⑤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댓가를 치러야 하는 법이다.

〈맞춤법〉

[2003학년도 9월 모의평가]

113. <보기>는 학생이 쓴 글의 일부이다. 어법에 맞는 것은?113)

〈 보 기 〉

시험을 앞두고 나는 불안감으로 ㉠안절부절하고 있었다.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지난 시험보다 성적이 올라야 하는데…….'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공부할 계획만 거창하게 세웠을 뿐 제대로 실천하지 못해서 너무 후회가 되었다.

㉡엿그제 선생님과의 면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선생님께서는 ㉢웬만큼 공부해서는 성적이 ㉣올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답을 맞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답이 정답이 되는 이유까지 ㉤꼼꼼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맞춤법〉

[2010년 7월 교육청]

114. 밑줄 친 어휘가 모두 바르게 쓰인 것은?114)

- ① [오늘이 몇 일인지 알려 주세요.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 날 며칠을 고민했다.]
- ② [우리는 서로 바빠서 오랜동안 연락하지 못했다.
정말 오랫동안에 편안한 마음으로 휴식을 즐기고 있다.]
- ③ [잠자던 아이가 눈을 부비며 일어났다.
여름에는 열무김치에 보리밥을 비벼 먹는 것이 일품이다.]
- ④ [상승세를 탄 우리 팀은 상대팀을 밀어붙였다.
그것은 지금 필요 없으니, 저 구석에 밀어부쳐 놓아라.]
- ⑤ [언니는 흘뭉이 아니니까, 태아를 생각해서 조심해야 해!
내 친구는 부모형제 없는 흘뭉이지만, 정말 씩씩하다.]

〈맞춤법〉

[2007년 10월 교육청]

115. <보기>를 참조하여 일상생활에서 잘못 사용되고 있는 어휘를 고쳐 사용하는 활동을 하였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115)

〈 보 기 〉

당기다 : 1.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나 저절로 끌리다.
2. 입맛이 돋우어지다.
3. 물건 따위를 힘을 주어 자기 쪽이나 일정한 방향으로 가까이 오게 하다.
4. 정한 시간이나 기일을 앞으로 옮기거나 줄이다.

댕기다 : 불이 옮겨 붙다. 또는 그렇게 하다.

땅기다 : 몹시 단단하고 팽팽하게 되다.

- ① 활의 시위를 땡기었다.(→당기었다)
- ② 많이 걸어 종아리가 땡겼다.(→당겼다)
- ③ 입맛이 땡겨 과식하게 되었다.(→당겨)
- ④ 예정보다 이틀 땅겨 출발했다.(→당겨)
- ⑤ 성냥으로 담배에 불을 당겼다.(→땡겼다)

〈문장 다듬기〉

[2014학년도 수능 B형]

116. <보기>의 ㉠에 들어갈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116)

〈 보 기 〉

“확실한 사실은 그가 지금까지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주어인 ‘사실은’과 호응하는 서술어가 없어서 잘못된 문장이다. 이와 같이 주어와 서술어 사이에 호응이 이루어지지 않은 또 다른 문장의 예는 다음과 같다.

㉠ _____

- ① 회원들은 상품 구매를 싸게 구입할 수 있다.
- ② 이 글의 특징은 길이가 짧지만 인상은 강하다.
- ③ 아들의 성공 소식은 부모님께 여간한 기쁨이었다.
- ④ 새 기계는 유해 물질과 연료 효율을 높여 주었다.
- ⑤ 그는 자신의 행복한 마음을 형언할 방법을 찾았다.

〈문장 다듬기〉

[2004학년도 수능]

117. 표현이 바르게 된 문장은? [1점]117)

- ① 이 배는 사람이나 짐을 실어 나릅니다.
- ② 우리 모두의 바램은 가족의 건강이야.
- ③ 모금한 돈이 너무 작아 죄송합니다.
- ④ 내년에는 수출량을 더 늘려야 한다.
- ⑤ 김장을 직접 담아 드십니까?

〈문장 다듬기〉

[2015학년도 9월 모의평가 A형/B형]

118. ㉠~㉤의 잘못된 문장을 수정할 때 고려한 문법적 기준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118)

	잘못된 문장 → 수정한 문장
㉠	그는 양말을 벗고 바위에 앉아서 발을 넣었다. → 그는 양말을 벗고 바위에 앉아서 물에 발을 넣었다.
㉡	내가 주장하는 바는 문화 회관 건설로 주민 생활이 개선된다. → 내가 주장하는 바는 문화 회관 건설로 주민 생활이 개선된다는 것이다.
㉢	이번 일로 우리는 불편과 피해를 입었다. → 이번 일로 우리는 불편을 겪고 피해를 입었다.
㉣	우리 모두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동참합시다. → 우리 모두 쓰레기 줄이기 운동에 동참합시다.
㉤	이 사람에게 그 일은 여간 기쁜 일이다. → 이 사람에게 그 일은 여간 기쁜 일이 아니다.

- ① ㉠ : 목적어인 ‘발을’을 수식하는 관형어가 있어야 한다.
- ② ㉡ : ‘내가 주장하는 바는’과 호응하는 서술어가 있어야 한다.
- ③ ㉢ : 목적어의 하나인 ‘불편’과 호응하는 서술어가 있어야 한다.
- ④ ㉣ : 서술어인 ‘동참합시다’가 요구하는 부사어에 정확한 조사를 사용해야 한다.
- ⑤ ㉤ : 부사 ‘여간’은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말과 호응해야 한다.

〈문장 다듬기〉

[2015학년도 6월 모의평가 B형]

119. 다음 중 수정 이유에 따라 고쳐 쓴 문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19)

학습 활동	정확한 문장 표현 익히기
사례 1	사람들은 쾌적한 환경을 위한 조치에 찬성하는 경향이다. (이유)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맞지 않다. → 사람들은 쾌적한 환경을 위한 조치에 찬성하는 경향인 것이다. ... ①
사례 2	동생은 평소에 건강을 위해 야구나 공을 찬다. (이유) 목적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맞지 않다. → 동생은 평소에 건강을 위해 공이나 야구를 한다. ②
사례 3	동물은 사람을 경계하기도 하고 기대기도 한다. (이유)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부사어가 없다. → 동물은 사람을 경계하기도 하고 사람에게 기대기도 한다. ③
사례 4	사람을 좋아하는 친구의 고양이가 새끼를 낳았다. (이유) 문장의 의미가 중의적이다. → 사람을 좋아하는 친구의 고양이가, 새끼를 낳았다. ④
사례 5	누구나 자기의 처한 현실에 직시해야 한다. (이유) 조사가 잘못 사용되었다. → 누구도 자기의 처한 현실에 직시해야 한다. ⑤

〈문장 다듬기〉

[2014학년도 9월 모의평가 B형]

120. ㉠~㉣에 들어갈 문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20)

부정확한 문장	수정 방법	수정한 문장
예의가 바른 사람은 오만하게 대하지 않는다.	'대하지'와 어울리는 성분을 찾아 넣는다.	㉠
우리는 친구에게 화를 내기도 하지만 친하게 지내기도 한다.	'지내기도'와 어울리는 성분을 찾아 넣는다.	㉡
정부는 기술을 외국에서 도입했지만 해결책이 되지는 못했다.	'되지는'과 어울리는 성분을 찾아 넣는다.	㉢
선생님께서서는 우리를 많이 아끼셨고 우리 또한 존경했다.	'존경했다'와 어울리는 성분을 찾아 넣는다.	㉣
이이의 호는 율곡이며 조선을 대표하는 유학자이다.	'유학자이다'와 어울리는 성분을 찾아 넣는다.	㉤

- ① ㉠ : 예의가 바른 사람은 남에게 오만하게 대하지 않는다.
- ② ㉡ : 우리는 친구에게 화를 내기도 하지만 친구와 친하게 지내기도 한다.
- ③ ㉢ : 정부는 기술을 외국에서 도입했지만 여전히 해결책이 되지는 못했다.
- ④ ㉣ : 선생님께서는 우리를 많이 아끼셨고 우리 또한 선생님을 존경했다.
- ⑤ ㉤ : 이이의 호는 율곡이며 그는 조선을 대표하는 유학자이다.

〈문장 다듬기〉

[2014학년도 6월 모의평가 A형/B형]

121. <보기 1>을 참고하여 <보기 2>와 같이 문장을 수정하였다. <보기 2>의 (가), (나)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고른 것은? (121)

— < 보기 1 > —
 정확한 문장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문장을 형성하는 규칙인 문법을 잘 지켜야 한다. ㉠주어, 목적어, 필수적 부사어 등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이 빠져 있는 경우,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등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 ㉢조사나 어미를 잘못 사용한 경우에는 문법성이 결여되어 바르지 않은 문장이 된다.

— < 보기 2 > —

원래의 문장 ⇒ 수정한 문장	고려한 사항
○ 이 장면은 연출된 것이니 반드시 따라 하지 마세요. ⇒ 이 장면은 연출된 것이니 절대로 따라 하지 마세요.	(가)
○ 우리는 타인의 인격을 존중해야 하고 나와 평등하다는 생각을 지녀야 한다. ⇒ 우리는 타인의 인격을 존중해야 하고 타인이 나와 평등하다는 생각을 지녀야 한다.	(나)

- | | |
|-----|-----|
| (가) | (나) |
|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 ⑤ ㉢ | ㉡ |

〈문장 다듬기〉

[2005학년도 9월 모의평가]

122. 밑줄 친 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122)

- ① 올림픽과 월드컵을 개최한 나라의 국민답게 질서를 잘 지킵시다.
- ② 험한 말을 하는 그를 보고, 동료들은 모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다.
- ③ 선생님 말씀이야 구구절절이 옳은 말씀입니다만, 요즘 세상에 그런 말이 통하거나 하겠어요?
- ④ 여러 사람의 의견이 엇갈리다 보니, 나도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판단하기가 곤혹스럽기만 했다.
- ⑤ 모두들 편안하게 잠든 와중에도 일터로 가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의 얼굴을 보며 삶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다.

〈문장 다듬기〉

[2014년 10월 교육청 B형]

123.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¹²³⁾

〈 보 기 〉

우리말 특정 부사어는 서술어와의 호응이 매우 고정적이다. 그래서 부사어와 서술어 간의 호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이 된다.

- ① 그런 짓은 절대로 하지 마라.
- ② 나는 나대로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다.
- ③ 수지는 차마 친구에게 사실을 말하였다.
- ④ 이런 사건은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 ⑤ 이 시험에서는 반드시 직접 쓴 글을 제출해야 한다.

〈문장 다듬기〉

[2014년 7월 교육청 B형]

124. 다음 문장을 바르게 고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¹²⁴⁾

- ① 어제는 비와 바람이 많이 불었다.
→ 어제는 비가 내리고 바람이 많이 불었다.
- ② 너는 반드시 약속을 어겨서는 안 된다.
→ 너는 절대 약속을 어겨서는 안 된다.
- ③ 전체가 모여 회의를 갖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전체가 모여 회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④ 문제는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이 다른 곳으로 이동되었다.
→ 문제는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다.
- ⑤ 정의 사회 구현을 위해 모든 사회악을 뿌리 뽑아 근절해야 한다.
→ 정의 사회 구현을 위해 모든 사회악을 근절해야 한다.

〈문장 다듬기〉

[2014년 4월 교육청 B형]

125. B를 고려하여 A를 고친 문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¹²⁵⁾

A : 틀린 문장	B : 고쳐야 하는 이유	고친 문장
그는 슈퍼맨이라 불리우는 사람이다.	피동 표현이 잘못됨.	㉠
손님, 저쪽 방으로 들어가실게요.	화자의 약속, 의지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르게요'를 부적절하게 사용함.	㉡
그는 설레임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었다.	'설레다'의 명사형이 잘못됨.	㉢
주호는 나보다 책을 더 좋아한다.	비교하는 대상이 불분명함.	㉣
지금 보고 계신 제품은 올해 신상품이셔요.	높임 표현이 잘못됨.	㉤

- ① ㉠ : 그는 슈퍼맨이라 불리는 사람이다.
- ② ㉡ : 손님, 저쪽 방으로 들어가세요.
- ③ ㉢ : 그는 설렘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었다.
- ④ ㉣ : 주호는 책을 나보다 더 좋아한다.
- ⑤ ㉤ : 지금 보고 계신 제품은 올해 신상품이에요.

〈문장 다듬기〉

[2014년 3월 교육청 B형]

126. ㉠~㉤의 문장을 고쳐 쓴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¹²⁶⁾

	잘못된 문장	고쳐 쓴 문장
㉠	이는 미리 예상했던 일이다.	이는 예상했던 일이다.
㉡	나는 어제 친구와 의논했다.	나는 어제 친구와 그 일을 의논했다.
㉢	나는 눈이 시리도록 파란 하늘을 보았다.	나는 파란 하늘을 눈이 시리도록 보았다.
㉣	이 책은 쉽게 읽혀진다.	이 책은 쉽게 읽힌다.
㉤	선생님께서서는 귀여운 따님이 계십니다.	선생님께서서는 귀여운 따님이 있으십니다.

- ① ㉠ : 비슷한 의미의 단어가 중복되어 사용되었다.
- ② ㉡ :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적절하지 않다.
- ③ ㉢ : 문장의 의미가 중의적으로 해석된다.
- ④ ㉣ : 이중피동이 사용되었다.
- ⑤ ㉤ : 높임법의 표현이 잘못 사용되었다.

〈문장 다듬기〉

[2013년 10월 교육청 B형]

127. <보기>의 (가)~(다)를 고친 이유에 따라 짝지은 결과로 적절한 것은?⁽¹²⁷⁾

〈 보 기 〉

(가) 나는 그에게 곧 가겠다고 말했다.
→ 나는 그에게 곧 가겠다고 말했다.

(나) 실내에서 답답할 때에는 창문을 열어 공기를 환기해야 한다.
→ 실내에서 답답할 때에는 창문을 열어 환기해야 한다.

(다) 그는 이번 사태의 발생 원인과 재발 방지 계획을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 그는 이번 사태의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계획을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필요한 문장 성분 누락	의미 중복	조사의 잘못된 사용
①	(다)	(나)	(가)
②	(다)	(가)	(나)
③	(나)	(가)	(다)
④	(나)	(다)	(가)
⑤	(가)	(나)	(다)

〈문장 다듬기〉

[2013년 7월 교육청 B형]

128. 다음은 바른 문장 표현에 대한 학습 자료이다. 적절하게 고쳐 쓴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128)

필요한 문장 성분이 생략됨	문예 동아리는 창작 활동과 전시회를 열었다. → 문예 동아리는 창작 활동을 하고 전시회를 열었다. 다.....㉠
이중 피동이 사용됨	나는 선생님께 이름이 불려졌다. → 나는 선생님께 이름이 불렸다.....㉡
중의적 표현이 사용됨	아버지의 그림은 언제나 인기가 많다. → 언제나 아버지의 그림은 인기가 많다.....㉢
조사를 잘못 사용함	나는 오늘 아침 나무에게 물을 주었다. → 나는 오늘 아침 나무에 물을 주었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

〈문장 다듬기〉

[2013년 4월 교육청 B형]

129. 다음은 틀리기 쉬운 문장에 대한 탐구 학습지이다. 과제를 수행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129)

탐구 학습지

과제 : 다음 [탐구 자료]를 [과제 수행표]에 맞게 고쳐 쓰시오.

[탐구 자료] 틀리기 쉬운 문장

- ㉠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서 여간 기뻐다.
- ㉡ 나는 주중에는 자전거를, 주말에는 수영을 한다.
- ㉢ 버스가 왼쪽으로 좌회전한 후, 정류장에 정차하였다.
- ㉣ 우리 학교는 도서관을 매일 개방하게 하고 있습니다.
- ㉤ 그 문제는 어려워서 풀리지 않았다.

[과제 수행표]

자료	고쳐야 하는 이유	고친 문장
㉠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이 올바르지 않음.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서 여간 기쁘지 않았다. ①
㉡	필요한 문장 성분이 생략됨.	나는 주중에는 자전거를 타고, 주말에는 수영을 한다. ②
㉢	불필요하게 의미가 중복됨.	버스가 좌회전한 후, 정류장에 정차하였다. ③
㉣	사동 표현을 부적절하게 사용함.	우리 학교는 도서관을 매일 개방시키고 있습니다. ④
㉤	이중 피동을 사용함.	그 문제는 어려워서 풀리지 않았다. ⑤

〈문장 다듬기〉

[2013년 3월 교육청 B형]

130. 다음은 자연스러운 문장 표현을 위한 학습 자료이다. ㉠~㉤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130)

- 문제는 일을 끝마치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 문제이다. ㉠
- 나는 그에게 좋은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고 말했다. ㉡
- 나는 학급 회장으로써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
- 나는 성실한 그의 동생을 어제 만났다. ㉣
- 이번 주 금요일에 학급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

- ① ㉠ : '문제'가 주어와 서술어에 중복되어 나타나므로, '걸린다는 점이 문제이다'를 '걸린다는 점이다'로 고친다.
 ② ㉡ : '소개시켜'는 불필요하게 사동 표현이 사용된 것이므로 '소개해'로 고친다.
 ③ ㉢ : '으로서'는 도구나 수단을 나타내므로 자격을 나타내는 '으로서'로 고친다.
 ④ ㉣ : '성실한'의 수식 대상이 불분명하므로, 수식 대상이 '동생'일 경우에는 '성실한 그의, 동생'으로 수식 대상이 '그'일 경우에는 '성실한, 그의 동생'으로 고친다.
 ⑤ ㉤ : '회의를 갖다'는 번역체 표현이므로 '가질'을 '할'로 고친다.

〈문장 다듬기〉

[2009년 3월 교육청]

131. <보기>의 ㉠~㉤을 고쳐 쓰기 위해 제시한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131)

〈 보 기 〉

16세기 말 영국 탐사대의 일원인 과학자 해리엇은 인디언 부락을 지나다가 많은 인디언들이 영문도 모르고 죽어가는 모습을 목격하였다. ㉠인디언들은 죽은 자의 영혼은 자신의 마을을 떠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 인디언들은 영국인의 몸에 있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죽어갔던 것이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몰랐던 인디언들은 누군가 보이지 않는 총알을 쏘아대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후 미생물의 존재를 밝혀낸 유럽의 과학자들은 1890년대에 이르러 바이러스의 존재도 확인되었다. 웰스의 소설 『우주전쟁』은 바로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제작되었다. 이 소설은 지구를 초토화시키던 외계인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 자멸하는 ㉤내용의 결말로 끝을 맺고 있다.

- ① ㉠은 글의 통일성을 해치므로 삭제해야겠어.
 ② ㉡은 앞뒤 문장을 자연스럽게 연결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런데'로 바꿔야겠어.
 ③ ㉢은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자연스럽지 않으니 '확인되었다'를 '확인된 것이다'로 고쳐야겠어.
 ④ ㉣은 '제작'이라는 말이 어색하므로 '창작되었다'로 바꿔야겠어.
 ⑤ ㉤은 의미의 중복을 피하여 '내용으로 끝을 맺고 있다'로 고쳐야겠어.

〈문장 다듬기〉

[2005년 10월 교육청]

132. <보기>의 글을 쓴 다음 고쳐 쓰기를 위해 자기 평가를 해 보았다. 자기 진단 결과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132)

〈 보 기 〉

우리들의 제안 : 휴지 대신 손수건을 쓰자

나는 부모님을 따라서 작년부터 손수건을 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다소 번거로웠지만 지금 와서 보니 전혀 불편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그만큼 종이를 아껴서 환경을 보호하는 데 기여했다는 생각에 뿌듯한 기분을 갖게 된다. ㉡ 우리는 ㉢습관적으로 휴지를 마구 뽑아 쓴다. 그것도 한 장도 아닌 두 장, 석 장씩이나 뽑아 쓴다. ㉣손 닦으려고 한 장, 입 닦으려고 한 장, 칫솔 닦으려고 한 장 이런 식이다.

집안에 잠자고 있는 손수건이 적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단지 조금 귀찮다는 이유로 갖고 다니지 않았다. 이제부터 우리 모두 손수건을 한 장씩 주머니에 넣고 다니자.

평가 항목	자기 진단 결과
① 내용의 보완·삭제	글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 ㉡ 다음에 다른 일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 사례를 덧붙여야겠어.
② 문단의 구분	㉡ 이후에서 앞부분과 내용이 달라지니 여기서 문단을 나누어야겠지.
③ 문장의 성분	㉡에는 목적어가 없어 어색하므로 '손수건을'이라는 목적어를 넣는 게 좋겠어.
④ 어휘의 쓰임	㉢은 '습관적으로'로 고쳐야겠지.
⑤ 띄어쓰기	㉠은 띄어쓰기가 잘못되었으므로 '않을 뿐만'으로 고쳐야겠어.

1) ③

[출제의도] 품사 분류 기준을 이해한다.

품사 분류 기준 중 '형태'는 형태의 변화 여부를 말하므로 '깊다'와 '모르다'는 가변어, 나머지는 불변어이다. '기능'은 문장 내에서 하는 역할이므로 '호수', '강', '누구', '깊이'는 주어 가 될 수 있는 체언이며, '깊다'와 '모르다'는 주로 서술어 역할을 하는 용언이며, '가, 의, 는, 도'는 조사이므로 관계언이다. '의미'는 개별 단어가 갖는 의미가 아니라 품사 전체가 갖는 의미로서 명사는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 형용사는 '사물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과 같은 것이다. 이에 따르면, '깊다'는 형용사, '모르다'는 동사, '호수, 강, 깊이'는 명사, '누구' 대명사, '가, 의, 는, 도'는 조사로 분류된다.

2) ⑤

[출제의도] 각 품사의 특징 파악

정답 해설 : 이 문항은 다양한 지시어가 쓰인 담화를 제시한 후, 각각의 지시어들의 의미기능에 대해 탐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답은 ⑤로, ㉞의 '저희'는 1인칭 복수 '우리'의 낮춤말이 아니라, 앞에서 이미 말하였거나 나온 바 있는 사람들을 도로 가리키는(재귀) 3인칭 대명사이다. 여기에서는 '우리 집 아이들', 즉 '선생님의 아이들'을 가리킨다. 정답 ⑤

[오답파하기] ① ㉞의 '이것'은 학생이 손에 들고 있는 책을 가리킨다. ② ㉞의 '그것'은 할아버지께서 생일마다 사 주신 책들을 가리킨다. ③ ㉞의 '당신'은 2인칭이 아니라, '앞에서 이미 말하였거나 나온 바 있는 사람을 도로 가리키는 3인칭 대명사'인 '자기'를 높여 이르는 말이다. 예를 들어, "철수는 자기가 가겠다고 했다."에 쓰인 '자기'와 "선생님께서도 당신께서 가겠다고 했다."에 쓰인 '당신'을 비교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㉞의 '당신'은 할아버지를 가리키며 3인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④ ㉞의 '우리'는 선생님 혹은 선생님의 가족을 가리키기 때문에 청자(학생)를 포함하지 않는다.

3) ②

㉞의 '그쪽'과 ㉞의 '당신'은 공통적으로 <보기>에서 '나'의 말을 듣는 이를 가리킨다. 즉, ㉞과 ㉞은 가리키는 대상이 같으므로 ②가 옳은 설명이다.

① ㉞의 '내'는 '나'에 주격 조사 '이'가 결합된 형태이다.
③ ㉞의 '우리'는 말하는 이가 자기보다 높지 아니한 사람을 상대하여 어떤 대상이 자기와 친밀한 관계임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다. ㉞ 우리 엄마, 우리 신랑, 우리 아기

④ ㉞은 <보기>에서 말하고 있는 '나'의 아버지이므로 대명사로 바꾸기 어렵다. 우리말은 말하고 있는 당사자가 자신의 아버지나 어머니 같은 대상을 대명사로 지칭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㉞ 너의 어머니는 어디에 가셨니?

→ r 그녀는 백화점에 가셨습니다. (x)

↳ 어머니는 백화점에 가셨습니다. (o)

⑤ ㉞의 '당신'은 바로 앞의 '아버지'를 높여 이르는 말로 쓰였기 때문에 높임법에 맞는 표현이다. 즉, 이때의 '당신'은 앞에서 이미 말하였거나 나온 바 있는 사람을 도로 가리키는 대명사인 '자기'를 아주 높여 이르는 말이다.

4) ①

①에서 '가'의 '저희'는 '우리'의 낮춤말로서 1인칭 대명사이고 '나'의 '저희'는 '애들'을 가리키는 3인칭 대명사(재귀대명사)이다.

5) ①

[출제의도] 지시 대상에 따라 인칭대명사의 종류를 구별한다.

<보기 1>의 설명을 바탕으로 <보기 2>의 ㉞을 보면, 문 앞의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려는 상황이므로 이때의 '누구'는 미지칭 대명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부정칭 대명사로 파악한 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㉞은 자신을 낮추는 일인칭 대명사, ㉞은 미지칭대명사, ㉞은 앞에 나온 삼인칭 주어인 할머니를 다시 받는 재귀대명사, ㉞은 이인칭 대명사이다.

6) ①

[출제의도] 대명사의 문법적 기능을 구체적 사례로 확인하는 문제이다.

①의 '무엇'은 화단에 있는 꽃의 이름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므로 <보기>의 '모르는 사실이나 사물을 가리키는 경우'의 사례로 적절하다. ②는 특별히 정해져 있는 음식이 아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정하지 않은 대상이나 이름을 밝힐 필요가 없는 대상'을 가리키는 사례에 해당한다.

7) ③

[출제의도] 각 품사의 특징 파악

이 문항은 조사 '에', '에서'의 국어사전 뜻풀이 및 용례를 제시한 후 그에 대해 탐구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정답은 ③으로, '에서'는 단체를 나타내는 명사 뒤에 붙어 주격 조사로 쓰일 때의 뜻풀이임에 비해 ③에서 제시한 문장은 '에서'가 처소의 부사어를 나타내는 격 조사로 쓰이는 '에서'의 용례에 해당한다. '에서'의 용례로는 "이번 대회는 우리 학교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정부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정도를 들 수 있다. 정답 ③

[오답]

① 제시된 뜻풀이를 보면 '에'는 .에서 접속 조사로 쓰일 수 있음에 비해, '에서'는 격 조사로 쓰이는 뜻풀이만 제시되어 있다.

② '에.'는 둘 이상의 사물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접속 조사의 뜻풀이라는 점에서 제시된 "오늘 저녁은 밥에, 국에, 떡에 아주 잘 먹었다."는 타당한 용례이다.

④ '에.①'의 용례, "동생은 지금 집에 없다."에서 '집에'를 '집에서'로 바꾸어 쓸 수 없음은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⑤ "형은 방금 집에 왔다."와 "형은 방금 집에서 왔다."를 비교해 보면 문장의 의미가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다. 전자는 '에'가 앞말이 진행 방향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조사로 쓰인 것이고, 후자는 '에서'가 앞말이 출발점의 뜻을 갖는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로 쓰인 것이다.

8) ①

'미연(未然)'은 사용상 원칙적으로 '미연에' 꼴로 쓰여 어떤 일이 아직 그렇게 되지 않은 때를 의미하는 어휘이다. 따라서 '결합되는 조사의 종류'라는 측면에서 볼 때 '에' 외의 조사와는 결합하지 않는 '극비리'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 어휘라고 할 수 있다. 정답 ①

9) ③

[출제의도] 각 품사의 특징 파악

이 문항은 격 조사와 보조사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격 조사와 보조사를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고 있다. 정답은 ③으로, '친구한테'의 '한테'는 어떤 행동이 미치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이다. '에게'보다 구어적인 말로, 부사격 조사에 해당한다. '한테'는 다른 문장 성분에는 쓰일 수 없는데, 예를 들어 '내가'를 대신하여 '나한테'를 쓰면 해당 문장 성분의 격이 주격에서 부사격으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한테'는 부사격 조사로만 쓰이는 격 조사에 해당하며 보조사가 아니다.

[오답]

① '밤에만'의 '만'은 다른 것으로부터 제한하여 어느 것을 한정함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② '오늘은'의 '은'은 '선수들은', '간식은'과 같이 다른 문장 성분에도 쓰일 수 있으므로 보조사에 해당한다.

④ '악기도'의 '도'는 이미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함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⑤ '책으로까지'의 '까지'는 '도'와 비슷한 의미를 지녀, 이미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함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10) ④

㉞의 괄호에서 '도'가 아닌 '는'이 선택된 기준은 앞에 언급한 할아버지를 지정하여 가리키기 위함이지 돼지를 싫어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이 아니다.

11) ④

⑥ '오늘은 그냥 간단만 다음에~'의 경우, 문장이 자연스럽고 종결 어미 뒤에 붙어 있기 때문에, '마는'이 들어가야 한다. ④ '얼마나 되겠느냐만 살림에~'의 경우, 문장이 자연스럽고 종결 어미 뒤에 붙어 있으므로 '-마는'이 들어가야 한다.

12) ④

조사의 앞말에 받침이 있으면 '과'이고, 조사의 앞말에 받침이 없으면 '와'이다. 즉, '와/과'는 앞말의 받침 여부에 따라 선택된다. 따라서 '와/과'가 앞말의 의미에 의해 선택된다는 ④는 적절하지 않다.

13) ④

'요'는 단어가 지니고 있는 뜻을 바꾸지는 않으면서 존대의 의미를 담고 있는 어미이다. 그런데 '요'는 '갈까요', '빨라요', '더우면요', '마음은요' 등처럼 종결 어미, 부사어, 연결어미, 주어 등에 쓰여도 듣는 사람을 존대한다. 따라서 종결 어미 뒤에 쓰일 때만 듣는 사람을 존대한다고 한 ④는 적절하지 않다.

14) ②

[출제의도] 사전 활용하기

'울챙이가 개구리가 되었다.'에서 '개구리가'의 '가'는 '로'로 바꾸어 쓸 수 있다. 하지만 '개[1]'를 통해 볼 때, ⑥의 '가'는 '되다' 앞에 쓰여 바뀌게 되는 대상을 나타낸 것이지, '아니다' 앞에 쓰여 부정하는 대상을 나타낸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15) ④

㉞은 접근의 의미를 지니지만 ㉞은 '있다'라는 서술어와 어울려 존재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16) ③

[출제의도] '-에서'의 의미에 따른 구체적 사례를 찾는 문제이다.

a의 '-에서'는 '고마운 마음'이 '말씀'을 '드리는' 근거가 되게 하고, d의 '-에서'는 '일'을 '행한' 근거가 '보탬'이라도 되고자 하는 뜻이 되게 하므로 ㄱ에 해당한다. b와 c의 '-에서'는 각각 '동창회'와 '도서관'이 처소가 되게 하므로 ㄴ에 해당하고, e의 '-에서'는 어떤 상황이 '죽은 부모가 살아 돌아온다'는 상황과 비교가 되게 하므로 ㄷ에 해당한다.

17) ①

- 가.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
다친 사람은 다행히 없었다.
다친 사람은 없었다, 다행히.
- 나. 다친 사람이 없었다니 다행이다.

위의 예로 보아 '다행히'는 <보기>에서 설명한 '의외로'와 같은 특징을 지닌다.

[오답]

②의 '그리고'는 문장 부사 중 접속 부사이고, ③, ④, ⑤의 밑줄 친 부사는 문장의 어느 한 성분만 수식하는 성분 부사이다.

18) ④

[출제의도] 단어의 의미에 따라 품사를 구분한다.

<보기>는 하나의 단어가 동사와 형용사 두 가지로 쓰이는 경우를 설명하고 있다. ④의 '기대가 크다'에서 '크다'는 기대나 생각이 보통 정도를 넘는다는 뜻으로 상태를 나타내므로 형용사이다. '쑥쑥 크다'에서 '크다'는 '자라다'의 뜻으로 작동을 나타내므로 동사이다.

19) ③

[출제의도]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문법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③ '온다'는 모두 동사로 사용되어 '품사 통용'에 적용되는 사례로 볼 수 없다.

20) ⑤

[출제의도] 도표를 바탕으로 다양한 용례를 떠올리며 탐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이다.

<보기>의 선생님의 말대로 '있다', '없다'는 동사와 형용사, 두 품사의 활용 방식을 보이는 단어이다. 이를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이므로 '있다', '없다'를 <보기>에 제시한 어미와 결합시켜 확인하면서 용례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면 해결할 수 있다. ⑤ '없다'는 '있다'와 청유형을 취할 수 있으나에서는 차이가 난다. 예컨대 "우리 여기에 있자."라는 말은 일상에서 흔히 하는 말이다. 그러나 "우리 여기에 없자."라는 말은 어법에 어긋난다. 따라서 '없다'라는 말은 청유형에 있어서 형용사의 성격을 가진 단어이다.

[오답]

- ① '있는 사람', '있는 집안' 등에서 보듯이 현재형 관형사형 어미를 취할 수 있다. 따라서 동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 ② '없는 사람', '없는 집안' 등에서 보듯이 현재형 관형사형 어미를 취할 수 있다. 따라서 동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 ③ '사람이 없구나'와 같은 말에서 볼 수 있듯이 감탄형 어미를 취할 수 있다. 따라서 형용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 ④ '여기에 있자.'와 같은 말에서 볼 수 있듯이 청유형 어미를 취할 수 있다. 따라서 동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21) ③

'글썽'라는 감탄사는 남의 물음이나 요구에 대하여 분명하지 않은 태도를 나타낼 때 쓰는 말이다. <보기>에서 볼 때, 아버지가 아들을 상대로 했을 때는 ㉠ '글썽'의 형태로, 아들이 아버지를 상대로 했을 때는 ㉡ '글썽요'라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는 감탄사도 상대에 따라 다른 형태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것이므로 ③은 적절한 설명이다.

22) ③

문장 성분 분석 적용

정답해설 : 이 문항은 <보기>에서 어말 어미를 종결 어미(㉠), 연결 어미(㉡), 전성 어미(㉢)로 구분하여 설명한 뒤, 개별 사례에 적용하여 탐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고 있다. 종결 어미는 한 문장을 종결되게 하는 어말 어미로 그 종류에 따라 평서형 종결 어미, 감탄형 종결 어미, 의문형 종결 어미, 명령형 종결어미, 청유형 종결 어미로 나눌 수 있다. <보기>에 제시된 ㉠ '읽었다'의 '-다'는 평서형 종결 어미에 해당한다. 연결 어미는 용언의 어간에 붙어 다음 말에 연결하는 구실을 하는 어말 어미로 두 문장을 연결해 주는 기능을 한다. 끝으로, 전성 어미는 용언의 어간에 붙어 다른 품사의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어말 어미로 명사 전성 어미, 관형사 전성 어미와 부사 전성 어미로 나뉘며 <보기>에 제시된 ㉢ '읽을'의 '-을'은 관형사 전성 어미에 해당한다. 정답은 ③으로, '가는'의 '-는'은 ㉡의 연결 어미가 아닌 ㉢의 전성 어미, 그중에서도 관형사 전성 어미에 해당한

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도착했겠구나'의 '-구나'는 흔히 감탄의 뜻을 지니며, 해라할 자리나 혼잣말에 쓰여, 화자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에 주목함을 나타내는 어말 어미로 종결어미(㉠)에 해당한다. ② '오시지?'의 '-지'는 어떤 사실을 물을 때 쓰이는 어말 어미로 종결 어미(㉡)에 해당한다. 맥락에 따라 '-지'가 어떤 사실을 긍정적으로 서술하거나 명령하거나 제안하는 등의 의미로도 쓰이는데, 이 경우에도 모두 종결 어미(㉡)에 해당한다. ④ '먹었으나'의 '-으나'는 앞 절의 내용과 뒤 절의 내용이 서로 다름을 나타내는 어말 어미로, 두 문장을 연결해 주는 연결 어미(㉢)에 해당한다. ⑤ '운동하기에'의 '-기'는 용언의 어간 '운동하-'에 붙어 그 말이 명사 구실을 하게 하는 어말 어미로, 전성 어미(㉢)에 해당한다.

23) ②

[출제의도] 사전을 활용하여 단어의 특성을 이해한다.
'추석을 맞아 온 가족이 모였다.'의 '맞아'는 맞다2의 「2」의 용례에 해당한다.

24) ②

[출제의도] 한글 맞춤법 규정 파악하기
'치러'는 '치르다'가 기본형으로, '치르-'가 어미 '-어'와 결합하여 활용할 때, 어간의 '-이'가 탈락한 것이다. ②의 '잠가' 역시 '잠그다'가 기본형으로, '잠그-'가 어미 '-아'와 결합하여 활용할 때, 어간의 '-이'가 탈락한 형태이므로 ㉠의 사례로 적절하다.

[오답]

- ① '깨우다'가 '깨워'가 된 것은 규칙 활용으로, 모음이 축약된 형태이다.
- ③ '굽다'가 '구워'가 된 것은 ㅂ불규칙 활용이다.
- ④ '하얗다'가 '하얘'가 된 것은 ㅎ불규칙 활용이다.
- ⑤ '들다'가 '들어'가 된 것은 ㄷ불규칙 활용이다.

25) ③

[출제의도]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 이해하기
"한쪽으로 휘어져 있다."라는 뜻의 '굽다'와 "불에 익히거나 타게 하다."라는 뜻의 '굽다'는 동음이의 관계의 용언들이다. 이 용언들을 활용시키면 "한쪽으로 휘어져 있다."라는 뜻을 지닌 '굽다'는 '굽어서'로 활용되는 규칙 활용을 하지만, "불에 익히거나 타게 하다."라는 뜻의 '굽다'는 '구워서'로 활용되어 어간 '굽-'의 'ㅂ'이 '우'로 바뀌는 불규칙 활용을 한다.

[오답]

- ① "병이나 상처 따위가 고쳐져 본래대로 되다."라는 뜻의 '낫다'와 "보다 더 좋거나 앞서 있다."라는 뜻의 '낫다'는 동음이의 관계의 용언들이다. 이 용언들을 활용시키면 "병이나 상처 따위가 고쳐져 본래대로 되다."라는 뜻의 '낫다'와 "보다 더 좋거나 앞서 있다."라는 뜻의 '낫다'는 모두 '나아서'로 활용되어 어간 '낫-'의 'ㅅ'이 탈락하는 불규칙 활용을 한다.
- ② "발라 놓거나 바느질한 것 따위가 반반하지 못하고 우글쭇글쭇하다."라는 뜻의 '울다'와 "슬프거나 아프거나 너무 좋아서 견디다 못하여 소리를 내면서 눈물을 흘리다."라는 뜻의 '울다'는 동음이의 관계의 용언들이다. 이 용언들을 활용시키면 "발라 놓거나 바느질한 것 따위가 반반하지 못하고 우글쭇글쭇하다."라는 뜻의 '울다'와 "슬프거나 아프거나 너무 좋아서 견디다 못하여 소리를 내면서 눈물을 흘리다."라는 뜻의 '울다'는 모두 '울어서'로 활용되는 규칙 활용을 한다.
- ④ "미리 알려주다."라는 뜻의 '이르다'와 "어떤 장소나 시간에 닿다."라는 뜻의 '이르다'는 동음이의 관계의 용언들이다. 이 용언들을 활용시키면 "미리 알려주다."라는 뜻의 '이르다'는 '일러서'로 활용되어 어간 '이르-'에서 '-이'가 탈락하고 '르'이 생기는 불규칙 활용을 한다. "어떤 장소나 시간에 닿다."라는 뜻의 '이르다'는 '이르러서'로 활용되어 어간 '이르-'에 기본 형태의 어미 '-어서'가 결합되지 않고 '-러서'가 결합되는 불규칙 활용을 한다.
- ⑤ "불이 붙어 불길이 오르다."라는 뜻의 '타다'와 "탈것이나 짐승의 등 따위에 몸을 엮다."라는 뜻의 '타다'는 동음이의 관계의 용언들이다. 이 용언들을 활용시키면 "불이 붙어 불길이 오르다."라는 뜻의 '타다'와 "탈것이나 짐승의 등 따위에 몸을 엮다."라는 뜻의 '타다'는 모두 '타서'로 활용되는 규칙 활용을 한다.

26) ②

[출제의도] 한글 맞춤법 규정을 이해한다.
'쏟다'의 활용형이 '쏟은'이라는 데에서 어간 끝이 'ㄷ'인 용언이 관형사형 어미 '-은'과 결합할 때 'ㄷ'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들다'의 활용형이 '들은'이라는 데에서 'ㄷ'이 'ㄹ'로 교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내밀다'의 활용형이 '내민'이고, '부풀다'의 활용형이 '부푼'이라는 데에서 어간 끝이 'ㄹ'인 용언에 관형사형 어미 '-니' 결합하면 'ㄹ'이 탈락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7) ②

'파래서'는 어간인 '파랗-', 어미인 '-아서'의 형태가 모두 변해, 어간과 어미가 모두 바뀐 불규칙 활용에 해당한다.

[오답]

- ① '오너라'는 어간 '오-'에 명령형 어미가 결합될 때 '-아라'가 아닌 '-너라'로 활용한다. 따라서 어미가 불규칙하게 변하는 활용에 해당한다.
- ③ '지어'는 어간 '짓-'에 어미 '-어'가 결합할 때 어간 '짓-'에서 'ㅅ'이 탈락하므로 어간이 변하는 불규칙 활용에 해당한다.
- ④ '묻다'는 어간 '묻-'에 어미 '-어'가 결합할 때 '묻-'이 '물-'로 변하므로 어간이 변하는 불규칙 활용에 해당한다.
- ⑤ '하다'는 어간 '하-'에 어미 '-어'가 결합하므로 어미가 불규칙하게 변하는 활용에 해당한다.

28) ④

[출제의도] 용언의 활용형과 준말의 형태 및 특성 추론하기

ㄱ과 ㄴ의 활용형의 준말이 다른 것은 ㄱ은 '흔하지'의 어간에서 '하'의 'ㅈ'가 탈락하고, 'ㅎ'과 어미 '-지'가 결합하여 '치'가 되기 때문이고, ㄴ은 '섭섭하지'의 어간에서 '하'가 탈락하기 때문이다. 이는 뒤에 오는 어미의 첫소리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간에서 '하'의 앞 음절과 관련이 있다.

[오답]

- ① ㄱ의 경우 '흔하지'가 '흔치'로 주는 것은 '흔하지'의 어간에서 '하'의 'ㅈ'가 탈락하고, 'ㅎ'과 어미 '-지'가 결합하여 '치'가 되기 때문이다.
- ② ㄴ의 경우 '섭섭하지'가 '섭섭지'로 주는 것은 어간의 '하'가 탈락하기 때문이다.
- ③ ㄴ의 경우 '이러하지'가 '이렇지'가 되는 것은 어간에서 '하'의 'ㅈ'가 탈락하고 남은 'ㅎ'이 앞 음절 끝소리에 붙었기 때문이다.
- ⑤ ㄹ의 경우 '삼가지'의 준말이 없는 것은 원형이 '삼가다'로 어간에 원래부터 '하'가 없었기 때문이다.

29) ①

[출제의도] '-니다/-는다'가 쓰이는 환경을 분석하는 문제이다.

'뵈진다, 온다, 잔다'는 받침 없는 동사 어간 뒤에 '-니다'가 쓰인 경우이고, '묻다, 운다, 만든다'는 'ㄹ' 받침인 동사 어간 뒤에 '-니다'가 쓰인 경우이다. '웃으신다, 감으신다, 막으신다'는 선어말어미 '으시' 뒤에 '-니다'가 쓰인 경우이고, '웃는다, 감는다, 막는다'는 받침 있는 동사의 어간 뒤에 '-는다'가 쓰인 경우이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30) ②

비문의 유형 및 해소

정답해설 : 이 문항은 '서술어 자릿수'의 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서술어가 요구하는 문장 성분이 빠져 문법적으로 정확하지 못한 문장을 올바른 문장으로 수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있다. ②에 제시된 '문제는 우리가 예의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문장은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하지 않아 문법적으로 정확하지 못한 문장이 된 경우로, 이를 '문제는 우리가 예의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다.'라고 수정한 것은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을 보충함으로써 문장을 정확하게 고친 경우가 아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서술어 '요청하다'는 [...에/에게 ...을]의 꼴로 쓰여, 부사어와 목적어를 요구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다. '그들은 양식이 다 떨어지자 식량 공급을 요청했다.'에는 부사어가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정부에'를 보충하여 문법적으로 정확한 문장으로 수정한 것이다. ③ 서술어 '소개하다'는 [...에/에게 ...을]의 꼴로 쓰여, 부사어와 목적어를 요구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다. '나는 오늘 점심을 먹으면서 내 친구를 소개하였다.'에는 부사어가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누나에게'를 보충하여 문법적으로 정확한 문장으로 수정한 것이다. ④ 서술어 '삼다'는 [...을 ...으로]의 꼴로 쓰여, 목적어와 부사어를 요구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다. '우리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지금보다 강해질 것이다.'에는 목적어가 없었으므로 '그 일들'을 보충하여 문법적으로 정확한 문장으로 수정한 것이다. ⑤ '어떤 분야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다.'의 뜻을 지니는 서술어 '어둡다'는 [...에]의 부사어를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형은 이곳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두울 수밖에 없다.'에는 부사어가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동네 지리에'를 보충하여 문법적으로 정확한 문장으로 수정한 것이다.

31) ④

문장 성분 분석, 적용

정답해설 : 이 문항은 명사절이 문장 속에서 다양한 문장 성분으로 쓰이는 현상과 각각의 용례를 제시한 후 그에 대해 탐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답은 ④로, ㉠에서 명사절 '겨울이 오기'에 조사가 결합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명사절이 명사 '전(前)'을 수식하기 때문에 부사어가 아닌 관형어 역할을 한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명사절 '색깔이 희기'는 주격 조사 '가'와 결합하여 문장에서 주어로 쓰이고 있다. ② 명사절 '비가 오기'는 목적격 조사 '를'과 결합하여 문장에서 목적어로 쓰이고 있다. ③ 명사절 '자식이 행복하기'가 문장에서 목적어로 쓰이고 있으며, 목적격 조사 '를'은 생략되었다. ⑤ 명사절 '우리가 학교에 가기'는 부사격 조사 '에'와 결합하여 문장에서 부사어로 쓰이고 있다.

32) ③

각 품사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이 문항은 형태는 같지만 품사는 다른 단어에 대한 특성을 탐구하여 이를 특정 사례에 적용하여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고 있다. <보기 1>에서 ㉠의 '달리기'는 명사로서 관형어 '하는'의 수식을 받으며, ㉡의 '달리기'는 동사로서 부사어 '빨리'의 수식을 받는다. <보기 2>에서 ㉢과 품사가 같은 것, 즉 명사인 것은 ㉣와 ㉤인데, ㉣는 '추-'에 접미사 '-(으)ㄹ'이 붙은 명사로서 관형어 '현란한'의 수식을 받으며, ㉤는 '견-'에 접미사 '-(으)ㄹ'이 붙은 명사로서 관형어 '학생들의'의 수식을 받는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는 '웃-'에 명사형 어미 '-(으)ㄹ'이 붙은 동사로서 부사어 '멋쩍게'의 수식을 받으며, ㉦는 '그리-'에 명사형 어미 '-(으)ㄹ'이 붙은 동사로서 부사어 '잘'의 수식을 받는다.

33) ②

<보기>의 s은 부사어 '식당에서'를 제외한 '학생들이 점심을 먹는다.'라는 것만으로도 문법적으로 올바른 문장이 성립될 수 있다. 결국, 필수 문장 성분은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이렇게 세 개다.

34) ②

[출제의도] 주어의 의미와 기능을 이해한다.

주격 조사 '께서'는 주어(주체)가 높임의 대상일 때 붙는 것으로, 서술어의 자릿수와는 상관없다.

[오답]

- ① 주어는 서술어의 주체를 나타내는 말로, '무엇이 어찌한다'에서 '무엇이'에 해당한다.
- ③ ㉠에서는 서술어 '했다'의 주어가 문맥상 '나'임이 분명하므로 생략되었다.
- ⑤ '친척도 서로 만나기'는 명사절로 그것이 포함된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하고 있다.

35) ②

[출제의도] 부사어의 특성 파악하기

자료를 통해 부사어가 체언(은수)뿐만 아니라 부사어(잘)도 꾸밈을 알 수 있다. 부사어는 '가수'처럼 반드시 필요한 필수 부사어도 있고, '정말'처럼 서술어의 의미를 강조할 수 있다. 또한 '무척이나'처럼 보조사 '-이나'와도 결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쉬는 시간에'라는 부사어는 ㉠에 넣어도 의미의 차이가 없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36) ⑤

[출제의도] 국어의 관형어 유형을 이해한다.

㉠는 체언 단독으로 관형어를 형성하는 유형이다. ㉡는 '만나다'의 어간 '만나-'와 관형사형 어미 '-ㄴ'이 결합하여 관형어를 형성하였다. ㉢는 관형사가 곧바로 관형어가 된 유형이다. ㉣는 체언 '때'에 관형격조사 '의'가 결합하여 관형어를 형성하였다. ㉤는 관형사가 곧바로 관형어가 된 유형이다. 그러므로 정답은 ⑤이다.

37) ②

[출제의도] 어휘가 지닌 의미와 쓰임을 파악한다.

'받다'는 타동사 및 자동사로, 서술어로 사용되면서 어떤 문장 성분을 취하는지에 따라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닌다. ㉠은 부사어 '가게에서'와 함께 사용되어 사람을 주어로 취했다. 그러나 ㉡은 부사어를 취하지 않았으나 ㉢에 생략된 주어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②는 적절하지 않다.

38) ⑤

정답해설 : 이 문항에서는 문장 성분과 문장의 구조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제시된 두 문장을 분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두 문장은 각각 '내가 노래 부르기', '이 지역 토양이 벼농사에 적합함'이라는 명사절이 '친구들은 원한다.'와 '우리는 몰랐다.'에 안겨 있는 겹문장이다. ㉠의 안긴문장 '내가 노래 부르기'에는 '노래(를)'라는 목적어가 있지만, ㉡의 안긴문장 '이 지역 토양이 벼농사에 적합함'에는 목적어가 없다. ㉢에서 '벼농사에'는 '적합함'이라는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부사어이지 목적어가 아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과 ㉡의 문장 성분을 큰 틀에서 분석해 보면, 각각 [주어 + 목적어(주어 + 목적어 + 서술어) + 서술어], [주어 + 목적어(주어 + 부사어 + 서술어) + 서술어]로 구분할 수 있는데, 부사어는 ㉢에만 나타날 뿐 ㉠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② ㉠과 ㉡은 모두 명사절로 안겨 있는 문장이며, 두 문장 모두에서 부사절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과 ㉡은 모두 명사절로 안겨 있는 문장이며, 두 문장 모두에서 서술절이나 관형절은 나타나지 않는다. ④ ㉠의 문장에는 관형어가 나타나지 않는다. ㉡의 문장에는 '이'가 '지역'을 수식하는 관형어로 쓰이고 있으며, '이 지역'이라는 구 역시 '토양'을 수식하는 관형어로 쓰인다.

39) ③

안긴 문장의 구조를 이해할 수 있어야 풀 수 있다. '담징은 이마에 흐르는 땀을 씻었다.'라는 문장은, '담징은 땀을 씻었다.'와 '땀이 이마에 흐른다.'라는 문장을 결합하여 안긴 문장을 만든 것이다. 따라서 '이마에 흐르는'의 주어는 '담징'이 아니라 '땀'이 되어야 적절하다.

40) ④
 정답해설 : <보기>의 (다)는 (가)가 (나)에 관형절로 안겨 만들어진 겹문장인데, 이때 (가)의 '민수'와 (나)의 '민수'가 중복되어 (다)의 관형절에서는 (가)의 주어 '민수가'가 실현되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④는 '정수가 은희와 결혼했다.'가 '나는 사실을 몰랐다.'에 관형절로 안기는 과정에서 중복되는 성분이 없기 때문에 겹문장을 형성할 때 원래 있던 주어 '정수가'가 생략되지 않았다. 따라서 ④는 ㉠에 해당하는 사례가 아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동생이 숙제를 한다.'가 '형이 동생을 불렀다.'에 관형절로 안기는 과정에서 '동생'이 중복되어 원래 있던 주어 '동생'이 생략되었다. ② '형이 대학생이 되었다.'가 '동생은 형과 여행을 했다.'에 관형절로 안기는 과정에서 '형'이 중복되어 원래 있던 주어 '형'이 생략되었다. ③ '경희가 버스에 탔다.'가 '영수가 경희에게 말을 걸었다.'에 관형절로 안기는 과정에서 '경희'가 중복되어 원래 있던 주어 '경희'가 생략되었다. ⑤ '화가가 이 그림을 그렸다.'가 '그는 화가의 전시회에 갔다.'에 관형절로 안기는 과정에서 '화가'가 중복되어 원래 있던 주어 '화가가'가 생략되었다.

41) ④
 [출제의도] 안긴문장의 종류 파악하기
 '일찍 먹기'는 명사절로 안긴문장으로 '일찍 먹기' 뒤에 붙은 '는'은 조사이다.

[오답]
 ③ '-기'라는 명사형 어미를 사용하여 만든 명사절이다.
 ⑤ '자기가 옳다고'는 간접 인용 조사 '고'가 쓰인 인용절이다.

42) ②
 [출제의도] 문장의 구조 이해하기
 ㄱ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므로 앞뒤 문장의 순서가 바뀌어도 의미가 동일하지만, ㄴ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므로 앞뒤 문장의 순서가 바뀌면 그 의미가 달라진다.

[오답]
 ① ㄱ은 두 문장이 대조의 관계로 이어진 문장이고, ㄴ은 조건의 의미 관계로 이어진 문장이다.
 ④ ㄴ은 안긴 문장이 안은 문장에서 목적어의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명사처럼 쓰인 경우이고, ㄴ은 안긴 문장이 '영수'를 꾸미는 역할을 하므로 명사를 꾸미는 관형사처럼 쓰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43) ②
 ㄱ의 '치면서'는 평서문과 어울리며 ㄴ의 '먹으면서'는 명령문, 청유문, 의문문과 자유롭게 어울린다. 따라서 '-(으)면서'는 다양한 문장 유형과 어울린다고 보아야 한다.

44) ④
 ④의 '밥 좀 먹읍시다'는 청자에게 조용히 해 달라는 요구를 하는 동시에 '밥을 먹는' 행위를 화자만 행하려는 의도가 들어있다고 할 수 있다. ㉠ ①, ②은 청자의 행동을 바라고 있고, ③ '같이'와 ⑤ '토의'라는 단어를 볼 때 서술어의 행동을 화자와 청자가 공동으로 행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5) ①
 문장의 종결 표현 파악
 정답해설 : 이 문항은 <보기 1>을 통해 우리말의 종결 표현 중 의문문에 대해 설명한 후, 의문문의 다양한 의미기능을 제시된 사례에 적용하여 탐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고 있다. 우리말의 의문문은 기본적으로 말하는 이가 듣는 이에게 질문을 하여 그에 대한 대답을 요구하는 문장이다. 여기에는 긍정이나 부정의 대답을 요구하는 판정의문문과 '몇, 얼마, 누구, 언제, 어디, 무엇, 왜' 등의 물음말이 포함되어 있어서 듣는 이에게 대답을 요구하는 설명 의문문, 그리고 굳이 물음에 대한 대답을 요구하지 않고 서술이나 명령의 효과를 내는 수사 의문문이 포함된다. 이렇게 볼 때, ㉠은 설명의문문에 대한 진술이며, ㉡은 수사 의문문 중에서도 명령의 효과를 내는 의문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답은 ①로, ㉢에는 '언제, 어디'의 물음말이 포함되어 있어 설명 의문문에 해당한다. 또한 ㉣는 '일어나지 못하겠나?'라는 의문문의 형식을 띠지만, 실제로는 '일어나라.'라는 명령의 의미를 담은 수사 의문문에 해당한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는 듣는 이로 하여금 긍정이나 부정의 대답을 요구하는 판정 의문문에 해당하며, ㉣는 억울한 일을 겪은 상황에서 자신의 느낌을 표현한 수사 의문문에 해당한다.

46) ③
 각 품사의 기능,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이 문항은 '아니요'와 '아니오'에 대한 탐구를 일반화하여 보조사 '요'와 종결 어미(어말 어미) '-오'의 문법적 특성을 도출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고 있다. 제시된 탐구 과정을 확인하면 '아니요'는 부정의 대답 '아니'에 보조사 '요'

가 붙어 된말이고, '아니오'는 '아니다'의 어간 '아니-'에 종결 어미 '-오'가 붙어 된 말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에는 종결 어미 '-오'의 문법적 특성에 대한 진술이 제시되어야 한다. 정답은 ③으로, "당신이 와서 기쁘오.", "건강이 가장 중요하오." 등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평서문에서도 종결 어미 '-오'가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마지막의 '적용' 단계에 제시된 빈칸에는 '요'가 아닌 '-오'가 와서 '안 되오'가 되어야 한다. '되다'의 어간 '되-'에 종결 어미 '-오'가 붙은 형태이기 때문이다. 만일 빈칸에 '요'가 올 수 있기 위해서는 '되어'의 준말 '돼'에 보조사 '요'가 붙은 '돼요'의 형태가 제시되어야 한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오'는 종결 어미이기 때문에 어간에 붙는다는 진술은 타당하다. '아니-', '기쁘-' 등은 모두 어간이며 여기에 '-오'가 붙어 '아니오', '기쁘오'로 실현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② '멈추시오'는 '멈추 + -시- + -오'로 분석되어 '용언 어간+ 선어말 어미 + 종결 어미'의 구조인데, 이를 통해 '-오'가 선어말 어미에 붙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오'를 뺀 상태의 문장을 확인해 보면, "얼마나 기쁘?", "일단 멈추시."처럼 문장이 성립하지 않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⑤ '가십시오, 가오, 가게, 가라(가렴, 가려무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오'는 상대방을 보통 정도로 높이는 기능을 한다. 즉, '-오'는 상대 높임법의 하오체에서 쓰이는 종결 어미이다.

47) ②
 12. <보기>에서 요구하는 것은 '정보의 출처를 드러내는 기능을 가진 어미'가 사용된 용례이다. ②의 '먹을래'에서 '-을래'를 통해서도 정보의 출처를 알 수 없다. 주어인 '나'의 의지가 담겨 있는, 즉 미래에 어떤 행동을 하겠다는 의사 표시만 담고 있는 표현이다.

48) ①
 12. '인용 발화'는 '남에게 전달하는 말'이다. 그런데 ①은 자신의 기쁨을 청자에게 보고하는 성격으로 한 말이다. 즉, ①의 서술어에 들어 있는 '-답니다'는 알고 있는 사실을 알려 주는 합쇼체의 종결 어미이므로 '인용 발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머지 ②~④의 경우는 '인용 발화'에 해당한다.

49) ⑤
 11. ㄱ과 ㄴ의 문장에서는 어미 '-리'가 공통적으로 비문법적인 것으로 나타나 있으므로, 어미의 선택 기준에 대해 탐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ㄱ과 ㄴ의 각 문장에서, 해당 어미 앞뒤 절의 주어는 모두 같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따라서 ⑤는 어미의 선택 기준에 대한 탐구 결과로 적절하지 않다.

50) ①
 <보기>의 종결 어미들 중 문장의 과거(-었/았-), 현재(-ㄴ/는-), 미래(-겠-)와 같은 시제를 표시하고 있는 경우를 발견할 수 없다.

51) ④
 [출제의도] 심리적 태도 파악하기
 ㉠은 엄마를 통해 알게 된 정보를 영희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단정'이 아니라 '사실의 전달'에 해당한다.

52) ⑤
 [출제의도] 문법 범주 이해하기
 ㉠의 '-기'는 행위 주체인 '도둑'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른 대상인 '경찰'에 의해 동작을 당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피동 접미사이다.

[오답]
 ① ㉠에서는 행위 주체인 '할머니'를 높이기 위해 '떡다'의 높임말인 '들다'에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에서는 행위 주체인 '아버지'를 높이기 위해 '날리다'에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고 있다.
 ② ㉠의 '-ㄴ-'은 현재를, ㉡의 '-었-'은 과거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선어말 어미이다.
 ③ ㉡의 '-리-'는 행위 주체인 '아버지'가 다른 대상인 '연'이 날도록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사동 접미사이다.
 ④ ㉠의 '-겠-'은 '가다'라는 행위에 대한 행위 주체 '나'의 의지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선어말 어미이다.

53) ①
 [출제의도] 선어말어미의 의미 파악하기
 '제가 잠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는 '내가 들어가겠다.'라는 의도를 '-겠-'을 사용하여 완곡하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

54) ⑤
 [출제의도] 선어말어미의 기능 및 의미 이해하기
 ㄴ의 '-으셨-'은 '-(으)시-'와 '-았-'이 축약된 것이다. '-(으)시-'가 '높임'을, '-았-'이 '시제'를 나타내는데, 둘이 함께 쓰일 때는 '높임 - 시제' 순으로 배열된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55) ④
 [출제의도] 연결어미 이해하기

ㄹ의 '(으)니까'로 연결된 문장에서 앞의 주어는 '비가'이고, 뒤의 주어는 '제가'로 앞뒤의 주어가 일치하지 않는다. ㄴ에서도 역시 앞의 주어는 '비가'이지만, 뒤의 주어는 명령형일 때에는 '네가', 청유형일 때에는 '우리가'로 앞뒤의 주어가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④에서 언급한 '(으)니까'로 연결된 문장은 앞뒤의 주어가 일치해야 한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56) ④

[출제의도] 관형사형 어미의 역할

ㄹ의 '-을'은 미래 시제와 의지를 나타낼 뿐 추측의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57) ⑤

[출제의도] 선어말 어미에 대한 탐구학습의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⑤에서는 '-이었-'과 그것의 준말인 '-였-' 사이에 의미상의 차이가 난다고 하였지만, 실제로는 둘 사이에 의미상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ㄱ의 '-였-'은 '하다'나 '-하다'가 붙는 동사 어간 뒤에 붙는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이다. ㄴ의 '-였-'은 '조이었다'의 '-이었-'이 줄어든 말이다.

ㄷ의 '-였-'은 '먹이었다'의 '-이었-'이 줄어든 말이다. 이때 ㄴ의 '-이-'와 달리, ㄷ의 '-이-'는 사동 접미사이다. ㄹ에서 '-았-'은 양성 모음 뒤에, '-였-'은 음성 모음 뒤에 사용되었다는 차이가 있다.

ㅁ은 체언과 서술격 조사로 된 서술어에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가 결합된 경우이다. 이때 체언의 마지막 음절에 받침이 있으면 '-이었-'의 준말이 쓰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었-'과 그것의 준말인 '-였-' 사이에 의미상의 차이는 없다.

58) ⑤

[출제의도] 연결어미 '-고/고서, -며/면서'의 용법 알기

한 주체가 둘 이상의 동작을 할 때에 그 동작의 '나열'이나 '선후'를 나타내려면 '-고'나 '-고서'를 써야 하고, 둘 이상의 동작이 동시에 일어남을 나타내려면 '-며'나 '-면서'를 써야 한다. ㄹ은 셋 이상의 동작을 나열하는 경우인데, 높고 공부하며 잠을 자는 동작을 나열한 것이지 동시에 하는 것을 서술한 것은 아니다. 이때의 '-며'는 '-고'가 잇달아 나오는 것을 꺼려서 사용한 경우이지, 동시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59) ②

[출제의도] 명사형 어미와 접미사를 구분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 1>의 내용을 보면 파생된 명사는 서술성이 없고, 동사의 명사형은 서술성이 있다. <보기 2>의에서 '잠1'은 서술성이 없고 '잠2'는 서술성이 있다. 그러므로 '잠1'의 '-ㅁ'은 접미사이고, '잠2'의 '-ㅁ'은 명사형 어미이다.

60) ⑤

ㅁ에서 '공부하다'란 동사와 같이 '체언+-하다'의 형태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공부하다, 추천하다 등), 이를 부정할 때에는 '안 공부하다'보다는 '공부 안 하다'와 같은 형태가 자연스럽다.

61) ②

[출제의도] 부정문의 의미 차이를 이해한다.

㉠에는 짧은 '못' 부정문과 긴 '못' 부정문이 모두 올 수 있고, ㉡에는 '안' 부정문인되 짧은 부정문, ㉢에는 '안' 부정문인되 긴 부정문이 적절하다.

62) ②

[출제의도] 문장의 의미 관계 파악하기

'필요 있다'의 부정 표현은 '필요 있지 않다'가 아닌 '필요 없다'로 쓴다. '없다'는 '있다'의 어휘적 부정 표현이다.

63) ⑤

[출제의도] 부정 표현 이해하기

'꽃이 안 예쁘다.'는 부정 부사 '안'이 쓰인 짧은 부정문이다. 그러나 '예쁘다'는 행동 주체의 의지가 작용할 수 없는 형용사이므로, '꽃이 안 예쁘다.'는 행동 주체인 '꽃'의 의지가 작용할 수 있는 행위를 부정하는 의미 부정이 아니라, 상태 부정에 해당한다.

[오답]

① 긴 부정문의 명령문을 '위험한 곳에는 가지 않아라.'처럼 쓸 수 없으므로, '마라'를 이용하여 긴 부정문의 명령문을 만들 수 있다.

② '못하다'를 이용한 긴 부정문으로 능력 부정을 나타내고 있다.

③ 부정부사 '못'을 이용한 짧은 부정문으로 능력 부정을 나타내고 있다.

④ '않다'를 이용한 긴 부정문으로 단순히 사실을 부정하는 상태 부정을 나타내고 있다.

64) ④

정답해설 : 이 문항은 선어말 어미 '-았-/-었-'이 '사건이나 상태가 과거임(㉠)'을

나타낼 때, '과거 사건의 결과 상태가 현재까지 지속됨(㉡)'을 나타낼 때, '미래에 일어날 일을 확정적인 사실(㉢)'로 나타낼 때 사용된다는 <보기>의 설명을 통해 선어말 어미 '-았-/-었-'의 다양한 의미를 탐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있다. 정답은 ④이다. ④는 '소풍날'이라는 과거 시간에 '날씨'라는 상태가 나뻐움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일어난 사건의 결과 상태가 현재까지 지속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나 상태가 과거임(㉠)'을 나타내기 위해 '-았-'이 쓰인 것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어제'라는 과거의 시간에 '텔레비전을 본' 사건을 나타내기 위해 '-았-'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에 해당하는 예이다. ② '아까'라는 과거의 시간에 '할머니 생신 선물을 사러 간' 사건을 나타내기 위해 '-았-'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에 해당하는 예이다. ③ '아직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목이 잠긴' 과거 사건의 결과 상태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 '-었-'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에 해당하는 예이다. ⑤ 과제 준비 때문에 앞으로 잠을 자지 못할 것이라는 미래의 일을 확정적인 사실로 받아들임을 나타내기 위해 '-았-'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에 해당하는 예이다.

65) ③

시간 표현에 대한 <보기>의 그림과 설명에서 사건이 일어난 시점을 통해 ㉠은 '과거'이며, 사건이 일어나는 양상에서 ㉡은 '진행'이고, ㉢은 '완료'임을 확인할 수 있다.

66) ①

[출제의도] 과거 시제를 표현하는 방법을 이해한다.

'너는 이제 집에 돌아오면 혼났다.'의 '-았-'은 미래의 일을 표현하는 데 쓰였다.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의 특수한 용법으로 볼 수 있다.

67) ③

[출제의도] 시간 표현을 이해한다.

'산 책'에서 '산'의 '-ㄴ'은 과거 시제를 나타낸다. '-ㄴ'은 사건시가 발화시에 앞선다고 할 수 있다.

68) ③

정답 해설 : 이 문항은 우리말에서 어휘를 통해 높임을 표현하는 방식을 네 유형으로 분류하여 제시한 후 해당되는 용례를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고 있다. 정답은 ③으로, '떡다-잡수시다'의 관계를 볼 때 주체(할머니)를 높이는 용언(㉠)이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나이-연세'의 관계를 볼 때 높여야 할 인물(할머니)과 관련된 것(할머니의 나이)을 높이는 명사(㉡)가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어휘를 통해 높임을 표현한 것은 '그분'과 '성함'인데, 전자는 '그 사람-그분'의 관계를 볼 때 높여야 할 인물(그 사람)을 직접 높이는 명사(그분, 대명사)이고, 후자는 '이름-성함'의 관계를 볼 때 높여야 할 인물(그 사람)과 관련된 것(그 사람의 이름)을 높이는 명사(㉡)이다. ② 어휘를 통해 높임을 표현한 것은 '여쭙다'와 '떡'인데, 전자는 '묻다-여쭙다'의 관계를 볼 때 객체(물음을 받는 대상)를 높이는 용언이며, 후자는 '집-떡'의 관계를 볼 때 높여야 할 인물(할머니)과 관련된 것(할머니의 집)을 높이는 명사(㉢)이다. ④ 어휘를 통해 높임을 표현한 것은 '부모님'과 '모시고'인데, 전자는 '부모-부모님'의 관계를 볼 때 높여야 할 인물(부모)을 직접 높이는 명사(부모님)이고, 후자는 '데리다-모시다'의 관계를 볼 때 객체(부모님)를 높이는 용언이다. ⑤ 어휘를 통해 높임을 표현한 것은 '주무시다'인데, '자다-주무시다'의 관계를 볼 때 이는 주체(어머니)를 높이는 용언(㉠)이다.

69) ②

높임 표현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에서 '말씀'은 말하는 이(경준)가 높이는 대상인 '선생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대상이기 때문에 높임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있었니'가 아니라 '있으셨니'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에서 서술어 '준비하다'의 주체는 '경준'이기 때문에 영희의 입장에서 높임의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여 말할 필요가 없다. ③ ㉡에서 서술어의 객체인 '선생님'을 높이기 위해서는 '묻다'가 아니라 객체 높임법에 사용되는 특수한 동사 '여쭙다'를 써서 말해야 한다. ④ ㉢의 '자기'는 '앞에서 이미 말하였거나 나온 바 있는 사람을 도로 가리키는 삼인칭 대명사(재귀 대명사)이다. 그런데 이 대명사가 영희가 높여야 하는 대상인 '선생님'을 가리키기 때문에 높임의 의미를 지니는 '당신'으로 바꾸어 말해야 한다. ⑤ ㉣의 주체는 영희의 입장에서 높여야 하는 대상인 '선생님'이기 때문에 주체 높임을 실현하여 '말씀하셨잖아'라고 말해야 한다.

70) ⑤

높임 표현 파악

정답해설 : 이 문항은 우리말의 높임법인 주체 높임법, 상대 높임법, 객체 높임법의 개념 및 특징을 특정 사례를 통해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고 있다. 정답은 ⑤로, ㉠에 쓰인 '모시다'는 '데리다'의 높임 표현으로 쓰였는데, 객체인 할머니를 높이기 위해 쓰였기 때문이다. ㉡에서 생략된 문장 성분과 조사 등을 살려 단순화하면, "(아버지께서) (우리가) 할머니(를) 모시고 저녁을 먹으러

가자고 그러시더라.”정도가 될 것인데, 이때 ‘모시다’는 목적어(객체) ‘할머니’를 높이기 위해 쓰인 표현임을 확인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은 “(내가) 이제 오는구나.”의 의미인데, 이때의 ‘-는구나’는 대화의 상대인 청자(동생)를 낮추기 위해 쓰인 종결 어미이다. 따라서 ‘-는구나’를 사용하여 상대인 동생을 높였다는 진술은 잘못이다. ② ㉡은 “아버지(가) 안 계신 거야?”의 의미인데, 이때의 ‘계시다’는 주체인 아버지를 높이기 위해 쓰인 높임 표현이다. 이 문장에서 아버지는 객체가 아니다. ③ ㉢은 “(우리가) 아버지께 전화(를) 드리고 얼른 나가자.”의 의미인데, 이 문장에서 아버지는 주체가 아니라 객체이다. ‘아버지께’가 문장의 부사어라는 점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높임 표현이 아닌 ‘아버지에게, 아버지한테’를 상정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④ ㉣은 “아버지께서 너(를) 데리고 식당으로 오라고 하셨어.”의 의미인데, 이 문장에서 아버지는 객체가 아니라 주체이다. ‘아버지께서’가 문장의 주어라는 점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께서’는 객체인 ‘아버지’가 아니라 주체인 ‘아버지’를 높이기 위해 쓰인 표현이다.

71) ⑤
㉠은 ‘주체’, ㉡은 ‘대상’, ㉢은 ‘주체와 듣는이’가 높임을 받고 있다.

72) ⑤
이 답회에서 모시는 동작의 대상은 ‘할머니’가 아니라 ‘어머니’이다. ‘모시다’라는 특수 어휘를 사용하여 행위가 미치는 대상을 높여 표현하고 있다.

73) ②
[출제의도] 국어의 높임 표현을 이해한다.
‘저희’는 상대방을 고려하여 자신을 낮추는 표현이다. ‘저희 반 아이들’에서와 같이 뒤에 오는 말에 대한 높임을 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오답]

- ① 종결 어미로서 상대 높임을 표현하고 있다.
- ③ 선어말 어미 ‘-시-’는 ‘주다’의 주체를 높이고 있다. ‘드리다’는 높임을 표현하는 어휘로서 객체 높임을 표현할 수 있으므로 선물을 받는 대상을 높이는 것이다.
- ④ 높임의 대상인 ‘아버지’의 신체이므로 선어말어미 ‘-시-’를 사용하여 주체를 간접적으로 높이고 있다.
- ⑤ ‘어르신’과 ‘모시다’는 문법 요소가 아니라 특수한 어휘를 사용해 높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74) ④
[출제의도] 주체높임법의 용례를 묻는 문제이다.
ㄴ의 높임 대상은 ‘살림’이고, ㄷ의 높임 대상은 ‘작은아버지’이므로 정답은 ④번이다.

75) ①
[출제의도] 높임 표현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 사례를 분석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아버지께서 운동을 하셨습니다’라는 문장에서는 ‘-시’가 쓰였으므로 주체(주어)가 화자보다 높고, ‘-습니다’가 쓰였으므로 청자가 화자보다 높다. ‘동생이 운동을 하셨습니다’라는 문장에서는 ‘-시’가 쓰이지 않았으므로 화자가 주체(주어)보다 높고, ‘-습니다’가 쓰였으므로 청자가 화자보다 높다. 따라서 ㉠과 ㉡의 분석이 옳다.

76) ①
11. <보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명령하거나 요청 혹은 부탁하는 상황에서 특정한 어휘의 사용을 통해 말을 부드럽게 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는 완곡어법에 속하는 표현인데, 먼저 문장이 ‘명령하거나 요청 혹은 부탁하는 상황’에 관한 것인지를 파악한 다음, 밑줄 친 어휘를 사용했을 때와 사용하지 않았을 때 청자에게 전달되는 말의 부드러움에 차이가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답을 찾는다. ①에서 ‘좀’은 ‘조금’의 뜻으로 어휘를 사용했을 때 훨씬 더 부드러운 전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는 ‘말을 부드럽게 전달하는, 특정한 의미를 지닌 단어’라고 할 수 있다.

77) ⑤
피동사와 사동사 파악

정답해설 : 이 문항에서는 <보기>의 설명을 바탕으로 사동사와 피동사를 올바르게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정답은 ⑤로, ㉠‘형이 친구에게 꽃다발을 안기다’의 ‘안기다’는 사동사이며, ㉡‘아기 꿈이 어미 품에 안기다’의 ‘안기다’는 피동사이다. 참고로 ‘품에 안기다’의 경우에도 ‘할머니가 아기를 어머니 품에 안기다’의 ‘안기다’도 사동사이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운동화 끈을 풀다’, ‘피로를 풀다’와 비교할 때 ㉠‘운동화 끈이 풀리다’의 ‘풀리다’와 ㉡‘피로가 풀리다’의 ‘풀리다’는 모두 피동사이다. ② ‘엄마가 아이를 등에 업다’와 비교할 때 ㉢‘아이가 엄마 등에 업히다’의 ‘업히다’는 피동사이며, ‘이모가 아이를 업다’와 비교할 때 ㉣‘누나가 이모에게 아기를 업히다’의 ‘업히다’는 사동사이다. ③ ‘웃이 마르다’와 비교할 때 ㉤‘웃을 말리다’의 ‘말리다’는 사동사이다. ㉥의 ‘말리다’는 ‘다른 사람이 하고자 하는 어떤 행동을 못하게

방해하다’의 뜻을 지니며 피동사도 아니고 사동사도 아니다. ④ ‘몸이 녹다’, ‘고름이 녹다’와 비교할 때 ㉦‘새들이 몸을 녹이다’의 ‘녹이다’와 ㉧‘햇살이 고름을 녹이다’의 ‘녹이다’는 모두 사동사이다.

78) ②
사동사 파악

정답해설 : 이 문항은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바꿀 때 나타나는 문법적 현상에 대해 제시된 사례를 통해 탐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문항으로 정답은 ②이다. ㉠과 ㉡의 A(주동문)에서는 서술어 ‘숨는다’와 ‘낮다’가 각각 ‘동생이’와 ‘실내 온도’라는 주어만을 필요로 함에 비해, B(사동사에 의한 사동문)에서는 ‘누나가’라는 주어에 더해 각각 ‘동생들’과 ‘실내 온도를’이라는 목적어도 필요로 하기 때문에, A에서 B로 바뀌면 서술어의 자릿수가 늘어난다는 진술은 타당하다. 서술어의 자릿수란 ‘문장의 서술어가 그 성격에 따라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가 다른 현상’을 가리키는데, 주어 하나만을 필요로 할 때는 한 자리 서술어, 주어 이외에 목적어, 부사어, 보어 중 하나를 필수적으로 필요로 할 때는 두 자리 서술어, “형이 누나에게 선물을 주다.”의 ‘주다’처럼 주어, 목적어, 부사어의 세 가지를 필요로 할 때는 세 자리 서술어라고 한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에서 A(주동문)의 주어는 ‘동생이’인데, C(‘-게 하다’에 의한 사동문)에서는 ‘동생들’이라는 목적어로 바뀌었다. ㉡에서 A의 주어는 ‘동생이’인데, C에서는 ‘동생에게’라는 부사어로 바뀌었다. ③ 겹문장은 주어와 서술어가 두 번 이상 나타나는 문장을 가리키는데, ㉢과 ㉣의 A(주동문)와 B(사동사에 의한 사동문) 모두 주어와 서술어가 한 번씩 나타나기 때문에 겹문장이 아니다. ④ ㉤ A의 서술어 ‘차다’는 타동사인데 B의 사례가 없음을 통해 ‘공을 차다’의 서술어 ‘차다’에 대응하는 사동사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 A(주동문)의 서술어 ‘먹다’는 타동사이면서도 불구하고 B(사동사에 의한 사동문)에서 ‘먹이다’라는 사동사를 확인할 수 있다. ⑤ ㉦ A(주동문)의 서술어 ‘낮다’는 형용사이고, ㉧의 A의 서술어 ‘차다’는 동사이다. 또한 A의 서술어가 형용사인 경우에도, ㉣의 B(사동사에 의한 사동문)와 C(‘-게 하다’에 의한 사동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사동문을 만들 수 있다.

79) ③
11. ③에서 ㉢의 예문에 사용된 ‘불릴’은 ‘(아이들의 배를)부르게 하는’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보기>의 ‘부르다’-먹은 것이 많아 속이 팍 찬 느낌이 들다.’에 해당하며 그 사동의 형태라고 볼 수 있다.

80) ①
[출제의도] 국어의 피동 표현을 이해한다.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서 동작을 당하게 되는 것을 피동이라 하고, 주어가 남에게 동작을 하도록 시키는 것을 사동이라 한다. ‘아이에게 밥을 먹였다.’는 누군가가 아이가 밥을 먹도록 시킨 것이므로 이는 ‘아이가 밥을 먹었다.’라는 문장에 사동 접미사 ‘-이-’가 결합된 사동문에 해당한다.

[오답]

② ‘당하다’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사람에게 부당하거나 원하지 않는 일을 겪거나 입다.’로 피동의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꼬마가 아이들에게 놀림을 당했다.’는 피동의 의미를 갖는 단어에 의해 만들어진 피동 표현에 해당한다.

81) ②
[출제의도] 다의어의 의미 파악하기
①의 ‘걸린’은 ‘걸대4’, ③의 ‘걸렸다’는 ‘걸대1’, ④의 ‘걸린’은 ‘걸대5’, ⑤의 ‘걸리기’는 ‘걸대3’의 피동적 의미가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82) ①
[출제의도] 사동의 의미 차이를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②~⑤는 각각의 문장이 속한 문맥에 따라 동작의 주체가 ㉠과 같이 달라질 수 있으나, ①은 언제나 ‘다정’이 직접 동작을 실현해야 하므로 ㉠에 해당하지 않는다.

83) ③
의미의 중의성 파악-해소

정답해설 : 이 문항은 중의적 의미를 지니는 문장을 제시한 후 이를 적절하게 해소하여 하나의 의미를 지니는 문장으로 수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문항으로, 정답은 ③이다. “언니가 교복을 입고 있다.”는 동작의 진행과 완료에 따른 중의성을 지니는 문장으로, 교복을 입는 동작이 진행 중이라는 의미와 현재 교복을 다 입은 후의 상태라는 의미의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이때 ㉠처럼 “교복을 입는 중이다.”로 고치면 동작이 진행 중이라는 의미만을 나타내게 되어 중의성을 해소할 수 있다. 그러나 ③에서와 같이 “지금 교복을 입고 있다.”라고 수정하여도 여전히 동작의 진행과 완료에 따른 중의성은 해소되지 않는다. 즉, ③의 수정된 문장은 처음 문장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되는 중의문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예쁜 모자의 장식물’은 수식의 범위에 따른 중의성이 발생하는 표현으로, ‘모자가 예쁜 경우’와 ‘장식물이 예쁜 경우’의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때 ‘장식물이 예쁜 경우’만으로 의미를 한정하기 위해서는 ㉠의 ‘예

쁜, 모자의 장식물'과 같이 심표를 사용할 수도 있고 ①의 '모자의 예쁜 장식물'처럼 단어의 위치를 바꿀 수도 있다. ② "다 오지 않았어."는 부정의 범위에 따른 중의성이 발생하는 표현으로, '손님들 중 일부만 온 경우'와 '한 명도 오지 않은 경우'의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를 '손님들 중 일부만 온 경우'만으로 의미를 한정하기 위해서는 ㉠의 "손님들 중 일부가 오지 않았어."나 ②의 "손님들이 다는 오지 않았어."처럼 표현을 수정하면 된다. ④ "형은 나보다 동생을 더 좋아한다."라는 문장은 비교의 대상에 따른 중의성이 발생하는 표현으로, '형이 나와 동생 중 동생을 더 좋아한다는 의미'와 '내가 동생을 좋아하는 것보다 형이 동생을 더 좋아한다'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를 전자의 의미, 즉 '나와 동생이 비교 대상인 경우'로 한정하기 위해서는, ㉡의 "형은 나를 좋아하는 것보다 동생을 더 좋아한다."나 ④의 "형은 나와 동생 중에서 동생을 더 좋아한다."처럼 문장을 수정하면 된다. ⑤ "나는 웃으면서 매장에 들어오는 손님에게 인사했다."는 수식의 범위에 따른 중의성이 발생하는 문장으로, '나가 웃으면서 인사하는 경우'와 '손님이 웃으면서 매장에 들어오는 경우'의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를 전자의 의미로 한정하기 위해서는 ㉢의 "나는 매장에 들어오는 손님에게 웃으면서 인사했다."처럼 표현을 수정하거나 ⑤의 "매장에 들어오는 손님에게 나는 웃으면서 인사했다."처럼 단어의 위치를 바꾸면 된다.

84) ④

[출제의도] 어법의 이해

'게으른 토끼와 거북이'를 <보기>에서 제시한 설명에 따라 직접구성요소를 분석하면 두 가지의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각각 ['게으른 토끼'와 '거북이']의 구조와 ['게으른'과 '토끼와 거북이']의 구조인데, ㉠의 문장에서는 이 중에서 전자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85) ②

②의 '외갓집'은 앞말인 '외가'라는 표현으로도 '가가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충분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으며(조건 1), 앞말인 '가'의 뜻이 중복된 '집'이라는 말을 덧붙여 (조건2)서 만들어진 말이다. 그러므로 중복 유형이 <보기>의 ㉠, ㉡과 동일하다.

86) ②

문맥에 따른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이 문항은 담화 속에 쓰인 지칭어와 호칭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담화 상황 속에서 지시 대상, 화자, 청자의 관계를 탐구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정답은 ②이다. ㉠'김 서방'은 할머니(화자)가 고모(청자)에게 고모부(지시 대상)를 가리키는 말이며, ㉡'아가씨(지시 대상)'는 엄마(화자)가 고모(청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때, ②의 진술과 같이, 청자는 고모로 동일하고 화자는 할머니와 엄마로 다르다. 그렇지만 ㉠은 고모부를, ㉡은 고모를 가리킨다는 점에서 동일한 인물이 다르게 표현된 것은 아니다. 정답 ②

[오답파하기] ① '㉠김 서방'은 할머니(화자)가 고모(청자)에게 고모부(지시 대상)를 가리키는 말이며, '㉡그이'는 고모(화자)가 할머니(청자)에게 고모부(지시 대상)를 가리키는 말이다. 따라서 화자와 청자가 맞바뀌어 동일한 인물을 다르게 표현함을 알 수 있다. ③ '㉠김 서방'은 할머니(화자)가 고모(청자)에게 고모부를 가리키는 말이며, '㉡고모부'는 고모(화자)가 은미(청자)에게 고모부를 가리키는 말이다. 따라서 화자도 다르고 청자도 달라 동일한 인물이 다르게 표현됨을 알 수 있다. ④ '㉡그이'는 고모(화자)가 할머니(청자)에게 고모부를 가리키는 말이며, '㉡고모부'는 고모(화자)가 은미(청자)에게 고모부를 가리키는 말이다. 따라서 화자는 같지만 청자가 달라져 동일한 인물이 다르게 표현됨을 알 수 있다. ⑤ '㉡아가씨'는 엄마(화자)가 고모(청자)를 가리키는 말이며, '㉡고모'는 은미(화자)가 고모(청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따라서 화자가 달라 동일한 청자가 다르게 표현됨을 알 수 있다.

87) ⑤

[관용 표현의 이해] ㉢ '혀를 내두르다'라는 관용 표현은 '매우 놀라거나 감탄하여 마치 말을 하지 못하는 모양'이라는 의미이다.

88) ②

11. ㄴ과 ㄹ의 서술어는 모두 '치다'이다. 그런데 ㄴ에서는 의미 쏠림이 발생하였고, ㄹ에서는 의미 쏠림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서술어 '치다'가 의미 쏠림이 일어나는지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따라서 관용 표현의 서술어를 통해 의미 쏠림이 발생하는지를 알 수 있다고 판단한 ②는 적절하지 않다.

89) ④

[출제의도] 관용적 표현 이해하기

'손이 재다'는 '일처리가 빠르다.'의 의미이다.

[오답]

- ① '손을 꼽다'는 '교재나 거래, 맺었던 관계를 중단하다.'의 의미이다.
- ② '손이 서툴다'는 '어떤 일에 익숙하지 않다.'의 의미이다.
- ③ '손이 여물다'는 '일하는 것이 빈틈없고 매우 꼼꼼하다.'의 의미이다.

⑤ '손이 뜨다'는 '일하는 동작이 매우 굼떠서 일을 빨리 처리하지 못한다.'의 의미이다.

90) ③

'초점을 때리지 않고'라는 표현의 의미는 핵심적인 것을 피한다는 의미이므로 '바로 말하지 않고 돌려서 말하다.'의 뜻인 '변죽을 울려서'가 (가)에 적절하다. (나)에는 '오리발만 내밀던'의 구절을 생각할 때, 자기가 하고도 하지 아니한 체 하거나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체하다'의 뜻인 '시치미를 떼다'가 적절하다.

91) ②

[출제의도] 한글 맞춤법 이해, 적용

㉠'들어서다 / 드러서다'는 '앞 음절의 끝 자음을 모음으로 시작되는 뒤 음절의 초성으로 이어 소리를 내는' 연음 현상에 따른 발음이 표기로 잘못 이어진 사례이다. 그러나 '높이다'를 '높히다'로 잘못 적는 것은 '높다'에 결합하는 사동 접미사를 '-이'가 아닌 '-히'로 잘못 파악한 경우로 연음 현상에 따른 잘못된 표기의 사례가 아니다. 정답 ②

[오답]

- ① ㉠의 '들어서다 / 드러서다'는 '들어서다'의 연음에 따른 발음 [드러서다]가 표기로 잘못 이어진 사례이다.
- ③ ㉠의 '그렇지 / 그러치'는 '그렇지'의 거센 소리되기에 따른 발음 [그러치]가 표기로 잘못 이어진 사례이다. 거센소리되기는 'ㄱ, ㄷ, ㅂ, ㅈ'이 'ㅎ'과 만나 거센소리인 'ㅋ, ㅌ, ㅍ, ㅊ'으로 발음되는 현상을 가리킨다.
- ④ '얼혀'는 거센소리되기에 따라 [얼케]로 발음되는데, 이를 표기에까지 반영하여 '얼켜'로 잘못 적는 것은 ㉠의 사례로 볼 수 있다.
- ⑤ ㉡은 '해돋이'의 구개음화에 따른 발음 [해도지]가 표기로 잘못 이어진 사례인데, '금붙이' 역시 구개음화에 따라 [금부치]로 발음되기 때문에 이를 '금부치'로 잘못 적는 것은 같은 유형의 사례로 볼 수 있다. 구개음화는 끝소리가 'ㄷ', 'ㅌ'인 형태소가 모음 'ㅣ'나 반모음 'ㅣ[y]'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면 그것이 구개음 'ㅈ', 'ㅊ'으로 발음되는 현상을 가리킨다.

92) ②

11. 한글맞춤법 규정 파악

정답 해설 : '파생어/합성어', '어근의 원형을 밝히어 적기/밝히어 적지 않기'를 기준으로 하여 네 유형을 제시한 후 각각에 해당되는 사례를 찾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답은 ②이다. '무덤'과 '지붕'은 각각 '묻-' + '-음', '집-' + '-음'으로 분석될 수 있는 파생어이지만 어근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않고 있다. 원형을 밝히어 적었다면 '*묻음, *집음'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뒤뜰', '쌀알'은 각각 '뒤+' + '뜰', '쌀+' + '알'의 합성어이면서 어근의 원형을 밝히어 적고 있다. 정답 ②

[오답 파하기] ②에 제시된 '무덤, 지붕, 뒤뜰, 쌀알' 이외에 제시된 단어는 '마중'과 '길이'인데, '마중'은 '맞-' + '-음'으로 분석될 수 있는 파생어이면서 어근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않는 경우이며, '길이'는 '길-' + '-이'의 파생어(명사 또는 부사)이면서 어근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 경우이다.

93) ⑤

㉢의 '말사위'는 '말이'를 나타내는 접두사 '말'과 명사 '사위'가 붙어서 이루어진 단어이므로, 각각의 원형을 밝혀 적은 항목의 사례에 해당하는 것이다. 하지만 '깎두기'의 경우에는 '깎'의 'ㄱ'받침 뒤에서 '두'의 'ㄷ'이 'ㅌ', 즉 된소리로 발음되는데, '깎'과 '두'는 같거나 비슷한 음절이 아니므로 된소리로 적지 않고 '두'로 적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가 아니라 ㉣의 규정에 따라 표기한 사례로 보아야 한다.

94) ③

[출제의도] 한글 맞춤법을 이해하고 단어에 적용하기

<보기1>의 'ㄱ,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 겹쳐 나거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는 설명에 따라, ㉡에서 '깎두기'는 'ㄱ'받침 뒤에서 된소리인 'ㅌ'으로 발음되지만,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깎두기'가 아닌 '깎뚜기'로 적어야 한다.

95) ②

[출제 의도] 한글 맞춤법 규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보기>의 제5항-3의 규정에 의하면,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아니하므로 '깎짜기'가 아니라 '깎자기'로 표기한다. 그런데 '살짝'은 제5항-2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살작'으로 표기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살작'을 '살작'으로 표기해야 한다고 평가한 ②는 적절하지 않다.

96) ⑤

<보기>에서는 맞춤법 규정 19항과 그 해설을 보여주고 있다. 이 규정을 바르게 이해하여 어휘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맞춤법 규정의 붙임에서 어간에 '-이'나 '-음'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뀐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고 했다. 이를 토대로 ⑤의 '마개'를 분석해

보면 '막+애⇒마개'가 된 것이기에 어간에 '애'가 결합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마개'는 원래 어간의 뜻과 떨어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제1항 [붙임]의 사례와 같은 이유로 해서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은 것이다.

97) ⑤

한글 맞춤법 규정 파악

정답해설 : ⑤의 '일찍이'는 부사 '일찍'에 '-이'가 붙어서 역시 부사 '일찍이'가 된 것이므로 ㉔의 '더욱이'와 같은 규정이 적용된 사례이다. '더욱이' 역시 부사 '더욱'에 '-이'가 붙어서 부사 '더욱이'가 된 것이기 때문이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급히'는 '급하다'의 어근 '급'에 '-히'가 붙어 부사가 된 것이므로 ㉑와 같은 규정이 적용된 사례이다. ㉒의 '꾸준히' 역시 '꾸준하다'의 어근 '꾸준'에 '-히'가 붙어 부사가 된 것이기 때문이다. ② '방긋이'는 부사 '방긋'에 '-이'가 붙어서 역시 부사 '방긋이'가 된 것이므로 ㉑와 같은 규정이 적용된 사례이다. ㉓의 '생긋이' 역시 부사 '생긋'에 '-이'가 붙어 부사가 된 것이기 때문이다. ③ '맑이'는 '맑다'의 어근 '맑'에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된 것이므로 ㉑와 같은 규정이 적용된 사례이다. ㉔의 '같이' 역시 어근 '같'에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된 것이기 때문이다. ④ '깊이'는 '깊다'의 어근 '깊'에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된 것이므로 ㉑와 같은 규정이 적용된 사례이다. ㉕의 '굳이' 역시 어근 '굳'에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된 것이기 때문이다.

98) ④

[출제의도] 한글맞춤법 규정을 이해하고 적용한다.

④는 '느긋이'가 올바른 선택이다. '느긋이'는 <보기>의 규정에서 '-하다'가 붙는 어근의 끝소리가 'ㅅ'인 경우에 해당하는 단어이다.

[오답]

- ① '고이'는 '비'불규칙 용언의 어간 뒤에 접미사가 붙어 끝음절이 '-이'로만 소리 나는 단어이다.
- ② '겹겹이'는 첩어인 명사 뒤에 접미사가 붙어 끝음절이 '-이'로만 소리 나는 단어이다.
- ③ '죽히'는 '-하다'가 붙는 용언의 어간 뒤에서 접미사가 붙어 부사의 끝 음절이 '히'로만 소리 나는 단어이다.
- ⑤ '각별히'는 '-하다'가 붙는 어근 뒤에 접미사가 붙어 '-히'로 소리 나는 단어이다.

99) ①

[어법의 이해와 적용] ㉞ '파다'를 기본형으로 하는 동사의 어간은 '파'로 'ㅌ'로 끝난 어간인데, 여기에 '-이'가 와서 줄 적에는 준대로 'ㅍ'라 적는다 했으므로 ㉞은 '파다'가 적절하다. 또한 이것은 뒤에 오는 체언을 꾸며 주는 활용 형태를 만드는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쓰이는 경우인 '파이'+ 'ㄴ'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파이'는 '페'로 줄여 ㉞은 '팬'이 된다. 그리고 '파이'가 줄어든 형태인 '페'에 '-었-'이 어울려 준 형태가 준 대로 적은 것이 '팸'이므로 ㉞은 '팸었다'가 줄기 전의 본말 형태이다. ㉞ ② '팸었다'는 '파이'의 준 말인 '페'에 '-이-'를 중복해서 사용한 후 '-었-'과 어울려 사용한 것을 줄여 쓴 것('파+이+이+었+다')이므로 적절하지 못한 표기이다. ※ 참고로 '하다' 동사의 경우에는 어간 '하'에 과거형 선어말 어미 '-았-'이 사용 될 경우에는 '하였다'가 아니라 '하였'으로 쓰이는 '여' 불규칙 현상이 나타난다.

100) ①

①의 '좁'은 '부탁이나 동의를 구할 때 간곡한 뜻을 더하는 말'로 '정도나 분량이 적게'의 뜻인 '조금'과 바꿔 쓸 수 없다.

101) ④

한글 맞춤법 규정 파악

정답해설 : 이 문항은 한글맞춤법 제30항의 사이시옷 표기에 대한 조항을 단계별로 도식화하여 제시한 후, 개별 사례에 적용하여 탐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문항으로, 정답은 ④이다. '장마비'는 '장마+비'의 합성어 구조로 1단계와 2단계를 만족한다. 그러나 그 발음은 [장마비] 혹은 [장만비]이므로, 3-2단계가 아닌 3-1단계를 만족한다. 즉, 사이시옷을 표기하여 '장맛비'로 적는 것은 맞지만, 단계에 대한 설명이 잘못 되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개살구'의 '개'는 '야생 상태의' 또는 '질이 떨어지는', '흡사하지만 다른'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이기 때문에 '개살구'는 합성어가 아닌 파생어이다. 따라서 1단계를 만족하지 못해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은 '개살구'로 적어야 한다. ② '총무과'는 '총무(總務)+과(課)', 즉 '한자어+한자어'의 구조이므로 2단계를 만족하지 못해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은 '총무과'로 적어야 한다. ③ '만둣국'은 '만두(饅頭)+국'의 구조로 1단계와 2단계를 모두 만족하며, 그 발음이 [만둣국] 혹은 [만둔국]이므로, 3-1단계를 만족한다. 따라서 사이시옷을 표기하여 '만둣국'으로 적어야 한다. ⑤ '허드렛일'은 '허드레+일'의 구조로 1단계와 2단계를 모두 만족하며, 그 발음이 [허드렛일]이므로, 3-3단계를 만족한다. 따라서 사이시옷을 표기하여 '허드렛일'로 적어야 한다.

102) ①

[출제의도] 띄어쓰기 탐구와 적용

이 문항은 제시된 '확인 사항'에 따라 ㉑, ㉒, ㉓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탐구하고 그에 따라 띄어쓰기를 올바르게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고 있다. '확인 사항'에서 '단어는 사전에 표제어로 실린다.'라고 하였으니, ㉑으로 분류되는 '살아가다'는 하나의 단어임을 알 수 있다. 하나의 단어는 그 내부에서 띄어쓰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살아가다'로 적어야 한다. 또한, '확인 사항'에서 '-아'와 '-아서'가 교체 가능할 때에는 '본용언 + 본용언'의 구성이라 하였으며, 본용언은 하나의 단어이기 때문에 두 개의 본용언은 띄어 써야 한다. 따라서 '받아서 가다'가 가능한 ㉒의 '받아가다'는 '본용언+본용언'의 구성이며 '받아 가다'로 띄어 써야 함을 알 수 있다. 끝으로, ㉓의 '달아가다'는 '달아서 가다'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한 단어이거나 '본용언 + 보조 용언' 구성이다. 그런데 만일 '달아가다'가 한 단어라면 사전에 표제어로 실렸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달아가다'는 '본용언 + 보조 용언'의 구성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보조 용언은 띄어 쓰음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쓰도 허용한다.'라는 확인 사항'에 따라 띄어 쓴 '달아 가다'와 붙여 쓴 '달아가다'가 모두 가능하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할 때 ㉑, ㉒, ㉓의 띄어쓰기를 올바르게 한 것은 ①이다.

103) ③

[출제의도] 띄어쓰기 이해하기

(다)에서 '뿐' 앞에 있는 '그것'은 대명사로서 체언에 해당한다. 선생님의 설명에 의하면 '뿐' 앞에 체언이 올 경우 '뿐'은 조사로 사용된 것이어서 붙여 쓴다고 했으므로 '그것'과 '뿐'을 띄어 쓴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 ① '할'은 용언의 관형사형이므로 '만큼'은 의존명사로 사용된 것이어서 띄어 써야 한다.
- ② '나'는 대명사로서 체언에 해당하므로 '대로'는 조사로 사용된 것이어서 붙여 써야 한다.
- ④ '못해'는 '정도가 극에 달한 나머지'의 의미를 가진 형용사로, 하나의 단어로 사용된 것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 ⑤ '못하구나'는 '비교 대상에 미치지 아니함'의 의미를 가진 형용사로, 하나의 단어로 사용된 것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104) ③

[출제의도] 어미와 의존명사 구별하기

'날이 흐린 걸 보니 곧 비가 오겠네.'에서 '흐린 걸'은 '흐린 것'의 구어적 표현이다. 이 때의 '것'은 의존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105) ⑤

[출제의도] 한글 맞춤법의 원리를 이해한다.

㉑과 ㉒에 사용된 '이다'는 서술격 조사이므로 제41항에 따라 '뿐이다'와 같이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106) ③

[출제의도] 어미와 의존명사 구별하기

'오랜만' : '오래간만'의 준말이므로 '오래간'과 '만'이 결합한 명사, '만' : 동안이 얼마간 계속 되었음을 나타내는 의존명사.

[오답]

- ① '-르길' : 가벼운 뉘우침이나 아쉬움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길' : '것'과 '을'의 준말로 의존명사.
- ② '-르게' : 어떤 행동을 할 것을 약속하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게' : '것이'의 준말로 의존명사.
- ④ '-르데' : 상황을 미리 말할 때에 쓰는 연결 어미, '데' : '일'이나 '것'의 뜻을 나타내는 의존명사.
- ⑤ '-르바' : 앞 절의 상황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바' : 앞에서 말한 내용 그 자체나 일 따위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

107) ②

[출제의도] 사례를 바탕으로 띄어쓰기 원리를 추론하고 이를 확대 적용한다.

㉑'손살같이'의 '같이'는 체언 뒤에 붙여 썼다. 그런데 ㉒의 '부모님과 같이'에 쓰인 '같이'는 체언이 아니라 '과'라는 조사 뒤에 사용되었다. 따라서 조건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원리를 적용한 것은 올바른 추리라고 할 수 없다. 참고로, ㉑'손살같이'의 '같이'는 '앞말이 보이는 전형적인 어떤 특징처럼'의 뜻을 나타내는 조사이므로, 체언 뒤에 붙여 써야 한다. 그러나 ㉒의 '부모님과 같이'에 쓰인 '같이'는 '과'라는 조사 뒤에서 '둘 이상의 사람이나 사물이 함께'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부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108) ②

[출제의도] 한글 맞춤법 적용

이 문항은 일상의 언어생활에서 잘못 표기하기 쉬운 사례를 중심으로 한글 맞춤법에 맞게 쓰인 사례를 고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까지 한글 맞춤법과

관련된 문항이 주로 규정 속에 내재되어 있는 원리를 파악하고 적용하는 능력을 평가하여 왔음에 비해, 이 문항은 직접적으로 올바른 표기를 고를 것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부치다'는 '편지를 부치다.'처럼 '편지나 물건 따위를 일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써서 상대에게로 보내다.'의 의미를 지니기도 하고, 제시된 용례처럼 '어떤 문제를 다른 곳이나 다른 기회로 넘기어 맡기다.'의 의미를 지닐 때에는 '안건을 회의에 부치다.', '표결에 부치다.', '재판에 부치다.', '투표에 부치다.' 등처럼 쓰인다. '부치다'와 흔히 혼동하기 쉬운 '붙이다'는 대체로 '붙다'의 사동사로 쓰여 '봉투에 우표를 붙이다.', '벽에 메모지를 붙이다.', '연탄에 불을 붙이다.', '계약에 조건을 붙이다.' 등과 같이 쓰인다.

[오답]

- ① '어제저녁'의 준말로, '엇저녁'이 아니라 '엇저녁'으로 써야 한다.
- ③ '적지 않은'의 준말로, '적잖은'이 아니라 '적잖은'으로 써야 한다.
- ④ 김치의 일종을 뜻하는 말로, '까뚜기'가 아니라 '까두기'가 바른 표기이다.
- ⑤ '편편하고 얇으면서 꽤 넓다.'의 의미를 지니는 말로, '넓적하게'가 아니라 '넓적하게'가 바른 표기이다.

109) ③

㉠은 '설거지', ㉡은 '찌개', ㉢은 '텔레비전', ㉣은 '계시턴'이 표준어이다.

110) ①

맞춤법을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①은 '어쨌든'으로 써야 한다. '어찌하였든', 혹은 '어찌 되었든'에서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았-'이 줄어든 형태이므로 '-졌-'은 '-졌-'으로 써야 한다.

111) ①

맞춤법을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①은 '어쨌든'으로 써야 한다. '어찌하였든', 혹은 '어찌 되었든'에서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았-'이 줄어든 형태이므로 '-졌-'은 '-졌-'으로 써야 한다.

112) ②

①의 '멧지'는 '메시지'가, ③의 '계시판'은 '게시판'이, ④의 '견쳐'는 '견혀'가, ⑤의 '댓가'는 '대가'가 표준어이다.

113) ②

'엇그제'는 맞춤법에 맞는 말이다.

114) ⑤

[출제의도] 문장에서 어휘의 사용이 옳은 것을 찾는 문제이다. ①의 '몇 일'은 '며칠'로, ②의 '오랜동안'은 '오랫동안'으로, '오랫만에'는 '오랜만에'로, ③의 '부비며'는 '비비며'로, ④의 '밀어부쳐'는 '밀어붙여'로 써야 하므로 정답은 ⑤번이다.

115) ②

②에 <보기>의 설명을 적용하면 '많이 걸어 종아리가 땅졌다.'가 맞다.

116) ②

13. 문장 성분의 호응 파악

정답 해설 : <보기>에서 주어와 서술어 사이의 호응이 이루어지지 않아 잘못된 문장에 대해 설명한 후, 같은 유형의 사례를 찾을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정답은 ②로, 주어인 '특징은'과 호응하는 서술어가 없기 때문에 잘못된 문장이 된 경우이다. 정답 ②

[오답 피하기] ① '구매'와 '구입'의 의미가 중복되어 잘못된 문장이다. '회원들은 상품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나 "회원들은 상품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 정도로 수정해야 한다. ③ '여간하다'는 부정어 앞에 쓰여 '이만저만하거나 어지간하다.'의 의미를 지니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아들의 성공 소식은 부모님께 여간한 기쁨이 아니었다."로 수정해야 한다. ④ 목적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어색하여 잘못된 문장이다. 이 문장의 목적어는 '유해 물질'과 '연료 효율'인데 '연료 효율을 높여 준다.'는 성립하지만 '유해 물질을 높여 준다.'는 의미가 성립되지 않는다. ⑤ '형언하다'는 주로 부정어와 함께 쓰여 '형용하여 말하다'의 의미를 지니는 동사이다. 따라서 "형언할 방법을 찾았다."는 잘못된 표현이다.

117) ④

①은 '사람을 태우거나 짐을 실어'라고 써야 하며, ②는 '우리 모두의 바람'이라고 써야 한다. ③은 '돈이 너무 적어'로 써야 하며, ⑤는 '김장을 직접 담가'로 써야 한다. ④는 '늘이다'와 '늘리다'의 쓰임을 묻는 문제로, 수나 분량의 경우에는 '늘리다', 길이나 넓이의 경우에는 '늘이다'를 사용하므로 ④는 올바른 표현이다.

118) ①

비문의 유형 및 해소

정답해설 : ㉠의 수정 과정에서 추가된 '물'은 목적어 '밭을'을 수식하는 관형어가 아니라, '널었다'를 수식하는 부사어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에서는 '개선된다'를 '개선된다는 것이다'로 수정하였는데, 이는 '내가 주장하는 바는'과 서술어가 호응하게 하기 위함이다. ③ ㉢에서는 '불편과

피해를 입었다'를 '불편을 겪고 피해를 입었다'로 수정하였는데, 이는 '불편'에 호응하는 서술어가 없기 때문에 '불편'과 호응하는 서술어 '겪고'를 추가하여 문장을 수정한 것이다. ④ ㉣에서는 '운동을 동참시다'를 '운동에 동참합시다'로 수정하였는데, 서술어 '동참합시다'에 호응하는 부사어의 조사를 '에'로 올바르게 고친 것이다. ⑤ ㉤에서는 '여간 기쁜 일이다'를 '여간 기쁜 일이 아니다'로 수정하였는데, '여간'은 '그 상태가 보통으로 보아 넘길 만한 것임.'을 뜻하는 부사로,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말과 호응하기 때문에 '일이다'를 '일이 아니다'로 수정한 것이다.

119) ③

비문의 유형 및 해소

정답해설 : 잘못된 우리말 문장을 '이유'를 고려하여 정확하게 고쳐 쓸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이다. 정답은 ③으로, '동물은 사람을 경계하기도 한다'와 '동물은 사람에게 기대기도 한다'가 결합하여 하나의 문장이 되었음을 고려하면, 서술어 '기대기도 한다'에 호응하는 부사어 '사람에게'가 추가되어야 정확한 문장이 된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사례 1]의 주어 '사람들은'과 서술어 '경향이다'가 호응하지 않지만 서술어를 '경향인 것이다'로 수정한다고 하여도 '사람들은'과 호응되지 않는다. ② [사례 2]에서는 '야구를 차다'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목적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맞지 않는다. 그러나 이를 '공이나 야구를 하다'로 수정하면 이번에는 '공을 하다'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목적어와 서술어가 호응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동생은 평소에 건강을 위해 야구를 하거나 공을 찬다.' 정도로 수정하여야 정확한 문장이 된다. ④ [사례 4]는 '사람을 좋아하는'이 꾸미는 대상이 '친구'일 수도 있고, '고양이'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중의문이다. '고양이가' 뒤에 심표를 찍는다고 해서 이러한 중의 성이 해소되지는 않는다. '사람을 좋아하는, 친구의 고양이가 새끼를 낳았다.'나 '사람을 좋아하는 친구의, 고양이가 새끼를 낳았다.' 정도로 수정하면 중의성을 해소할 수 있다. ⑤ [사례 5]는 조사가 잘못 쓰인 문장인데, '누구나'를 '누구도'로 수정한다고해도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현실에 직시해야 한다'를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로 수정해야 조사의 오용을 바로잡아 정확한 문장이 될 수 있다.

120) ③

문장성분을 활용한 고쳐쓰기

정답해설 : 이 문항은 필요한 문장 성분이 들어 있지 않은 비문을 올바른 문장으로 수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문항으로 정답은 ③이다. "정부는 기술을 외국에서 도입했지만 해결책이 되지는 못했다."에서 필요한 문장 성분은 '여전히'와 같은 부사어가 아니라, 무엇에 대한 해결책인지를 드러내는 문장 성분이다. 예를 들어, '그 사태에 대한 해결책' 혹은 '그 사태의 해결책' 정도로 수정해야 한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예의가 바른 사람은 오만하게 대하지 않는다."에는 '대하지'와 호응하는 '누구에게'의 부사어나 '누구를'의 목적어가 빠져 있다. 따라서 "남에게 오만하게 대하지 않는다."로 수정하는 것은 타당하다. ② "우리는 친구에게 화를 내기도 하지만 친하게 지내기도 한다."에는 '지내기도'와 호응하는 '누구와'의 부사어가 빠져 있다. 따라서 "친구와 친하게 지내기도 한다."로 수정하는 것은 타당하다. ④ "선생님께서서는 우리를 많이 아끼셨고 우리 또한 존경했다."에는 '존경했다'와 호응하는 '누구를'의 목적어가 빠져 있다. 따라서 "우리 또한 선생님을 존경했다."로 수정하는 것은 타당하다. ⑤ "이이의 호는 울곡이며 조선을 대표하는 유학자이다."에는 서술어 '유학자이다'에 호응하는 주어 빠져 있다. 따라서 "그는 조선을 대표하는 유학자이다."로 수정하는 것은 타당하다.

121) ③

정확한 문장 표현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이 문항은 정확하지 않은 문장 표현의 유형을 제시한 후 이를 문장 수정사례에 적용하여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고 있다. (가)에서 원래의 문장과 수정한 문장을 비교하면 부사어 '반드시'가 '절대로'로 수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에서 언급한 '부사어와 서술어의 문장 성분 간 호응이 지켜지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부사어 '반드시'는 '틀림없이 꼭'이라는 뜻을 지녀 부정(否定)의 뜻을 지니는 서술어와 호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부사어 '절대로'는 "절대로 하지 마라.", "절대로 없다.", "절대로 안 된다." 등에 서처럼 일반적으로 부정의 뜻을 지니는 서술어와 호응한다. (나)에서는 '나와 평등하다는 생각이' '타인이 나와 평등하다는 생각이'로 수정되었는데, '타인이'라는 주어가 추가되었다. 이는 '평등하다'라는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이 빠져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을 고려한 수정 결과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의 조사나 어미를 잘못 사용한 경우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 해당한다. 신정보와 구정보에 따라 조사 '이/가'와 '은/는'을 잘못 쓰는 경우,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에 따라 '라고'와 '고'를 잘못 쓰는 경우, 자격과 수단의 의미에 따라 '(으)로 서'와 '(으)로써'를 잘못 쓰는 경우 등은 조사를 잘못 사용한 경우이다. 또한, '-대'와 '-대'를 잘못 쓰는 경우, '아니오'와 '아니요'를 잘못 쓰는 경우, '-든'과 '-던'을 잘못 쓰는 경우 등은 어미를 잘못 사용한 경우이다. <보기 2>에 이러한 수정 사례는 제시되지 않는다.

122) ⑤

⑤의 '와중'은 '일이나 사건 따위가 시끄럽고 복잡하게 벌어지는 가운데'의 뜻이다. 여기서는 모두들 편안하게 잠든 것이므로 '시간에도'라고 고쳐 쓰는 것이 적절하다.

123) ③
[출제의도] 문장 성분 간 호응을 이해한다.
'차마'는 뒤에 오는 동사를 부정하는 문맥에 쓰여 '부끄럽거나 안타깝워서 감히'라는 뜻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③의 문장은 '수지는 차마 친구에게 사실을 말할 수 없었다.' 등으로 고쳐야 문장성분 간 호응이 이루어진 문장이 된다.

124) ④
[출제의도] 정확한 문장 표현하기
④는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어색한 문장이므로, '문제는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이 다른 곳으로 이동되었다는 것이다.'로 수정해야 한다.

- [오답]
- ① 필요한 서술어가 생략되어 있으므로 '비가 내리고 바람이 많이 불었다.'로 고쳐야 한다.
 - ② 부정 서술어 '안 된다'와 호응하는 부사인 '절대'로 바꾸어야 한다.
 - ③ '회의를 갖는'은 외국어 번역투이므로, '회의하는'으로 고쳐야 한다.
 - ⑤ '근절'은 '다시 살아날 수 없도록 아주 뿌리째 없애 버림'이라는 뜻이므로, 의미가 중복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모든 사회악을 근절해야 한다.' 또는 '모든 사회악을 뿌리 뽑아야 한다.'로 수정해야 한다.

125) ④
[출제의도] 정확한 문장으로 표현하기
'주호는 책을 나보다 더 좋아한다.'에서도 비교 대상은 명확하지 않다. '나'와 '책'이 비교 대상이라면 "주호는 나를 좋아하는 것보다 책을 더 좋아한다."라고 고쳐야 하고, '주호가 책을 좋아하는 것'과 '내가 책을 좋아하는 것'이 비교 대상이라면 "주호는 내가 책을 좋아하는 것보다 더 책을 좋아한다."라고 고쳐야 의미의 중의성을 해소할 수 있다.

- [오답]
- ① '부르다'의 피동형은 접사 '-리-'를 사용한 '불리다'이므로 ㉠으로 고친 것은 적절하다.
 - ② 동작의 주체가 '손님'이고 화자가 명령하는 상황이므로 해오체의 종결 어미 '-세요'를 사용한 ㉡으로 고친 것은 적절하다.
 - ③ '설레다'의 명사형은 명사형 어미 '-ㄴ'이 결합한 '설렘'이므로 ㉢으로 고친 것은 적절하다.
 - ⑤ '제품'은 높임의 대상이 아니어서 '-시-'를 쓸 수 없으므로 ㉤으로 고친 것은 적절하다.

126) ②
[출제의도] 문장을 어법에 맞게 고쳐 쓴다.
'의논하다'는 주어, 목적어, 필수적 부사어를 요구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다. 그런데 '나는 어제 친구와 의논했다.'라는 문장에는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문장을 '나는 어제 친구와 그 일을 의논했다.'로 고쳐 쓴 이유는 문장의 필수 성분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이다.

- [오답]
- ① '예상'에 '미리'의 의미가 들어 있어 의미가 중복된다.
 - ③ '나는 눈이 시리도록 파란 하늘을 보았다.'에서 '눈이 시리도록'은 '파란'과 '보았다'를 모두 수식할 수 있어 문장의 의미가 중의적으로 해석된다.
 - ④ '읽혀지다'는 '읽다'에 피동 접미사 '-히-'가 결합된 '읽히다'에 '-어지다'가 다시 결합된 이중피동이다.

127) ①
[출제의도] 정확한 문장 구성 방법을 이해한다.
'라고'는 직접 인용할 때 사용되는 조사이므로 '가졌다라고'와 같이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가)에서 '라고'를 간접 인용을 나타내는 '고'로 바꾼 것이다. (나)의 '환기'에는 이미 '공기'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공기를 환기해야 한다'는 의미가 중복된 표현이 된다. (다)에서 '규명하고'를 넣은 것은 원 문장에 필요한 성분이 누락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128) ②
[출제의도] 어법에 어긋난 표현을 바르게 고쳐 쓰기
㉠은 접속조사 '과'로 연결된 두 목적어 중 '창작 활동'에 호응하는 서술어(필수성분)가 생략되어 있으므로 서술어를 넣어야 한다. ㉡의 '불러졌다'는 피동 접미사인 '-리-'와 피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어지다'가 사용된 이중 피동이므로 '불렸다'로 수정해야 한다. ㉢은 관형격 조사 '의'로 인해 문장이 중의성을 갖게 된 예이다. 중의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미를 분명하게 밝혀 적어야 하므로 '아버지의 그림'을 '아버지가 그린 그림, 아버지가 소유한 그림, 아버지를 그린 그림' 중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의 부사격 조사 '-에'는

무정명사와, '-에게'는 유정명사와 결합한다. 따라서 정답은 ㉡번이다.

129) ④
[출제의도] 정확한 문장 사용하기
㉠은 '개방하게 하고 있습니다'라는 적절하지 않은 사동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고친 문장에도 '개방시키고 있습니다'로 사동 표현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다. 이 경우 '우리 학교는 도서관을 매일 개방하고 있습니다.'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130) ④
[출제의도] 잘못된 어법이나 번역체 등에 의한 문장의 오용 사례를 교정한다.
㉠은 '성실한'의 수식 대상이 '그'인지, '그의 동생'인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중의성을 갖게 된 문장이다. '성실한 그의, 동생'에서 '성실한'의 수식 대상을 '동생'이라고 볼 수 없고, '성실한, 그의 동생'에서 '성실한'의 수식 대상이 '그'라고 볼 수 없다.

131) ③
[출제의도] 글을 적절하게 고쳐 쓸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의 ㉠ 문장에서 주어진 '유럽의 과학자들은'이므로 '확인되었다'라는 서술어가 주어와 호응하지 않고 있다. 주어와 호응할 수 있는 서술어는 '확인된 것이다'가 아니라 '확인하였다'이다.

132) ①
[출제의도] 고쳐 쓰기의 일반적 원리에 따라 글을 바르게 고쳐 쓸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휴지 외에 다른 일용품들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사례를 추가하게 되면, '휴지 대신 손수건을 사용하자'는 논지에서 벗어나게 되어 글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하게 된다.